금주의 법구-〈불유교경〉
권력자와 결탁하여
서민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스스로 마음을 단정히 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0월 1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22호 2016년 11월 16일 수요일

조계종도 '직선제' 열망 제도권 문턱 못 넘다

여론조사 80.5% '찬성' 중앙종회는 안건 이월

불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던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가 법제화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계종의 혁신적 변화로 기대를 모은 '총무원장 직선제'는 스님 80% 이상이 찬성했으나 중앙종회에서 논란 끝에 이월됐다. 직선제에 대한 종도 열망이 극명히 드러난 만큼 제도 마련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선제 특위 구성 '잰걸음' 보였지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1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7차 정기회를 열고 상정된 직선제 관련 종헌 개정안을 3월 종회로 이월시켰다.

법제화가 무산된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는 조계종이 종도들의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대중공사에서 60%가 넘는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이런 여론 속에 중앙종회는 직선제 특위를 구성해 법제화를 모색했다.

직선제 특위는 수차례 회의 끝에 승랍 10년 이상인 중덕 · 정덕 법계 이상의 8000여 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종헌 개정안을 마련한 데 이어 불교계 사상 최초로 직선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했다.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승랍 10년 이상, 중덕 · 정덕 법계 이상 8000여 명 중 비구(534명) · 비구니(466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로 직선제 찬성 의사를 물은 것이다.

사상 첫 여론조사, 스님 80.5% 지지

11월 8일 중앙종회 정기회 속개에 앞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직선제가 대중공사 당시 보다 훨씬 높은 80.5%의 지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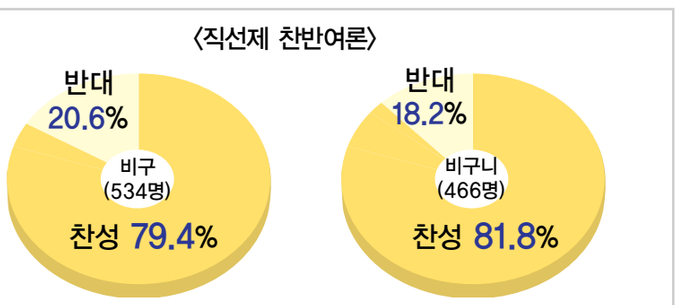
조사결과 법계별로는 대종사가 40%로 직선제 찬성률이 가장 낮았고, 종사 77%, 종덕 81.7%, 대덕 83.9%, 중덕 83.3% 순으로 나타나 법계가 낮을수록 직선제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대부분의 스님들이 직선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현행 간선제에서 비구 스님에 비해 선거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비구니 스님들은 명덕 81.8%, 현덕 85.2%, 혜덕 90.5%, 정덕 78.6%로 오히려 높은 법계에서도 직선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세부법령 개정 부담감 작용

이 같은 내용에도 종회에서는 종헌 개정안 상정과 함께 이월하자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월 사유는 앞서 상정된 추첨제에 관한 종헌 개정안과 직선제 종헌 개정안의 발의 의원이 일부 겹친다는 것과 선거법 개정 등 실질적인 개정 절차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다.

〈직선제 찬반여론〉



기득권 내려놓기 실패 비판
경과 공개 및 표결 없이 이월
직선제 특위위원 전원 사퇴
추진력 잃어 법제화 불투명
"장기적 시각서 연구 필요"

이런 상황에서 추첨제 종헌 개정안을 발의한 초격 스님은 이월에 동의한 반면 직선제 종헌 개정안을 발의한 태관 스님은 "3월 임시회에서 세부법령은 처리 가능하다. 일단 채택여부부터 결정하자"고 의사를 밝혔다.

이월을 주장하는 종회의원 스님들이 이를 질타했고, 이에 태관 스님은 "종회에서 특위를 함께 만들고 종회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성문 스님이 "안건이 이월 되더라도 일단 여론조사 결과라도 구체적으로 들어보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월 주장 발언 속에 유야무야됐다.

특위 전원사퇴, 장기적 접근 필요

결국 직선제 종정 개정안은 이에 따른 종법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 속에 이월됐다. 이런 상황에서 직선제특위위원장 태관 스님은 "이번 종회에서 종헌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직선제 도입이 어렵다고 본다. 더 이상 활동이 어렵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직선제 특위도 비공개 회의에서 위원 전원사퇴를 결의했으며 임시방편으로 특위 위원인 덕조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직선제 특위위원장 덕조 스님은 "내년 3월 종회 전까지 위원 스님들을 다시 선출해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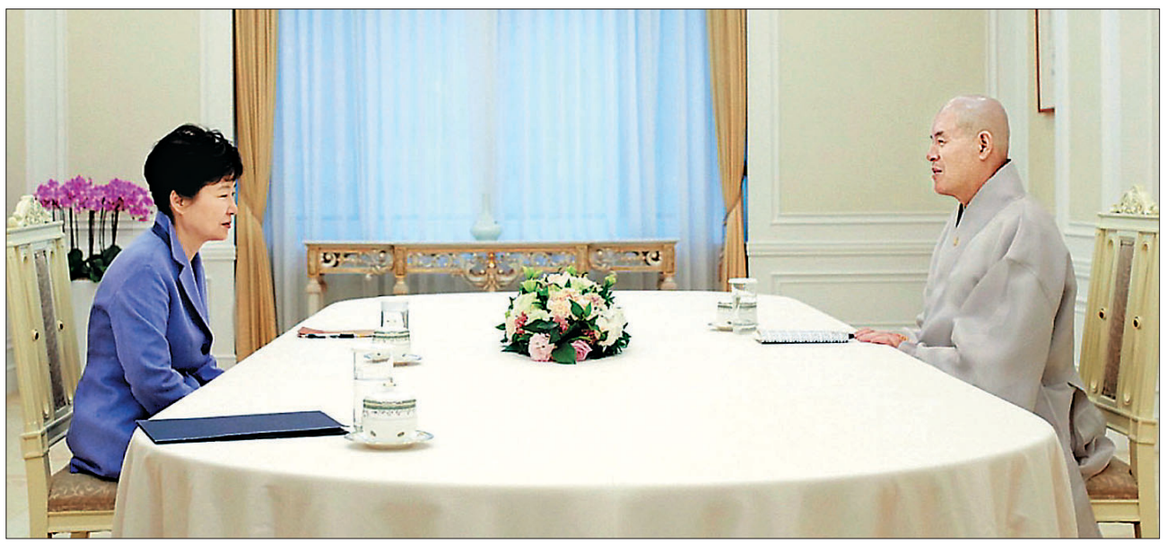
이번 법제화 실패와 특위 위원들의 사퇴에도 직선제와 관련된 논의는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위위원으로 참여한 종회의원 정산 스님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로 대중들이 원하는 제도를 파악한 디딤돌을 놓았다"고 평가하며 관심을 당부했다.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대중들의 열망이 드러났음에도 여러 이유로 법안을 이월, 사실상 현행 체제 유지를 선택한 종회와 집행부는 5%밖에 되지 않는 지지율 속에 광장의 열망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와 같다"며 "직선제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직선제 특위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던 목종 스님은 "그동안 직선제는 계파의 당략에 따른 주장이었지만, 처음으로 중립적인 특위 활동을 통해 밑그림을 그려냈다"며 "이번 특위에서 대중들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3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는 비록 도입이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종단이 준비해갔으면 한다. 향후 공직자선거법 전문가 등 외부 전문위원을 영입해 연구하고, 세부법령 기반을 다졌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오른쪽)은 11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종교계 원로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국정현안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자승 스님, 박 대통령에 "꽃을 버려야"

11월 9일 청와대서 대통령 면담… 〈화엄경〉 인용 민심 전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1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최순실 게이트'의 해법을 제시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의미의 〈화엄경〉 경구를 통해서다.

청와대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민생안정과 국정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먼저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어 〈화엄경〉을 인용해 '수목등도화(樹木等到花) 사재능결과(謝才能結果) 강수류도사(江水流到舍) 강재능입해(江才能入海)'라는 구절을 소개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이 경구를 전하며 자승 스님은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지혜로 삼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대통령과 면담하기 전 의견을 경청해 현 시국에 대한 민심을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은 박 대통령이 지난 7일 가톨릭 염수정 추기경, 개신교 김장환 · 김삼환 목사를 만난 데 이은 두 번 째 종교계 원로 간담회다.

종무원들은 시국선언 발표
"대통령 퇴진 · 새누리 해체"

한편, 같은날인 9일 조계종 종무원 223명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란 제하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 대통령 퇴진 및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부처님 제자로서 작금의 사태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 우리는 지혜를 모아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자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국정농단 방관 및 국민기만 새누리당 해체 △야당은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판단 대신 국민 요구와 입장 대변할 것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성역없는 검찰수사 △부정 축재 · 특혜 환수 및 취소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국정교과서, 위안부 한일합의, 개성공단 폐쇄, 한반도 사드배치 등 박근혜 정권서 이뤄진 모든 국가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함과 동시에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노덕현 · 박아름 기자

전국 선원 동안거 결제

조계종, 2200여 수좌 100여개 선원서 정진

전국 주요 사찰과 총림이 일제히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동안거 결제일인 11월 14일 오전 전국 사찰과 선원은 동안거 입재법회를 봉행, 방부를 들인 수좌스님들은 3개월간의 용맹정진을 다짐했다.

조계종은 매년 전국 100여개 선원서 2200여 명의 수좌스님들이 방부를 들여 수행에 매진하고 있으며, 일반사찰 스님과 신도들도 이 기간 동안 정진한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결제법어를 통해 "모든 대중은 오직 마음의 빛을 돌이켜 대오견성 하겠다는 대발심과 대용맹심으로 각자의 화두를 성성하게 챙겨 화두의심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으로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기 바란다"며 "금생에 견성하지 못한다면 불견성법을 어느 생에 또 만날 수 있으리오.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볼지어다"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정 · 총림 방장 법어 7면〉

1122호 INDEX

시방세계 5
천진암 · 주어사지, 종교화합



도반의 향기 14 · 15
유인수 · 인재 · 인조 쌍둥이 삼형제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83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7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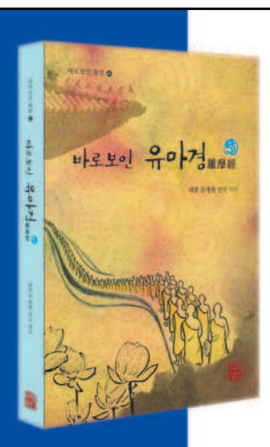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라 할 것이니, 불보살님이 교화하는 경지에서의 깨달음의 실경과 신통자재한 방편행을 보여주는 최상승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가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禪의 일상, 禪의 누림!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구, 바로보인)

현대불교 석학 탄허 스님 생가 복원된다

김제시가 현대불교 대표적 석학인 탄허 스님(1913~1983)의 생가복원을 추진한다.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11월 8일 이건식 시장, 나병문 시의장, 유진우 시의원을 비롯한 의회 전문위원 및 관계 공무원, 불교계 관계자 등 10여 명이 탄허 스님 생가복원 및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만경읍 대동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탄허스님 생가터로 알려진 대동리 300번지 일원은 현재 대밭으로 있으며, 건축 흔적은 남아있지 않으나 1955년 생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안내 역할만 하고 있다.

김제시는 탄허기념박물관, 탄허불교문화재단, 김제 금산사 등 불교계와 연계해 4억여 원의 국가 예산으로 생가를 복원할 계획이다. 2017년 부지 매입과 생가에 대한 고증 작업을 마무리하고 2018년까지 복원을 끝낸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생가 인근에 탄허 스님 기념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탄허 스님은 1934년(22세) 오대산 상원사로 입산 출가했다. 조계종 초대 종정 한암 스님을 은사로 용맹정진했으며, 1983년(71세) 오대산 월정사에서 원적했다. 화엄학과 비교종교에 대한 특강을 하며 세계적인 석학으로도 추앙받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 2017 중점 예산사업 '신도시 포교'

예산 총 701억원 확정… 특별회계 443억원

조계종 2017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이 2016년 대비 약 287억이 증가한 701억원으로 확정됐다. 신도시 포교를 위한 세종 · 위례신도시 시설건립 등 특별회계가 159억여원 증액된 443억여원에 달한 것이 주 원인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2017년 예산은 신도시 포교와 34대 집행부의 종책과제를 실행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신도시 포교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종무기관 일반예산을 5% 삭감하는 대신 특별회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를 보면 2017년 10월 경 진행되는 총무원장 선거로 인해 중앙선관위 예산이 6950만원 증액된 1억1023만원으로 170% 증가 편성됐으며 신도시포교 시설건립 전출예산으로 인해 재무부 예산이 12억4322만원 증액된 52억177만원으로 편성됐다.

종정 추대식 및 총무원장 이취임식 등을 소화하는 총무부와 신임 원로의원이 충원되는 원로회의, 호계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는 3~6% 가량 예산이 삭감됐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종 · 위례신도시 시설건립 관련 특별회계가 95억 5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지 매입을 진행중인 총본산 성역화 사업 관련 특별회계가 32억2140만원 증액된 59억215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밖에 국민연금 지원을 본격화 하는 승려복지 사업의 특별회계가 15억7870만원 증액된 47억8470만원으로 편성됐다.

은퇴출가자, 개념 정립부터 미흡

한편, 조계종이 사회 고령화와 출가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은퇴자 출가제도가 도입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좌절됐다. 정기회 출석인원 52명 중 찬성 31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된 것이다.

신도시포교 95억여원 등 배정

35대 총무원장선거 대비 기조

현대차 GBC건설 종단 대응 질타

은퇴자 출가제도는 신도와 출가자 사이인 은퇴출가자에 대한 승단의 개념정리부터 필요한 모습이었다. 종회에서는 역할과 지위, 교육, 의제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종회에서는 신도개념에 가까운 은퇴자 출가제 운영에 입장 개진이 많았다. 당초 제정안에 포함된 삭발과 의제, 교육의 경우 반발이 심했으며 차별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 207차 정기회의 은퇴자 출가제도 도입을 둔 표결에서 스님들이 찬반거수를 하고있다.

법안 수정에서는 권리는 축소되고 의무가 강조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기존 포교사 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회의원 법원 스님은 "은퇴자를 출가 활용을 위한 것인데 법 도입 취지가 명확해야 한다. 스님도 아니고, 신도도 아닌 집단을 만드는 것은 포교사와 다를 바 없는 제도를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부지 환수 대상 잘못됐다"

종책질의에서는 한전부지 환수에 대한 종단 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광전 스님은 "봉은사 토지(한전부지)에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장을 상대로 투쟁을 하는 것은 이해하나 정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자체장인 서울시장만을 상대로 하는데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광전 스님은 "2015년 정부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7차 투자활성화 계획이 발표된다. 여기에 기재부, 문체부, 국토위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 나오는데 한전부지 조기착공, 건축인허가 등을 조속히 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서울시가 부지 개발 인허가 쥐고 있는데, 정부가 인허가를 앞당길 의사를 비추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당시 언론 보도도 있다. 광속 인허가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종회의원 스님들 사이에서는 "이미 동력이 떨어졌다. 체면도 떨어지고 실리도 없다"는 비판과 함께 "'망현대차'와 같은 행위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자"는 출구전략 요청도 이어졌다.

이 밖에 법인관리법 제정 2년 간 행정조치가 없었던 데에 대해 법인 현황 파악과 행정지원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는 종책질의도 이어졌다.

이어 중앙종회는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함결 스님, 총무원장직선선출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덕조 스님,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수암 스님, 선암사정상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제정 스님, 총림실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태원 스님,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위 위원장에 화평 스님, 해종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법원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이밖에 소청심사위원장으로 동명 스님, 소청심사위원으로 화봉, 덕림, 본오 스님을 선출했으며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도성, 현담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또 보각 재연 지현 지안 태관 대전 원일 본각 해주 스님을 제9기 고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중수행체험단 중국 중경서 수행교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스님과 정사들로 구성된 한중수행체험대표단 32명은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중국 중경시 쌍계당에서 제10차 한중수행체험을 진행했다. 쌍계당은 서남불교 선종종찰로 제일선림, 종문거벽(宗門巨擘)이라 불린다.

행사에서는 양국 불교계의 수행자들이 참여해, 수행, 예불, 음식 등 사찰 생활과 지역의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중국 세계문화유산인 낙산대불을 비롯하여, 불교 4대 성지 중 한곳인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을 순례했다.

이번 행사에는 단장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성공 스님을 비롯하여,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지종, 미륵종 비구스님 16명과 조계종, 보문종, 염불종에서 비구니 스님 16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중수행체험행사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일환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노덕현 기자**

'발우공양' 미슐랭 스타레스토랑 선정

11월 7일 서울편 1스타에 사찰음식점 유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이 11월 7일 발표된 미슐랭 가이드북 서울편서 1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됐다. 사찰음식점이 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건 발우공양이 유일하다.

미슐랭 가이드는 발우공양에 대해 "사찰음식을 대중에게 소개한 레스토랑으로 고기와 해산물 외에도 오신채를 쓰지 않고, 사찰서 만드는 장류와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 깊은 감칠맛을 내는 요리를 선보인다"고 소개했다.

스타 레스토랑은 1~3까지 나뉜다. 3스타는 요리가 매우 훌륭해 맛을 보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 2스타는 멀리 찾아갈만한 식당, 1스타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으로 구분한다. 서울편에는 3스타 2곳, 2스타 3곳, 1스타 19곳이 선정됐다.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의 내부 모습.

문화사업단 측은 "미슐랭 가이드에 발우공양이 선정된 것은 2009년부터 사찰음식문화의 원형보전 및 계승,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매진해온 노력의 결과"라며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사찰음식을 인정받게 된 획기적인 계기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슐랭 가이드는 전 세계 26개국을 대상으로 독립적이고 일관된 선정과정을 통해 미식문화의 국제적 표준이 돼 왔다. 엄격한 교육을 받은 전문 평가원들에 의해 선정된다. 평가기준은 재료의 수준, 요리법과 풍미의 완벽성, 요리의 창의적인 개성, 가격에 합당한 가치, 전체 메뉴의 통일성, 언제 방문해도 변함없는 일관성 등이다. 객관성을 보증하기 위해 평가원은 직접 비용을 지불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청련사 백우 스님 1주기 맞아 기념법회

11월 19일, 법어집 봉정 및 탑비 · 사적비 제막

태고종 천년 고찰인 양주 청련사 주지를 역임하다 지난해 11월 입적한 백우 스님〈사진〉의 법어집 봉정식과 부도 · 탑비 · 사적비 제막식이 1주기를 맞아 봉행된다.



태고종 청련사(주지 해경 스님)는 11월 19일 오전 11시 경내 대적광전과 부도전 일대에서 백우 스님 열반 1주기 기념 법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평소 백우 스님의 감로 법문을 한데 묶은 법어집 봉정과 함께 부도와 탑비, 사적비 제막식도 함께 마련한다.

청련사측은 "이번 백우 스님의 업적과 가르침을 기리는 탑비 불사 등을 위해 석조각 부문 문화재 수리기능자 박한흥 대표를 선정했으며, 사적 비문은 원철 스님이, 탑비와 사적비 전면부 글씨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정상옥 초대 총장이 전서체로 쓰기로 했다"며 "비석의 길이는 약 240~25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련사 주지 해경 스님은 "스님은 평소에 철저한 수행을 후학들에게 강조하셨다"며 "마음이 흐트러지고 게을러 질 때마다 스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많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한편 청련사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에 있던 안정사의 후신이다. 안정사는 조계종과 분규가 이어져온 사찰로 재산권을 갖던 조계종이 2005년을 전후해 매각함에 따라 2007년부터 3년여에 걸쳐 이건한 바 있다. 백우 스님은 이 곳 청련사서 24대부터 27대까지 4대에 걸쳐 주지를 맡으며, 이건불사를 주도했으며, 지난해 12월 1일 세납 73세, 법납 61세로 입적했다. **김주일 기자**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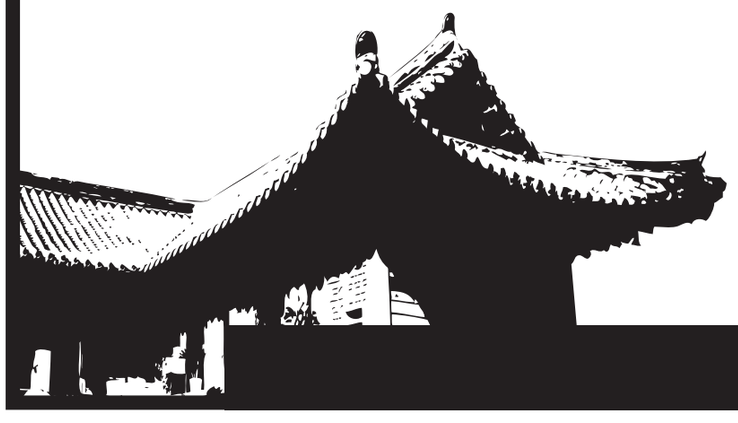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불교 담론 이끌 지식인 결집체 조직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 11월 21일 불교미래포럼 창립

정책 · 사회 · 세계화위원회 구성, 초대 통섭 수불 스님

한국불교가 처한 현실을 고민하고, 불교 내 · 외 현안 해결방안 모색과 한국불교 세계화를 논의할 불교지식인들의 결집체가 조직된다.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이하 교불련)는 11월 21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서 '불교미래포럼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교불련이 주축이 돼 1년 넘게 준비한 불교미래포럼은 불자교수들을 필두로 교계와 학계를 망라하는 불교지식인 결집체를 지향한다.

1987년 출범한 교불련은 30여 년간 각 대학에서 신행활동을 하는 불자교수들의 연결망이라는 불교공동체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공동체 역할에만 안주해 대외적 역할에 한계가 드러나 불교종단 내 · 외부 위기, 국가 ·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한국불교 세계화 등에 있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 이에 많은 불자교수들이 별도의 독립기구를 조직해 각종 민감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2월 제16대 교불련 회장에 취임하면서 '불자지식인 네트워크' 구상을 발표했던 심익섭 회장은 이 같은 요청에 공감, 불교미래포럼 창립준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불교지식인 네트워크 결성에 나섰다.

심익섭 회장은 "불교계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쏟아져 나오는데 도대체 불자교수들은 뭘 하느냐는 세간의 지적이 많았다"며 "그간의 부족함을 반성하면서 지식인들이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발굴하고자 뜻을 모은 것"이라고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불교미래포럼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사업을 총괄해 불교내부 현안을 담당하는 '불교정책위원회', 불교의 대국가 · 대사회적 문제와 이슈에 대응하며 역할방안을 모색하는 '불교사회위원회', 한국불교 세계화 및 통불교 관련사업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내는 '불교세계화위원회'로 구성된다. 아울러 상징적인 총재 역할을 '통섭(通攝)'으로 정했다. 통섭에는 평소 교불련에 많은 관심을 보인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추대될 예정이다. 초대회장은 정관 변동이 없는 한 불교미래포럼을 추진한 심익섭 교불련 회장이 맡는다. 각 위원회 위원장과 고문, 자문위원은 논의 중이다. 통섭과 회장을 비롯해 각 위원장 등 임기는 2년이다.

불교미래포럼은 신행단체가 아닌 만큼 종단 등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불교 내 · 외 현안을 두루 다룰 계획이다. 또한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서 다양한 행사를 치르며 지역불교계 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을 밝혔다. 특히 각종 위원회 회의나 공식 포럼을 소박하게 실시해 외양보다는 내실에 충실할 방침이다.

심 회장은 "원융회통의 정신으로 사회 변화를 응시하며, 통섭의 이상으로 생산적인 담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단순히 교수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각 분야서 활동하는 불자지성인들의 참여를 독려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대장정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창립법회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창립 경과보고 및 취지 설명 △정관 심의 및 의결 △창립취지문 낭독 △통섭 추대 △회장 및 임원진 위촉 △회장 취임사 △통섭 기념법어 △사업계획 보고 등이 진행된다. 이후에는 축하공연과 만찬이 이어진다.

한편 '통섭'은 2005년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가 미국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 1929~)의 저서 〈Consilience〉를 통섭으로 번역한 말이다.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범학문적 연구'를 일컫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5대 종단, 박근혜 퇴진 운동본부 발족

11월 10일 차대통령 퇴진 및 새누리당 해체 촉구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원불교 · 천도교 5대 종단은 11월 10일 '박근혜 퇴진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우리 5대 종단 종교인들은 불의가 판치는 시대를 끝내야한단 소명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정의를 바로 세움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전 국민적으로 번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에 5대 종단이 동참했다.

5대 종단(불교 · 개신교 · 원불교 · 천주교 · 천도교)은 11월 10일 광화문 광장서 '박근혜 퇴진 운동본부'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불법 부정 대선 개입으로 출발한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노동개악, 백남기 농민 살해 등 거쳐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없을 끔찍한 일마저 저질렀다"며 "박 정권은 국정 권리를 자격 없는 측근들에게 넘겨줬다. 대한민국 헌법은 부정됐고, 국민들은 조롱당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지난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선 "제대로 된 사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의 잘못은 오로지 '순수한 마음'서 벌어진 실수로 축소시켰으며, 모든 부정은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태'로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에 대해선 "주요 인물들이 최순실에 대해 몰랐다 주장하는데 믿기 어려운 말"이라며 "국정농단의 책임서 벗어날 수 없다. 국회를 통해 박 정권을 견제하기 보단 청와대의 하수인임을 자처해왔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즉각 자리서 물러나고, 새누리당은 해체돼야한다"며 "우리 종교인들은 오늘 선언 이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결연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표명했다.

이들은 11월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시민대행진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편 '5대 종단 박근혜 퇴진 운동본부'에 포함된 불교계 단체는 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한국불교언론인협회, 정의평화불교연대, 평화통일불교협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통일바루,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불교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지협동조합 등이 포함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월정사 공양보살상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 8일 지정예고… 월인천강지곡 卷上도

평창 월정사 8각 9층석탑(국보 제48호)의 앞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는 보살상인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사진〉이 국보로 승격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1월 8일 보물 제139호인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과 보물 제398호 〈월인천강지곡 권상〉〈사진〉을 국보로,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등 6건을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본래 국보인 월정사 8각 9층석탑의 남쪽 전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하고 있어, 탑과 보살상은 하나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돼 왔다. 하지만 탑은 국보로, 공양보살상은 보물로 지정돼 그간 별개의 문화재로 인식돼 왔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탑전(塔前) 공양보살상은 이전에는 찾기 힘든 고려 전기적 특징인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도상과 구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며 "국보로 지정된 석탑과 묶어 국보로 지정하는 것이 조성 당시의 조형적, 신앙적 의미를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국보 승격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한글을 창제한 세종이 아내인 소헌왕후의 공덕을 빌기 위하여 직접 지은 찬불가인 〈월인천강지곡 권상〉은 국어학적, 출판 인쇄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물 지정예고된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은 발원자와 발원 목적과 내용, 제작 장인 등 조성경위를 알 수 있는 명문이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밖에도 2014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환수된 문화재인 국새 황제지보 · 유서지보 · 준명지보를 비롯해 신라 · 중국 시인의 시선집인 〈협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 박동형 초상 및 함 등은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수능 D-7, 母情 불심 수능을 1주일 앞둔 11월 10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수능 원만성취 기도법회 후 한 여성불자가 수험생 자녀를 위한 합격기원 촛불에 불을 붙이고 있다. **노덕현 기자**

22회 불교인권상, 알리시아 모랄레스 선정

쿠바국제우호협회 부대표 수상 영예

불교인권위원회는 11월 8일 '제22회 불교인권상' 심사를 실시, 알리시아 코레데라 모랄레스 쿠바국제우호협회(ICAP) 부대표〈사진〉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ICAP는 1960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전 세계 146개국 2,017개 기관과 교류 및 연대, 반전평화 및 인권운동과 국제재난 긴급구호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10년 아이티 지진, 2014년 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 2015년 네팔지진 피해 지역에 의료진을 파견한 바 있다.

특히 모랄레스는 단체 대표로서 전 세계 우호협력을 주도하고, 베트남 · 라오스 · 몽골 등 빈곡국 의료지원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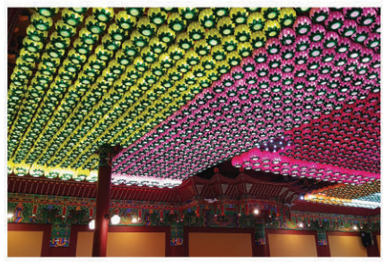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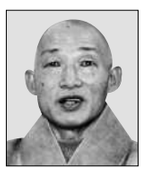
삼각산 산신봉찬대제

성운 서울 삼천사 주지 스님은 11월 15일 경내 산영각서 '제13회 삼각산 산신봉찬대제'를 개최했다.



인천시민 힐링 콘서트

종연 미추홀공덕회 이사장 스님은 11월 10일 인천평생학습관 강당서 '인천시민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



성역화불사기금 기탁

흥선 김천 직지사 주지 스님은 1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성역화불사기금 5000만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김병조 명심보감 특강

월우 해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11월 16일 오후 7시 해남문화예술회관서 '김병조 교수 명심보감 특강'을 개최한다.



파라미타 20주년 법회

심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스님은 11월 20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혜민 스님 초청법회

명신 광주 연화사 주지 스님은 11월 5일 광주KT 대강당서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저자 혜민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대전사암련 신임회장에 동화 스님

11월 2일 임시총회서 제24대 회장에 추대



대전불교사암연합회는 11월 2일 용문동 대전불교사암연합회관에서 '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보광사 주지 동화 스님〈사진〉을 추대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前 회장 도암 스님을 비롯해 30명의 회원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대 회장 추대에 이어 연합회 향후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제24대 회장에 추대된 동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연합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부정적인 것들은 타파하고 본래의 성스러움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항상 솔선수범하는 행동으로 서로 존경하고 화쟁하면서 단결하고 협력하자. 그래야 지역불교계가 겪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역대 회장님들의 원력을 이어 부족하지만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화엄, 삶의 지침… 쉽게 전할 것"

Interview

퇴임 앞둔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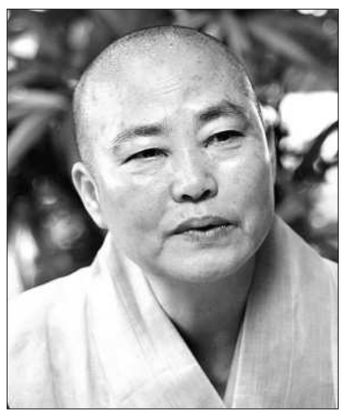
"왔으면 가야하듯이 퇴임은 정해진 것이죠. 담담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년 정년 퇴임을 앞둔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본각 스님〈사진〉은 퇴임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1991년 중앙승가대 교수로 취임한 본각 스님은 화엄학의 대가로 26년 동안 화엄의 정수를 후학들에게 전했다.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중앙승가대 불교학부와 대학원학생회, 총학생회는 11월 7일 본각 스님의 정년퇴임 기념 강연회를 개최했다.

본각 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법계와 보현 그리고 중도'를 주제로 강의했다. 스님이 퇴임 강연 주제로 법계 · 보현 · 중도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화엄경〉의 배울 수 있는 삶의 지침이 '법계 · 보현 · 중도'라는 키워드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법계는 우리 앞에 펼쳐진 무한한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 진리의 세계는 연기로



7일 '법계 · 보현 · 중도' 주제
퇴임강연… 화엄 요체 전해
화엄사상 알릴 대중서 집필

이뤄지죠. 법계를 보기 위해서는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세계를 바로 인식한 뒤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는 것이 '보현행원'입니다. 보현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착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도의 삶을 살아야합니다. 〈화엄경〉은 이런 삶의 방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각 스님은 〈화엄경〉의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근원적 삶의 지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가 연기법입니다. 모두가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법계연기를 인식하게 되면 나만 잘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화엄경〉은 보현행원을 제시합니다. '남이 편안해지면 나도 편안하다'는 것이죠. 또한 중도는 극단을 거둬내고 갈등을 완화합니다. 화엄사상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지표를 찾을 수 있어요."

26년동안 화엄학을 가르친 본각 스님의 최종 목표는 화엄사상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퇴임을 앞두고 준비 중인 전문 연구서 집필을 마치면 화엄에 대한 대중 강연과 쉬운 교양서에 저술할 계획이다.

"퇴임하고 금륜사로 돌아가면 대중 강의를 가장 먼저 하려 합니다. 화엄학자로서 교실에서 화엄을 전했다면 이제는 저자거리에서 화엄사상을 전법할 것입니다. 또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화엄경〉 지침서도 발간하려 합니다."

화엄학의 대가로 수많은 후학들을 대출한 본각 스님. 스님은 퇴임이라는 출발선에서 '화엄사상의 대중화'라는 새로운 원력을 준비 중이다. 신성민 기자

탈북민 · 티베트청소년에 희망을

금강경독송회, 공익단체에 총 1천만원 전달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11월 3일(사)좋은벗들에 탈북동포 지원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아울러 (재)아름다운동행에도 티베트 청소년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이 메주, 된장, 참기름, 조청 등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을 토대로 마련됐다. 김재웅 법사는 "마음을 닦는 사람은 주변을 살피고 배려하고 돕는 자비심을 늘 닦아야 한다"며 "금강경독송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년 1000만원씩 20년째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우불교원 금강경독송회는 1973년 설립 후 국내와 미국, 유럽 등 15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 사찰과 군법당 등에 금강경 50만권, 불서 170만권을 보시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대학과 도서관 등에 세종대왕과 원효대사, 이순신 장군 등 한국의 위인과 석굴암, 고려대장경, 고려불화 등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책 75만권을 무료 배포하고, 한식, 한복, 전통예절을 알리는 행사를 9000여회 열어왔다. 노덕현 기자



뉴저지에 불교의 美 전하다

태황 스님, 뉴욕한인미술協 전시회 참가



뉴욕한인미술협회가 개최한 정기 전시회에 출품된 태황 스님 작품.

종교인으로서는 최초로 석조각 기능보유자인 태황 스님(부건조각원장)이 불교 조각의 아름다움을 미국에 전했다.

태황 스님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뉴저지 리버사이드 갤러리에서 열린 뉴욕한인미술협회 정기 전시회 '모자이크II'에 참여했다. 협회 회원 30인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회화, 조각, 민화, 동양화 등 60여 점의 작품이 대중에게 소개됐다. 태황 스님은 일필휘지로 용을 그려낸 '태황용선경도'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 예정인 석조각 '소녀와 메기', 아미타 여래상 등 6점을 전시했다.

태황 스님은 "불교미술을 통해 젊은 세대가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대에 맞는 불교 조각을 대중들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의 작품은 해외에 지속적으로 전시된다.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마이애미 시청 별관 갤러리서 전시되며, 내년 2월에는 싱가포르에서도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050)2879-8790 신성민 기자

500여 이주민 한자리서 '화합'

마하이주민협, '2016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정호, 이하 마주협)는 11월 6일 동국대 부속고등학교 실내체육관서 2016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베트남 · 네팔 · 미얀마 · 스리랑카 · 캄보디아 · 몽골 · 중국 등 500여 이주민들은 글짓기 시상식,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문화공연 등 함께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박아름 기자

운문사, 은행나무 아래 음악회

11월 6일 6000여명 참석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2016 운문사와 함께하는 경상북도 도계음악회'를 11월 6일 경내 마당서 개최했다. 이 자리엔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과 운문승가대학 학장 일진 스님, 주지 진광 스님, 이상진 한국환경음악협회장, 이승율 청도군수, 박권현 정상구 경상북도의원 등 사부대중 관람객 6000여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서울 강남서 통일 노래하다

봉은사, 11월 5일 '강남 통일문화 축제' 개최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남북이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자는 취지의 '강남 통일 문화축제'를 11월 5일 개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강남구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1부 '둘이 하나 되는 통일 Talk'와 2부 '둘이 하나 되는 통일 음악회'로 진행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11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천진암 성모성당 강연후 대중들이 천진암 일대를 걷고 있다.


천진암 성모성당을 둘러보는 스님들의 모습


천진암 성모마리아상 앞에서 자비명상 마가 스님과 송요셉 신부가 종교화합을 상징하는 굳은 악수를 하고 있다.


하품그리 마을회관 앞에서 펼쳐진 뮤지컬.


위령제에서 헌향하는 가톨릭 신부 모습.

종교 갈등 걷어내고, 화합의 씨앗을 심다

[현장] 천진암·주어사지서 펼쳐진 종교화합 행사

불교계 자비명상, '천진암' 첫 방문
아리담문화원, '주어사지' 서 문화제
불교·가톨릭 인식 차이 드러나

> "가톨릭계에 천진암·주어사 불교역사 알리는 노력 이어져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불자들의 노력으로 이 땅에 종교화합을 이끌고, 그 힘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치유되길 기원합니다."

조선시대 박해를 받던 가톨릭 신자들을 보호하다 희생된 스님들의 숭고한 역사가 살아숨쉬는 곳. 경기도 광주 천진암(天眞庵)과 여주 주어사지에서 불자들의 종교화합을 기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단법인 자비명상(대표 마가)과 아리담문화원(원장 송탁)이 11월 5일 이 일대에서 가톨릭 인사들과 함께 종교 화합의 장을 개최한 것이다.

천진암과 주어사지는 광주에 위치한 앵자봉 기슭에 좌우로 나뉘어 자리하고 있다. 가톨릭계에서 한국 가톨릭 발상지로 여기는 천진암과 주어사지는 1700년대 중반 이벽·이승훈·권일신·권철신·정약종 등 학자들이 스님들의 보호 속에 강학을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1801년 가톨릭을 박해한 신유사옥 당시 가톨릭신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10여 명의 스님이 참수당하고 두 사찰이 폐사된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다.

가톨릭계는 1980년대 천진암 대웅전 터에 이 5명의 묘소를 짓는 등 성역화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최근 주어사지에서도 성역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가톨릭계가 천진암 성역화 사업 당시 암자를 뜻하는 천진암의 '암(庵)'을 '암(菴)'으로 고치고, 사찰 흔적을 모두 지웠다는 것이다.

불교 관련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가톨릭계의 천진암 성역화 사업 결과를 보고 불자들은 2014년 주어사지 성역화 사업을 반대할 수 밖에 없었다. 2년여 동안의 갈등 끝에 마련된 이날 행사는 불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가톨릭계와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가톨릭 성지화된 천진암 첫 방문

먼저 행사는 마가 스님이 이끄는 자비명상이 주최한 천진암 방문으로 시작됐다. 이날 방문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천진암 입구의 거대한 성모마리아상과 십자가의 모습에 불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비명상 서울본부 선덕화 보살은 "이날 행사조차도 못받아 들이고 빠진 분들이 많다. 열린 마음으로 불교계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왔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남에서 온 동효 스님은 천진암 가톨릭 성역화 사업 당시의 반대움직임을 소개하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스님은 "출가 이전부터 이 지역에 살았다. 당시 광주·하남사암연합회에서 반대운동을 펼쳤는데, 여러 종단이 섞여 있고, 조계종단의 뚜렷한 입장이 없어 유야무야 된 바 있다"며 "가톨릭 성역화 사업은 이해하지만 불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요셉 신부 "공통점 있어, 화합 가능"

이런 불자들을 맞이한 건 송 요셉 신부였다. 성당 입구에서 악수를 하며 불자들을 맞이한 송 신부는 종교간 공통된 부분이 많다며 강연했다.

천진암 성모성당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송 신부는 "오늘 오신 불자님들은 성당을 건립한 후 처음 온 이웃종교인들"이라며 "욕심을 버리고 선을 행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행선피악(行善避惡)이 종교의 근본이기에 이런 관점에서 두 종교는 화합할 수 있다. 그 움직임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하품그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문화제에는 스님과 신부 등 총 4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어 연사로 나선 마가 스님은 "올바른 역사계승, 뭘까요?"라고 모인 대중들에게 질문하고 "종교가 다르니까 너는 여기 절에 오지 말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불교의 자비정신과 포용에 대해 한번 생각해봅시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스님은 이어 요셉 신부에게 프랑스 플럼빌리지에서 본 벽화를 본 딴 부처님과 예수님의 어깨동무 그림을 선물했다.

하지만 천진암에는 치유돼야 할 갈등의 흔적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보였다. 이날 천진암 경내에는 불교경전 독경 소리가 크게 들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천진암 관계자는 "1978년부터 가톨릭계에서 땅 1평 사기운동을 벌여 현재 30만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명 알박기를 한 이들이 있다"며 "인근 한 사람이 입구에 땅 1평을 산 뒤 피켓·현수막 시위를 하는가 하면, 미사시간 일부러 음향을 트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진암 인근에 살고 있는 김주석 씨는 "천진암이 갖가지 박물관과 성모마리아상 건립 등 과정에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많다.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진상을 밝히고 시정할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화합 위한 노력 필요성 드러나

종교화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은 아리담문화원이 여주 하품2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한 '주어사의 올바른 역사 계승을 위한 화합한마당'에서도 드러났다.

천진암을 방문한 자비명상 불자 200명과 수원 아리담문화원 등 각 지역에서 온 100여 불자들, 인근 가톨릭 교구 관계자 및 유림 10여 명은 주어사지 인근 하품2리 마을회관 앞에서 '주어사의 올바른 역사 계승을 위한 화합한마당'을 통해 이날의 행사를 이어갔다.

천주교 예배, 유교 제례, 불교 예불 순으로 합동 추모의식을 진행하며 각기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는 이어 진행된 예술제에서 선보인 뮤지컬이었다. 천진암과 주어사지 관련 구술 증언을 소재로 창작된 '생명이 중헌디!' 뮤지컬은 주어사 스님들이 가톨릭 신자, 유학자들과 함께 관군에게 사살되고 천진암과 주어사가 폐사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런 구술 증언에 가톨릭계 일부 인사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며 불편함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수원에서 온 김상기 불자는 "천진암과 주어사지는 폐사와 함께 화합의 의미는 묻히고 현재는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된 상황"이라며 "역사적 사료 고증과 이를 가톨릭계에 알리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리담문화원 원장 송탁 스님은 "장기간 지속돼 온 천진암, 주어사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소통만이 해답이다. 대중들, 그리고 가톨릭계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환기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가톨릭 측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종교갈등의 현장에서 열린 화합의 움직임. 이날 행사는 천진암과 주어사지에 대한 불자들과 가톨릭 신자들의 30년 넘게 굳어진 인식 차이가 드러난 자리이기도 했다. 진정한 종교 화합과 상생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행사는 막을 내렸다.

광주 천진암·여주 주어사지=노덕현 기자

깨달음수행법의 고통해탈문인

진귀 수인(手印) 수행법







고통해탈과 깨달음을 향한 .....
진귀방장의 특별한
수인(手印) 수행법을 한국불교 수행역사상
최초로 근기별, 병통별, 단계별, 날자별로 정리된
수행법을 공개합니다.

※ 위 사진은 실제 진귀 수인 수행법과는 다릅니다.

▶ 수행법 수강문의 : 1899-9532

깨달음 센터
enlightenment center

NAVER 깨달음센터 검색

부담 Zero, 신심 100배… "맘대로 공부"

대학생불교연합회 '내 맘대로 공부방' 운영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대불련 법당서 진행

각자 1시간씩 불교서적 읽고
배운 내용 대중에게 설명
질의응답하며 불교지식 쌓아
"각 대학동아리로 확대되길"


11월 7일 대불련 '내 맘대로 공부방'에 참여한 대학생법우들이 독서 후 배운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

"부처님께서는 고행 이후 수자따의 우유죽 공양을 드시고,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뒤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떠났던 다섯 수행자에게 가장 먼저 법을 설하셨습니다."

"자신 곁을 떠난 다섯 수행자에게 왜 제일 먼저 전법을 하셨나요?"

"수행자였던 부처님이 값진 우유죽을 드신 이유는 뭐에요?"

11월 7일 저녁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태우, 이하 대불련) 법당 안. 7명의 대학생불자들이 둘러 앉아 불교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바로 대불련이 10월 중순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실시하는 '내 맘대로 공부방'이다.

이 공부방은 각자 고른 불교서적을 1시간동안 자유롭게 읽고, 배운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참석한 법우들은 대부분 불교에 막 입문한 대학생들이었다. 요즘 말로 불교에 대해 '1도 모른다'는 이들은 천진한 미소와 함께 궁금한 것을 가감없이 물었다.

박태우 회장은 〈부처님의 생애〉를 읽고, 부처님이 고행 이후 선정에 들어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을 회원들에게 간략히 설명했다. 그러자 수자따에 대해, 다섯 수행자에 대해, 초전법륜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다. 한동안 답변이 이어지고 공부방에 처음 참가한 법우의 차례가 왔다.

〈불교입문〉을 고른 이승범(국민대 · 16학번) 법우는 사찰예절 중 하나인 '고두례'를 설명했다. 이 법우는 "그동안 사찰에서 고두례를 하면서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해했다"면서 "앞으로 마지막 절을 올릴 때는 고두례를 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겠다"고 말했다.

정윤정(이화여대 · 15학번) 법우는 초심자에게는 조금 어려울 법한 〈정토삼부경〉을 택했다. 그는 정토사상의 근본이자 극락에 대한 가르침이 담긴 책에서 막연한 극락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해했다. 정 법우는 "어머니께서 사경하시는 걸 보고 이 책을 읽게 됐다.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며 "특히 아미타불이 법장보살일 때 세운 48대원을 읽었을 땐 정말 가능한 것인가 싶을 정도로 대단하게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부처님의 생애〉를 잠시 읽은 정세영(서울여자간호대 · 16학번) 법우는 자신이 읽은 내용을 설명하는 데 난색을 표했다. 등장인물 이름과 불교용어가 난해하게 느껴져서다. 그는 "책 초반부인 부처님의 탄생과정을 읽었다. 하지만 단어가 생소해서 아직 법우들과 대화를 나눌 만큼 이해하지는 못했다"면서 "대신 공부방 모임이 아니어도 따로 시간을 내 읽어보고 싶은 흥미가 생겼다"고 밝혔다.

대불련이 이 같은 불교 공부모임을 시작한 것은 처음이다. 신행기반 단체임에도 교리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대학 불교학생회마다 교리공부가 제각각 이뤄지는 데다 심지어 교리공부를 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참여인원은 많지 않지만 대불련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법우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편이다. 다만 지방에서는 참여가 어려워 별도의 지역 공부모임이 필요한 실정이다.

원활한 공부를 위해 지도법사나 고문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태우 회장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게 동아리다. 편안한 공부모임에 지도법사, 고문 등을 두면 모임이 아닌 강의로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대학동아리에도 자율적인 공부모임이 생겨 단순한 친목뿐만 아닌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장병들 安心立命 의지처 거듭나길"

조계종 군종교구, 특수전사령부 호국사자사 낙성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1월 5일 경기도 이천 소재 특수전사령부 법당 호국사자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이천사암연합회장 인성 스님, 특수전사령관 조종설 중장, 3여단장 강신화 준장, 3군사령부 보명 공영호 법사 등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특수전사령부는 서울 송파구에 주둔하면서 1988년 민병돈 사령관 재직 당시 법당 호국사자사를 창건했다. 이후 2001년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부대가 이천으로 이전, 지난 7월 사령부 본대가 이동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호국사자사 재건립이 진행됐다.

호국사자사는 대웅전 108평, 교육관 · 어린이법당 · 도서관 등 121평, 요사채 · 대중방 · 공양간 등 141평, 범종각 13평 규모로 군예산 27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날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호국사자사는 특전사 장병들의 마음에 평화와 용기를 주는 안심입명(安心立命) 의지처가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함께 국군장병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따뜻한 병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전법도량이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조종설 중장은 기념사서 "부처님 말씀을 널리 알려 검은 베레 특전사들이 정신을 맑게 가다듬는 힐링 도량, 호국불교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신앙전력화를 이루는 큰 도량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국사자사 지도법사 재각 군승은 "군장병과 지역주민의 수행 · 포교도량으로서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삼성 서울R&D, '사고 팔며' 지역에 이바지

우면사회복지관 함께 11월 1~2일 나눔바자회 성료

서초구 저소득 가정 아동 · 청소년을 지원하는 나눔바자회가 열렸다.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DMC연구소장 김창용)은 우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영찬)과 함께 우면동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서 '2016 우면상회'를 개최했다.〈사진〉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 창립1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은 지역 주민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자 △임직원 기부 물품 판매 △애장품 경매 △아트 체험 △문화공연 등 실시했다.



권영찬 관장은 "대기업에서 나눔을 위해 지역 복지관과 함께 활동한단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다른 복지관도 지역사회 기업과 함께하는 복지모델을 계획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국제라이온스협회, 어르신 차량 지원

서구노인복지관에 차량 및 유류비 100만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발이 돼 전국을 누빌 차량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지구(총재 송경자)는 11월 8일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에 봉사차량과 유류비 1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송경자 총재는 "복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 계신 어른신들에 더욱 세심한 복지 서비스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복지관 주요 행사에 적극 참여해 어르신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장곡 스님은 "지원한 차량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라오스 NGO 봉사단 모집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2017년 라오스서 난치병아동 지원 사업 NGO봉사단원 2명과 프로젝트매니저 1명을 모집한다.

NGO 봉사단은 △난치병아동 지원사업 관리지원 △난치병아동 가족 돌봄센터 운영지원 △정부기관 · NGO 단체 네트워크사업서 활동하며, 전공무관하지만 의료 · 간호전공자나 아동 · 청소년 사회복지분야 경험자는 우대한다. 프로젝트매니저는 △라오스 내 기초조사 △신규 사업 발굴 · 수행 · 평가 △난치병아동치료비지원사업 관리 총괄 등 맡으며 의료 및 간호전공자 · 아동청소년 사회복지분야와 국제개발협력 경험자 지원 가능하다.

희망자는 11월 22일까지 홈페이지(www.jabinanum.or.kr)서 단원지원서 작성 후 jabinanum.int@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02)6334-2214

이승희 기자

"청소년 꿈 · 희망 위해 미래 50년 준비"

청소년교화연합회, 11월 8일 창립 50주년 기념식

1966년 운문 스님과 안병호 거사, 황해진 변호사 등 불교계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소년교화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선일, 이하 청교련)는 11월 8일 서울 AW컨벤션센터서 '창립 50주년 후원의 밤'을 열고,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돕기 위해 미래 50년을 준비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청교련은 1부 본행사서 50주년 발자취 영상 상영과 더불어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활동 청소년 2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청교련 총재 현성 스님은 치사를 통해 "50년 전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당시 청소년포교와 건전 육성을 위해 창립된 청교련의 나아갈 길이 더욱 큰 화두로 다가온다"면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기상을 떨치고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소년교화연합회는 11월 8일 서울 AW컨벤션센터서 창립 50주년 후원의 밤을 열었다.

이에 앞서 회장 선일 스님은 인사말서 "과학문명이 발달된 글로벌 시대를 맞아 청교련이 조직 재구성으로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찾고, 철학관을 키울 올바른 단체로 거듭나고자 한다. 적극적인 후원과 격려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주호영 국회정각회장과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청교련 50주년을 축하하면서 국가와 불교계를 대표하는 청소년단체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했다.

2부에는 김흥국 대한가수협회장 사회아래 후원의 시간과 △법고연주 △국립전통예술고 공연 △명상음악가 나왕케촉 공연 △마가 스님 자비명상 등 문화행사가 진행됐다.

윤호섭 기자

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다르마킹칼리지(절수행교육)

◎ 완벽한 :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알아차림, 감사염송법 텅빈 고요 삼매체험
◎ 순간 찰라 번뇌 망상, 잡생각 싹 끊는 비전
◎ 순간 찰라 마음이 크고 넓고 높게 큰마음 되는 비전
◎ 저절로 자동단전복식호흡의 비전
◎ 우주 태양+지구 땅의 기운 초고속 충전 비전
◎ 순수의식 참마음 참나 불성 초견성 비전

※ 상기 교육 마스터한 수행자에겐
◎ 스트레스와 부정적 맘으로 자율신경 무너져 심장 쿵쿵 뛰고 숨은 거칠고 공격홀몬 쏟아져 온몸 지배하는 병불행지옥 순간을 극복하는 지혜의 비전(10초~20초)
◎ 신명나는 인류최고의 가장 쉽고 온전한 빠른 요지부동 와선명상삼매를 체험케 함

절교육일정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 ~ 3시30분 (1일 3명 예약)
(깨달은 절수행이란? 책 읽고 홈페이지 참고하고 동참 요망)
절교육대상 : 상위 1% 수험생, 고시생, 명문대생, 한의사, 연구원, 벤처 CEO, IT연구원 예술인, 특별 우선 교육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신지2리 1101-1)
문 의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깨달은공동체 법왕정사 한불수행문화연구소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5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12월 4일까지
◆ 개 강 일 :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시비분별 내려놓고 오로지 화두정진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宗師驗人端的處(종사험인단적처)
等閒開口便知音(등한개구변지음)
一面若無靑白眼(적면약무청백안)
宗風爭得到今日(종풍쟁득도금일)

종사(宗師)가 사람을 시험하는 단적처(端的處)는 한가로이 입을 엶에 문득 지음(知音)함이로다. 바로 면전을 대하여 청백안(靑白眼)이 없으면 어찌 종풍(宗風)이 오늘에 이름을 얻으리오.

모든 대중(大衆)들이여!

금일(今日)은 병신년(丙申年) 동안거 결제일(冬安居 結制日)이라. 이 삼동구순(三冬九旬)의 결제기간동안 대중들이 모인 것은 모든 반연(攀緣)을 다 끊고, 시비분별을 내려놓고 오직 각자가 대오견성(大悟見性)을 위함이니, 대중들은 오로지 화두정진에만 몰두하여야 할 것이라.

이 일을 조금이라도 미루는 마음이 있다면 벌써 십만 팔천 리 나 어긋남이로다. 만약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 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 하지' '금년에 못하면 다음 해에 하지'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생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게 됨이로다.

그러니 모든 대중은 이 한 철에 반드시 견성(見性)하리라는 각오로 일각일초(一刻一秒)도 허비하지 말고 화두와 씨름해야 할 것이라.

이 귀중한 시간, 오늘이라는 날은 다시는 오지 아니함이로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곧 시시각각 죽음의 문턱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니, 누구라도 마음광명을 밝히는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염라대왕의 추심(推尋)을 피할 길이 없음이로다. 그러나 이 일을 분명히 밝혀서 자기의 마음광명을 본 사람에게는 생사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원래 없는 법이로다. 〈중략〉

옛날 중국(中國) 당(唐)나라시대에 한산(寒山) 스님이 천태산(天台山)의 국청사에 살 당시에 풍간선사(豊干禪師)에게 물었다.

"옛거울(古鏡)을 닦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빛을 비춥니까?"

풍간선사가 말하였다.

"빙호(氷壺)는 원래 그림자가 없거늘, 원숭이가 공연히 물속에 비친 달을 건지려 하는 것과 같구나."

한산 스님이 다시 말하였다.

"그래도 아직 비추지 못했으니 스님께서 다시 일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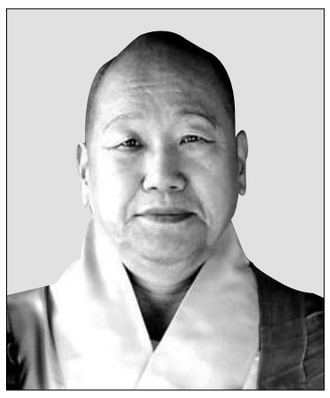
풍간선사가 말하였다.

"만 가지 덕(德)을 가져오지 않았거늘 나에게 무엇을 이르라고 하는가?"

이 두 분의 문답이야말로 천추(千秋)에 빛나는 법거량(法擧揚)이로다.

또 일일(一日)에 암두선사(岩頭禪師)가 덕산(德山) 방장스님께 참배(參拜)하러가서 방장실(方丈室)문을 열고는, 한 발은 방안에 들여놓고 한 발은 마루에 두고 묻기를,

"제가 성인(聖人)입니까? 범부(凡夫)입니까?"하니,



덕산선사가 석화전광(石火電光)으로 벽력같은 할(喝)을 하니, 암두 스님이 아무 말 없이 큰절을 하고 물러나왔다. 이렇게 사제지간(師弟之間)에 멋진 법담(法談)을 나누었다는 소문이 제방(諸方)에 분분했다. 그런 후에 세월이 흘러 동산선사(洞山禪師)에게 법담(法談)이 전해져서 듣고 말하기를,

"암두전활(巖頭全豁) 상좌가 아니면 덕산선사의 할을 알아듣기 어려우리라"고 하셨다.

동산선사의 그 말을 암두 스님이 전해 듣고는 "동산늙은이가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구나. 덕산선사가 할을 할 당시에 내가 한 손은 들고 한 손은 내렸노라"라고 말했다.

대중들은 말해보라!

어느 곳이 한 손을 든 곳이며 어느 곳이 한 손을 내린 곳이냐?

정미년(丁未年 1965년) 하안거 해제일에 묘관음사에서 산승(山僧)이 향곡선사(香谷禪師)를 찾아가 묻기를

"불안(佛眼)과 혜안(慧眼)은 묻지 않거니와 어떤 것이 납승(衲僧)의 안목(眼目)입니까?"하니, 향곡 선사께서

"사고원래여인주(師姑元來女人做-비구니노릇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니라)니라"하시기에

"금일(今日)에야 선사님(禪師任)을 친견(親見)하였습니다"라고 답하니

"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봤는고?"하셔서 "관(關)!"하고 대답하니, "옳고, 옳다!"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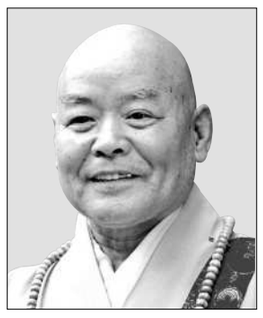
사해오호(四海五胡)의 대중(大衆)들이여!

한산 스님이 "옛거울(古鏡)을 닦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빛을 비춥니까?"라고 한 대문(大文)과 덕산선사가 석화전광(石火電光)으로 벽력같은 할(喝)을 하니, 암두 스님이 아무 말 없이 큰절을 하고 물러나온 대문과 그리고 향곡선사께서 산승에게 "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봤는고?"하심에 "관(關)!"하고 대답한 이 세 분 네 분의 문답처를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법문(法門)의 낙처(落處)를 알 것 같으면 다른 어떠한 법문에도 바른 답이 흉금에서 흘러나와 여탈자재(與奪自在) 살활종탈(殺活縱奪)의 수완을 갖추고 억겁세월이 지나도록 진리의 낙을 수용하며, 불조(佛祖)와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어 불은(佛恩)에 보답하고 홀로 하늘과 땅에서 종횡하는 대장부의 활개를 치게 될 것이라.

일대사 인연 통찰한 대오각자 나오길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너무나도 안타까운 미증유(未曾有)의 사건들이 온 나라를 힘들고, 슬프게 하고 있는 동안 시간은 어느덧 동안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앙산(仰山)이 위산(潙山)선사에게 묻기를(山因仰山問) "참 부처님이 어디에 머뭅니까?(如何是眞佛住處)"

위산선사가 "생각하되 생각 없음의 미묘함으로써(以思無思之妙), 신령스런 불꽃의 끝없음을 돌이켜 생각하라(返思靈焰之無窮). 생각이 다해 근원으로 돌아가면(思盡還源), 성품과 모습이 항상 머무르고(性相常住), 현실과 이치가 둘이 아니어서(事理不二), 이것이 참 부처님의 여여함이니라(眞佛如如)"라고 하였는데, 앙산이 이 말씀을 듣고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仰山言下頓悟).

앙산의 깨달음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단지 언구(言句)의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정체험(禪定體驗)으로 우주만상에는 성품이 상주하고, 제행은 무상함을 볼 수 있는 도리(道理)를 직관하면, 이론과 실제가 둘이 아님을 알 것이요. 이것이 곧 참 부처가 계신 곳임을 단박 알아차린 앙산의 깨달음일 것입니다.

납자들은 화두(話頭)를 참구(參 ㅎ하되 이(理)와 사(事)에 걸림이 없어야만 바로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생사와 열반도 두 가지가 아닌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치상으로만 본다면 천칠백 공안이 하나도 막힘이 없을 것 같고, 걸림 없이 다 이해가 된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치만 맞고, 사를 무시하게 되면 이것은 공(空)의 도리를 보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치와 현실에도 맞아야 도리를 바로 봤다고 인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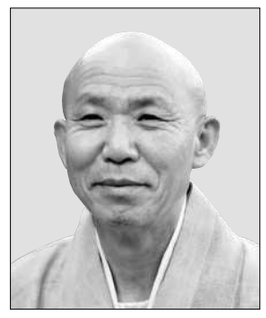
오늘 수행정진에 들어가는 납자들에게 당부할 말씀은 이번 결제기간동안 마음을 잘 단속하여, 마음의 파동 즉 번뇌망상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특히 역대조사스님의 번득이는 선지(禪智)의 힘을 받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화두참구에 진력하여 일대사인연을 통철(通徹)하는 대오각자(大悟覺者)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去貪瞋癡除鄙 ㅎ(거탐진치제비린)
十二時中常謹愼(십이시중상근신)
鍊磨眞性若虛空(연마진성약허공)
自然戰退魔軍陳(자연전퇴마군진)

탐진치를 버리고 인색함을 없애고 십이시간 가운데 항상 근신하라 진성을 연마하여 허공과 같이하면 자연히 마군의 떼를 물리칠 것이다.

참소식 알면 불속에서 연꽃 핀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莫妄想好行參禪(막망상호행참선)
不知終日爲誰忙(부지종일위수망)
若知忙裡眞消息(약지망리진소식)
一葉紅蓮火中生(일엽홍련화중생)

쓸데없는 생각 말고 부지런히 참선하라. 알지 못거라. 누굴 위해 그리 바쁜고? 만일 바쁜 그 속에 참소식을 알면 한 송이 연꽃이 불속에서 피리라. 〈중략〉

근세의 고승인 경허 스님께서는 침체된 선불교를 중흥시킨 중흥조이십니다. 스님은 아홉 살 때 모친을 따라 경기도 광주 청계사에 입산하여 계허(桂虛)화상을 스승으로 축발하고 법명을 성우(惺牛)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불교의 일대장교(一代藏敎)는 물론이고, 유교의 사서오경(四書五經)을 통달하고, 동학사에서 학인을 가르치는 대강백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속한 스승인 계허화상이 보고 싶어 길을 나섰는데 천안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뇌성벽력이 일더니 폭우가 쏟아져 비를 피하여 어느 집 추녀 밑으로 들어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열자가 번져 전염이 되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밤새도록 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생각하니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말로는 생사와 열반이 허공 꽃에 불과하다 했으나 막상 죽음이 닥쳐온다고 생각하니 두렵고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동학사로 돌아와 학인들을 해산하고, 이로부터 문을 닫아걸고 단정히 앉아 밤새워 정진하는데 턱 끝에 송곳을 받쳐놓고 용맹정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한 사미가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하고 물었는데 스님은 이 말끝에 크게 깨달아 오도송을 읊었습니다.

忽聞人語無鼻孔(홀문인어무비공)
頓覺三千是我家(돈각삼천시아가)
六月燕岩山下路(유월연암산하로)
野人無事太平家(야인무사태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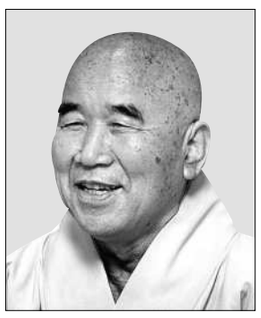
문득 콧구멍이 없다는 소리에, 삼천대천 세계가 내 집임을 깨달았네. 유월 연암산 아랫길에, 일없는 들사람이 태평가를 부르네.

子午慇懃修白業(자오은근수백업)
不須虛負好光陰(불수허부호광음)
爭似無爲實相門(쟁사무위실상문)
一超直入如來地(일초직입여래지)

밤낮으로 간절히 도를 닦아서, 좋은 세월 헛되이 보내지 말라. 어찌 함이 없는 실상문에, 한 번 뛰어 여래지에 바로 들어감과 같으리오.

다음이라는 변명 마음서 지워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宿昔靑雲志(숙석청운지)
蹉ㅏd白髮年(차타백발년)
誰知明鏡裏(수지명경리)
形影自相憐(형영자상련)

오랜 옛 적에 품었던 청운의 뜻이여! 의지와는 달리 어느덧 백발이 되었네. 누가 알았겠는가? 거울속의 얼굴을 보면서 안타까워 할 줄을.

산천의 초목도 선정에 드는 삼동겨울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 대중도 언제나 결제에 들어갑니다. 결제의 초입에는 모두가 의지를 굳게 다지고 반드시 공부의 성취를 보고야 말겠다고 결심합니다.

초지일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 것입니다. 생사는 폭포와 같아서 잠시도 여유부릴 틈이 없는데도 어느덧 망념의 꼬임에 빠져버립니다. 결제에 들어가는 각자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간절한지부터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때가 되어서 의례히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공연히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인의 말씀을 뼈에 새긴 뒤 한 바탕 공부를 지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약한 의지는 한 가지씩 이유를 붙이고 변명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맙니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무리 안타까워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훗날 그런 통한의 아픔을 맛보지 않으려면 결제하는 오늘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비추어 보며 경책해야 합니다.

"두 번 다시없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사무치게 파고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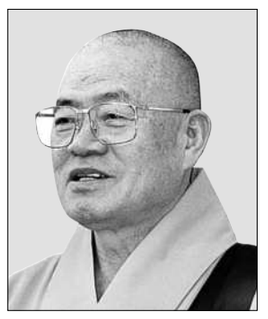
인생에 있어서 한창 때는 두 번 오지 않고 하루에 있어서 새벽이 다시 오지 않는 것처럼 공부인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이라는 변명은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화두를 들고 생사의 큰 적과 맞붙어야 합니다. 〈중략〉

口似醉人心似月(구사취인심사월)
回途垂手入塵時(회도수수입전시)
無明山上大法炬(무명산상대법거)
煩惱海中船筏師(번뇌해중선벌사)

술 취한 듯 횡설수설 하지만 마음은 밝은 달 같구나. 이제 가던 길 되돌려 중생들 세상으로 들어갈 때라네. 무명의 높은 산위에서 빛나는 진리의 횃불이 되고 거센 생사번뇌의 바다 건너가는 훌륭한 선장이 될지어다.

삭발 · 가사장삼만이 참된 출가는 아니다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一步二步三四步(일보이보삼사보)
不落左右前後去(불락좌우전후거)
山盡水窮無人處(산진수궁무인처)
不勞踏着本故鄕(불로답착본고향)

한 걸음 두 걸음 세 네 걸음으로 유와 무와 망상에 떨어지지 말고 가라. 산이다 하고 물이다 하고 인아사상 없는 곳에 힘들이지 아니하고 본고향에 이르리라.

時會大衆(시회대중)은 欲求何事(욕구하사)오 爲求衣食耶(위구의식야)아 爲求名利耶(위구명리야)아 爲求財色耶(위구재색야)아 旣云總否(기운총불)인댄 爲求何事(위구하사)오 但爲削髮(단위삭발)하고 身着染衣(신착염의)하고 自住蘭若消日(자주난야소일)하면 不名眞出家(불명진출가)요 能發憤心(능발분심)하야 速斷煩惱妄想(속단번뇌망상)하고 勇猛精進(용맹정진)하야 圓成正覺(원성정각)하고 普利群生(보리군생)하야 同入大涅槃(동입대열반)어 是名眞出家(시명진출가)니라.

시회대중은 무슨 일을 구하고져 하는고? 의식을 구하고져 하는가? 명리를 구하고져 하는가? 재물과 색을 구하고져 하는가? 다 아닐진댄 무엇을 구하는고?

다만 삭발하고 몸에 가사와 장삼을 입고 절에 머물러 소일하면 이름이 참된 출가가 아니요. 능히 분심을 발해서 속히 번뇌망상을 끊고 용맹 정진해서 원만히 정각을 이루고 널리 군생을 제도해서 한가지로 열반에 들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름이 참다운 출가니라.

若人端坐反照觀(약인단좌반조관)
刹刹塵塵是眞佛(찰찰진진시진불)
三佛形儀總不眞(삼불형의총부진)
箇箇本分是眞佛(개개본분시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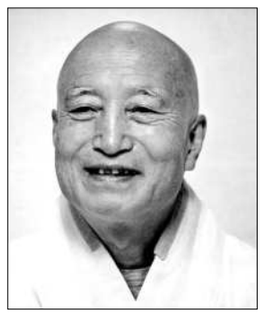
만약 사람이 단정히 앉아 반조해 관하면 세계마다 티끌마다 참다운 부처님이로다. 법신보신 화신불의 형상은 참부처님이 아니요. 개개인의 본마음이 참다운 부처님이로다.

我是我(아시아)요 汝是汝(여시여)인데 佛是何物(불시하물)고? 打柱杖一下云山不動(타주장일하운산부동)하고 水卽動(수즉동)이로다. "咦(이)"

나는 나고 너는 너인데 부처는 이 무슨 물건인고? 주장자를 한번치고 이르시되 산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물은 곧 움직이는도다. "이"

집착은 곧 무형의 족쇄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현재 한국에서 간화선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위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간화선은 장구한 역사와 더불어 훌륭한 수행법이며 여전히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요즘 간화선이 왜 비판에 직면해 있는가를 겸허히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간화선자들이 백가성찰의 철저한 정진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함으로 간화선의 위기를 극복하여 간화선이 만고에 훌륭한 수행법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자들이 조금의 자만이나 집착도 없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정진하여 조사들의 법등을 새롭게 밝힐 수 있을 때 간화선의 지평은 확장될 것이고 간화선은 현대의 문명사회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희망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공부인들의 불교 인생관이 확립돼야 합니다.

공부인의 인생관은 한 수행자의 정신적 지주요, 한 수행자의 마음의 대들보요, 한 수행자의 삶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제자 수행자는 철저한 신심과 철저한 원력과 철저한 공심이 항상 마음에서 떠나선 안 됩니다.

그리하여 나의 설자리를 바로 알고, 나의 할 일을 깊이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목표를 옳게 세우고, 나의 생명을 불교라는 높은 이념에 바칠 때 불교의 사명적 자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사명감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용감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진지하게 하고, 견성하게 하고, 중생제도하게 합니다.

공과 유, 시와 비, 성과 패, 고와 락, 해탈과 속박 등에 집착하지 맙시다. 집착하면 무형의 족쇄를 채우는 거와 같나니…

本無生滅事(본무생멸사)
何有去來時(하유거래시)
水河中發焰(수하중발염)
鐵樹上開花(철수상개화)

본래 나고 멸하는 일 없는데 어찌 오고 감이 있으랴 물속에 불꽃이 일어나고 쇠나무에 꽃이 핀다.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주 미탄사지 석탑 보물된다

문화재청, 11월 10일 지정예고


보물로 지정예고된 경주 미탄사지 3층 석탑.

신라 석탑 초기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경주 미탄사지 3층 석탑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주 미탄사지 3층 석탑'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1월 10일 밝혔다.

높이 6.12m의 총 35매의 부재로 구성된 미탄사지 3층 석탑은 1980년 이전까지는 기단부와 탑신부(塔身部, 몸돌)의 일부 부재가 소실된 채 방치되어 있다가 1980년에 남은 부재들을 활용해 복원됐다. 소실된 부재는 새 부재를 치석(治石, 돌을 다듬음)하여 조립했다.

파손되고 결손된 부재는 새 재료로 보강 · 보충하여 구 재료와의 이질감은 있지만, 신라석탑 기초부의 형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한 점과 그 형태가 정연하고 적절한 비례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크다.

특히, 일반적인 석탑의 판축(板築)기법과 달리 잡석(雜石)과 진흙을 다져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한 단이 완성될 때마다 굳히면서 쌓아나가는 기초부의 판축 축조방식을 사용한 점이나 기단부 적심(積心) 내에서 지진구(地鎭具)가 출토된 점 등에 대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미탄사는 황룡사 남쪽에 위치한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으며, 고려 후기까지 사격이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탄사지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요소를 지닌 석탑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경주 미탄사지 3층 석탑'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불교 소장학자 지원 하영수 · 김영석 교수

지원사업회 선정 결과 발표… 16일 시상식


하영수 교수


김영석 교수

제13회 불교 소장학자 지원사업에 하영수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박사 논문 부문)와 김영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초빙교수(번역 부문)가 각각 선정됐다.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11월 8일 올해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박사 논문 부문에 선정된 하 교수는 '법화경의 삼보구조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로, 번역 부문에 선정된 김 교수는 〈이부종륜론술기〉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 교수의 박사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법화경〉을 기존의 성립사적 연구와 달리 완성된 텍스트로 보면서 거기에 제시된 불법승 삼보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시도했다"며 "무한히 지속되는 보살행의 실천자로서의 부처상을 찾아내고 있는데, 연구 시각이 참신하고 논의 방법에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의 번역물에 대해서는 "〈이부종륜론〉과 관련된 티베트 불교의 문헌들은 인도불교 교단사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면서 "규기의 〈이부종륜론술기〉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간과돼 왔다"고 텍스트의 중요성을 상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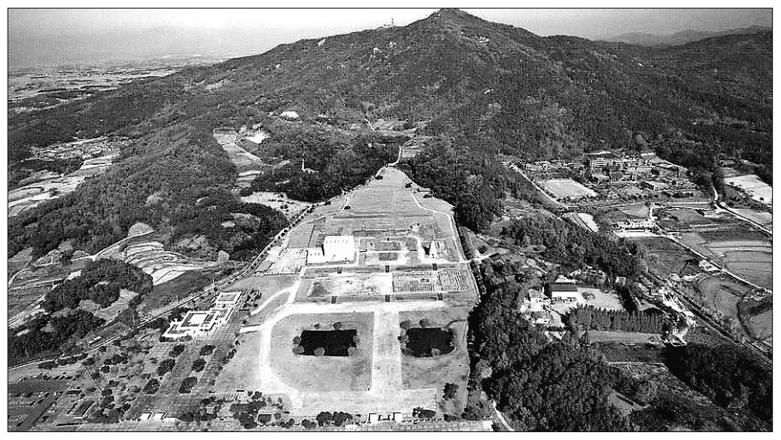
불교 소장학자 지원사업은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가 불교학 진흥을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올해 지원사업 시상식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강남포교원에서 열리며, 논문과 번역본은 향후 총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미륵사지 복원, '역사 연속성 회복' 중점"

국립문화재硏, '미륵사지 복원정비 방안' 심포지엄


발굴과 보존 연구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 전경. 2025년까지 단계별 연구를 통해 종합적 보존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발굴과 보존 연구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복원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익산시는 11월 4일 전북 익산시 모현도서관에서 '익산 미륵사지 유구 보존과 복원정비 방안'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는 백제 무왕 때 창건되어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던 사찰이다. 최초인 1966년 이후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발굴조사로 전체적인 규모와 가람배치의 특징이 밝혀졌다.

또한, 2009년 미륵사지 석탑의 해체조사 과정에서 석탑 1층 심주석에서 발견된 사리장엄(舍利莊嚴)을 통해 639년이라는 창건연대가 밝혀진 바 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 미륵사지 복원정비 연구 현황과 계획 등이 포괄적으로 제시됐다. 한주성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은 '미륵사지 복원정비 계획'을 통해 전반적 복원 방안과 연구 계획 등을 제시했다.

한 연구관은 미륵사지 복원의 목적은 그간 단절됐던 미륵사지의 '역사적 연속성 회복'임을 전제하며 "미륵사지의 역사 환경 보존과 지역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관람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하나의 미륵사지 활용 컨셉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획 중인 미륵사지 복원 구역은 △핵심구역 △완충구역 △유보구역 △생태보전구역 △관광지구로 나뉜다. 핵심구역인 미륵사지영역은 미륵사지 핵심 유적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완충구역은 식생 및 녹지 보전, 전시 · 관리 · 체험 등의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역은 다시 영역으로 세부화해 미륵사지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연구관은 "현재 광장과 연지, 사지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며 "광장은 지역을 배려한 공간이며, 연지는 미륵사지 및 금마의 역사와 설화를 주제로 한 역사 공원, 사지 영역은 정비된 유구를 전시하는 야외박물관의 컨셉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미륵사지 핵심 유적 보호하며
녹지생태 보전 · 관람 편의 도모
2025년까지 중장기 연구 추진
사지 유구 보존 방안 우선돼야

미륵사지의 종합적 복원을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도 발표됐다. 연구는 기본 구상과 기본 연구 · 심화 연구의 3단계로 이뤄지며 현재는 1차 기본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 구상은 2008~2010년까지 진행됐으며, 1차 기본 연구는 2013~2016년까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연구소는 미륵사지의 보존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유구 보존과 관람환경 개선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차 기본연구는 현황 유구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기법과 노출 유구의 근본적 보존 대책들이 연구되며 2017~2020년까지 4년 동안 이뤄진다. 심화 연구 단계는 2021~2025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며 이를 통해 미륵사지의 종합정비 계획이 수립된다.

한 연구관은 "심화 단계까지 연구가 이뤄지면 그간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미륵사지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뿐만 아닌 다양한 연구 성과를 집약해 종합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미륵사지 보존과 더불어 유구 보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현용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는 "미륵사지는 1966년 최초 발굴조사 이후 장기간의 발굴조사와 정비 사업을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정리됐다"면서 "하지만 거의 모든 유구들이 외부환경에 직접 노출돼 보호에 한계가 있다. 적극적인 유구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지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은 "1994년 미륵사지 발굴조사 이후 정비된 건물지에서 내부 토사의 유실 및 잔디 번식으로 인한 유구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미륵사지 건물지의 잔존 부재에 대한 보존 정비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시적 · 입체적 방법의 유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늦가을, '성보의 아름다움'에 빠져보세요

불교학계, 불교 문화재 조명 세미나 잇달아

가을이 저물어가는 시기, 불교 문화재에 담긴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들이 잇달아 열린다.

조계종 관촉사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함께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관촉사 은진미륵불 1010주년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충남 관촉사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논산 관촉사 석불의 시기별 존명(尊名) 인식의 변천(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논산 관촉사 사적비 연구(김정원(재)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논산 관촉사 근대 이미지 연구(홍은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부장) 등이 발표된다.

불교미술사학회(회장 지준)는 11월 19일 오전 10시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제28회 학술대회와 제1회 영축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양승은 동아대 석당박물관 학예연구원이 '경주 남산 불곡마애좌상의 도상연구'를, 진정환 박물관정책과 학예연구관이 '실상사 승탑 조영으로 본 실상산문과 정권'을, 박현서 한백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원이 '지리산 지역 통일신라 석탑 연구'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아미타신앙과 도상의 전개를 조명하는 국제 학술대회도 열린다. 동양미술사학회(회장 최성은)는 11월 19일 국립중앙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서방극락정토를 향한 염원-동아시아 아미타신앙과 도상의 전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은진미륵 1010주년 학술제부터
아미타 도상 분석 등 주제 '다채'

이날 학술대회는 김영미 이화여대 교수가 '신라의 아미타신앙'에 대한 기조강연으로 시작한다. 주요 발제로는 이분희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팀장이 '여말선초 석탑봉안 아미타불상 연구'를, 나가노 사토시 일본 류코쿠대(龍谷大)강사가 '일본상대(上代)의 아미타여래상과 정토신앙-호류지 전래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가 '흥천사 극락구품도에 투영된 극락'을, 리징지에(李靜傑) 중국 칭화대(淸華大)교수가 '명대 아미타불 48원과 서방극락세계도상'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 최선아 명지대 교수, 박혜원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송은석 동국대 교수, 김진숙 금강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밖에도 불교의 역사와 교리를 조명하는 세미나들도 개최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11월 16일 동국대 불교학술원 2층 강의실에서 '조선시대의 국가와 불교'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은 오는 12월 2일 100주년기념관에서 '〈번역명의대집(飜譯名義大集)〉의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국제학회를 개최한다.

또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11월 19일 오전10시 30분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마음과 의식-알라야식의 이해'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콘서트로 만나는 '행복의 길, 출가!'

11월 26일 부경대 대연캠퍼스서

출가에서 만나는 행복의 길, 이번엔 부산서 만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7시 부산 부경대 대학본부 2층 대연캠퍼스 대회의실(대강당)서 하반기 출가 콘서트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길을 찾아서'를 개최한다.

이번 하반기 출가 콘서트에선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의 깊이 있는 강의와 즉문즉설 시간이 마련돼 출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이밖에 일상 고민을 질문하고, 명쾌한 답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진행은 BTN 지대방에 출연하는 진명 스님이 맡으며, '속사포 랩퍼'로 유명한 불자 가수 아웃사이더가 함께 출연한다. 사전 질문은 '행복의 길을 찾아서 출가 사이트(monk.buddhism.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석중 스님은 "출가를 해도 사회 속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출가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02)2011-1810 하성미 기자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 "작은 정성으로 희망을"

사)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이하 부산생명나눔)는 11월 4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서 '제11회 100원 희망불씨콘서트'를 개최했다. 부산생명나눔은 콘서트를 통해 '100원 희망 저금통'을 나누고 작은 정성을 모아 난치병에 시달리는 환우를 돕는다. 또 장기 및 조혈모 세포 기증 희망등록 사업 캠페인도 실시했다.

부산생명나눔은 종립학교 해동고등학교에 생명나눔본부장상을 수여해 학생들의 희망 저금통 기금 모금 활동을 치사했다. 무대는 수월 스님과 가수 주병선의 음악으로 채워졌다. 이어 부산생명나눔 부본부장 목종 스님의 토크 콘서트로 생명의 존귀함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하성미 기자



11월 4일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가 개최한 '100원 희망불씨콘서트' 현장.

"100만 불자 포교 양성터 되길"

성암사, 11월 6일 신축도량 개원 및 청동오백나한 점안



성암사가 11월 6일 '신축도량 개원식 및 청동오백나한 점안법회'를 경내 특설 무대에서 개최했다.

도량 불사 신축, 포교 서원
불교대학 동문·신도 힘 모아
극락전 죽림당 등 7군데 개원
사부대중 500여명 참석 환호

성암사가 도량 불사를 마무리 하고 100만 불자 포교 양성터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성암사(주지 응현)는 11월 6일 '신축도량 개원식 및 청동오백나한 점안법회'를 경내 특설무대서 봉행했다. 신축도량 개원은 경남불교대학 동문과 불자들이 합심해 일군 것으로, 이를 통해 성암사는 현대불교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서원했다.

개원식은 오백나한 점안식으로 시작해 내빈들의 축하 속 테이프 컷팅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감사패 및 공로패 증정, 주지 스님 인사말씀,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의 법문 등으로 진행됐다.

감사패는 오백나한 조성 불사에 힘쓴 송창일 천종사 대표와 배익부 건축가, 장필규 (주)경도건축 대표가 받았다. 공로패는 곽성규 성암사 신도회장을 비롯해 김상규 경남불교대학 총동창회장이 수상했다.

주지 응현 스님은 "160명의 모든 소임자와 3만여 명의 우리 성암사 신도님들께 성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오늘 자리를 빛내 준 대덕 스님과 내외 빈께도 손 모아서 깊은 축원을 올리겠다"며 "가시밭길의 능선을 지나 눈물의 강을 17년 넘게 달려왔다. 불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암사 불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성대한 점안 법회서 여러분이 알 것은 마음 밖의 부처가 아닌 자신을 주인공 삼는 마음 수행을 닦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불교를 믿는 이유는 고통을 멀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인데 스스로 자문하고 앞으로 수행의 길을 바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한편 이번 성암사 불사에는 신도들이 함께해 의미가 깊다.

성암사 신도들은 1999년 주지로 부임한 응현 스님의 서원인 화엄도량 백만불자 양성에 동참하고 불교교육도량으로 성장하는데 앞장섰다. 성암사 경남불교대학 동문은 2010년 10월 다라니 기도 순례단을 결성하고 매달 1000여명의 불자가 참여한 가운데 108산사순례를 시작해 5년 동안 총 2회 진행했다. 이어 2008년에는 한평 불사 운동을 위해 '108연꽃모임'을 결성하고 터를 매입해 2014년 7월 도량 기공식을 시작으로 2년간의 공사를 마무리 했다.

성암사는 이번 개원식에서 오백나한전 외에도 공양간, 청풍당, 극락전, 죽림당, 송림다원, 야외삼존불, 2층 야외 법당을 함께 개원했다. 하성미 기자

"유일한 청소년 포교船 파라미타 난파 안 돼"

창립 20주년 지도자 포럼



파라미타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도자 포럼 및 워크숍을 부산 홍법사 교육관서 11월 5일 진행했다.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파라미타)가 청소년포교기관으로 유일한 파라미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종단의 관심을 촉구하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단 주장이 이어졌다.

파라미타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도자 포럼 및 워크숍을 부산 홍법사 교육관서 11월 5일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20년 동안 활동을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최됐다.

'파라미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을 맡은 파라미타 사무총장 성진 스님은 "파라미타는 불교의 유일한 청소년 포교 기관임에도 불구, 그동안 종단 관심 부족으로 고아와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국내 사립과 국립 등 전국 학교 1만5,260개 가운데 불교 종립학교는 초등학교 1개, 중학교는 16개, 고등학교는 17개인 상황을 설명했다. 성진 스님은 "요즘처럼 바쁜 학생들이 시간을 내 절을 찾는 건 앞으로 더 힘들어 진다. 파라미타를 통한 포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진 스님은 파라미타 활동 바탕에는 사찰이 언제나 연계 돼야하며, 사찰과 학교 간 소통을 위해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사무처의 역할을 필수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문화재 지킴이 활동과 같은 불교문화를 토대로 한 활동을 더욱 개발하고 해외봉사 등 차별화 된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어 이학주 동대부여중 교법사는 '파라미타 향후 발전 계획을 위한 핵심과제 마련'이란 주제로 "요즘 시대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그들에게 파라미타만이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들을 마련, 참여하는 학생들이 평안과 행복을 얻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기석 세종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처장의 '파라미타 주요 활동 확대 방안(국제 교류 봉사활동 중심)'과 엄태호 광신고등학교 교사의 '학교 분회와 사찰연계를 통한 청소년법회 활성 방안 마련'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회장 심산 스님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발전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위한 열정적인 모습이 기쁘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재가 안거 수행으로 '뜨거운 겨울'

11월 8일 재가불자 1500여명 동시 입재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는 11월 8일 홍법사 대적광전서 '병신년 동안거 재가안거 입재식'을 봉행했다.

올 겨울, 부산 불자들의 수행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사)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심산)는 11월 8일 홍법사 대적광전서 '병신년 동안거 재가안거 입재식'을 봉행했다. 재가 안거는 매년 재가불자들의 신심 증장과 수행풍토를 위해 안거철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이번 동안거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며,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서 주관한다. 재가안거 수행을 회향한 불자는 포교원 인증으로 수여되는 안거증을 받는다.

입재식은 1부 금강경 독송으로 수행에 대한 자세를 바로 잡고 나를 깨우는 108배로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재가 안거에는 부산 17사찰과 1,500여 불자들이 참여했다. 11월 14일을 시작으로 회향일은 2017년 2월 11일이다. 이 기간 동안 불자들은 조계종 연합회서 제공한 수행록에 따라 개인별로 수행을 체크하고 각 사찰서 주지 스님께 점검 받으며 서로를 독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성미 기자

보현회, 장애인 위한 나눔 체육대회

11월 6일 제19회 한마음장애인체육대회



부산 보현회는 11월 6일 사상괘법초등학교서 '제19회 한마음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과 한마음이 돼 자비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이 열렸다.

부산 보현회(회장 안성이)는 11월 6일 사상괘법초등학교서 '제19회 한마음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물품 후원 뿐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직접 나누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편 이날 자리엔 성우원, 평화의 집, 부산직업재활원 한마음장애인지원센터 등 부산 장애인 기관 8군데와 보현회 자원봉사단 및 보현회 청년회 250여명이 참석했다.

안성이 회장은 "19년 전 만난 아이들이 이젠 성장해 40살이 넘는 사람도 있다. 매년 만나면 운동회 언제 하냐며 기다리는 모습에 이렇게 찾게 된다"며 "이 시간을 통해 버림받았단 생각이 안 들도록 도와주고, 체력도 키워 건강을 되찾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원오사, 사랑의 장터로 여는 나눔

11월 6일, '제5회 꿈나무 후원자선바자회' 개최



부산 원오사는 11월 6일 '제5회 꿈나무 후원자선바자회'를 대웅전 앞마당서 개최했다.

지역 아동의 공부방을 후원하기 위한 사랑의 장터가 열렸다.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는 11월 6일 '제5회 꿈나무 후원자선바자회'를 대웅전 앞마당서 개최했다. 원오사는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인재불사를 위해 앞장 서왔다. 매년 개최하는 후원자선바자회는 지역의 나눔 장터가 될 뿐 아니라 아동 복지를 위해 지역 내 관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원오사와 인연이 있는 롯데 야구 선수 강민호가 참여해 사인볼을 나누고 포토타임을 가져 관심을 끌었다.

주지 정관 스님은 "공부방을 운영한지 8년에 접어든다"며 "매년 바자회 수익금을 공부방 운영과 장학금으로 회향하며, 중3학생들을 위해 졸업 기념 해외여행도 보낸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의상대사의 광대무변한 화엄의 세계로 가는 길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대한불교 조계종 제 16교구 본사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에서 공부하고자하는 신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본원의 특징은 중국불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기불교의 위빠사나 수행이 설일체유부, 구사의 지관수행, 중관수행, 유식의 유심수행, 여래장 사상, 선과 화엄으로 이어지는 사상사적 흐름을 교학적 이론과 실천적인 측면에 접목하였습니다.

원장스님은 스리랑카와 인도 뿌냐대학에서 석박사를 취득하셨고 현재 구사론 복 주석서, 유가사지론, 십지론, 산스크리트어 티벳어 사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삶의 방식으로 인해 세계화 되어가는 한국사회를 반영하여 매년 한국 불교 강맥의 산 증인이신 원조 각성 큰스님과 티벳 중앙대학 학과장 타시체링스님을 모시고 특강을 개설하고 있고 또한 남방의 고승대덕을 모실 계획입니다. 수희 동참하시어 21세기의 한국 불교를 세계화 하는 승가의 일원이 되시기를 앙망합니다.

- 상주형, 비상주형 비구학인 (2년 전문과정) (2017년도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비구니는 비상주형만 가능)
- 문 의 처 : ☎054)833-2324 (고운사 종무소)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 개 강 일 : 2017년 4월 1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고운사 홈페이지 입학양식), 승려증 사본, 기본교육기관졸업증명서, 증명사진(3×4) 2매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장 등현

“절은 작아도 봉사는 큰맘으로”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제가 사는 곳이 산골이다보니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주변에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북 진안에서 작은 포교당을 운영하면서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사진〉. 스님은 자신의 노력보다는 주위의 도움 덕분에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제가 특별히 나서서 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주변에서 하자고 하니 따르는 것뿐이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즐거우시다면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보경 스님이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지는 5년 정도 됐다. 사찰 규모나 형편을 고려하면 사찰 운영하기도 만만찮은 실정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편이라 생각해 신도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역 홀몸 어르신들의 생신상 차려드리기나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여는 것도 이 같은 스님의 원력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보경 스님이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자비실천에 집중돼 있다. 쌍봉사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도가 높아 추위가 일찍 찾아오고 유독 겨울이 길다. 그래서 스님은 어르신들의 난방 지원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다. 농촌 특성상 젊은이들보다 고령인구가 많은 편이라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유독 많고, 일정한 수입 없이 노인연금이나 기초생활연금에 의지하는 어르신들의 숫자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 형편을 고려해 보경 스님은 20여 명의 쌍봉사 불자들로 구성된 ‘섬김 봉사단’을 결성,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겨울이 닥치기 전인 10월부터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형편이 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쌀도 한 포대씩 전달하고 있다.

“제가 돕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겨울나기가 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사 등 지역 사찰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단체들과 함께 연계하는 나눔활동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 합니다.”

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진안지역 김장나누기 행사에도 해마다 참여하고 있다. 올 겨울에는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털목도리도 준비하고 있다.

쌍봉사는 규모가 큰 사찰이 아니다. 보경 스님이 2004년 주지로 부임해 주변 논 150평을 매입하고, 토지 용도변경을 거쳐 현재의 인법당을 10년만인 2013년 준공했다.

“아직은 사찰 규모가 작아 독자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사찰을 여법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돌보며 함께 나아가는 게 더 큰 가치라 생각합니다.”

보경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이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자 불사를 준비 중이다. 20평 정도의 작은 공간을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끼니를 해결하면서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꾸미고 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홀로 외로움을 타는 어르신들을 위해 작게나마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거창한 복지시설 같은 개념의 공간이 아닌 그저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게 나름대로 배려할 계획입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 연간 활동상 ‘한눈에’

광주불교聯, 4차 정기총회

활동보고서 및 자료집 발간



광주불교연합회는 11월 6일 정기총회를 열고 연간 활동보고서와 자료집을 발간 · 배포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11월 6일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열고, 한 해를 결산하는 〈2016광주불교연합회 활동보고서〉와 〈2016빛고을관등회 자료집〉을 발간 배포했다.

이날 발간한 활동보고서에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 성도재일연합법회, 신도회 출범, 빛고을관등회 사진전 등 연간 주요사업과 운영위원회 회의일지, 봉축기획단, 전통등기획단, 연희기획단, 사진문화기획단 등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을 70여 페이지에 담았다. 특히 기존에 광주불교계에서 볼 수 없었던 전통등 만들기와 연희단의 진행과정을 담은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2년 전 시작했던 전통등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전통등기획단의 전반적인 사업내용과 올해 첫 선을 보인 사찰연희단 구성 및 율동리더, 전체율동 보급을 진행한 연희기획단의 역할과 평가 등은 앞으로 광주불교계 각종 사업에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광주불교연합회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 다른 지역 사암연합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합회 부설기관인 빛고을나눔나무의 네팔행복자전거 지원사업과 대외협력사업, 불교단체 지원사업 등 대외적인 복지사업 또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정리했다. 연합회원들은 〈2016빛고을관등회 자료집〉이 광주지역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의 역동적인 모습과 준비과정 등을 자세히 수록해 “자료집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광주지역 30여 회원 사찰이 참여한 정기총회는 빛고을콰이어합창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불교의례 △1년간 활동영상 △감사패 전달 △인사말 △안건심의가 진행됐다.

회장 연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 해 동안 회원사찰 스님들의 도움과 운영위원들의 노력으로 광주불교가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사말에 앞서 광주불교연합회는 지역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미륵사 주지 혜법 스님과 김정효 前 총무팀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도솔암, 윤장대 조성불사 회향

11월 6일, 8개월 불사 거쳐

2018년까지 미륵대재 봉행도

지장신앙과 미륵신앙 도량인 고창 선운사 도솔암(감원 성본)은 11월 6일 윤장대조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도솔암 마애불 옆에 조성된 도솔암 윤장대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의 발원과 불자들의 동참으로 8개월의 불사기간을 거쳐 이날 회향했다.

미륵33대재에 이어 봉행된 윤장대 조성불사회향법회에는 선운사 총무 심학 스님, 재무 수찬 스님 등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불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경전을 넣은 책장을 돌리는 윤장대는 〈석문정통〉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하나 글을 알지 못하고 경전을 읽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으로 윤장대를 한번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전해진다.



윤장대 불사 회향법회에 참여한 불자들이 윤장대를 돌리며 신심을 다지고 있다.

성본 스님은 “불사에 동참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린다”며 “윤장대를 돌리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생애를 생각하며 기도 정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성된 도솔암 윤장대는 불자들이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고 불교가 일반인에 다가가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도솔암의 새로운 성보문화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편 도솔암은 마애불앞에서 선망부모 영가 천도와 학업, 사업성취, 병마 극복의 서원을 발원하는 미륵대재를 봉행했다. 도솔암 미륵대재는 매월 음력 7일 봉행되며, 오는 2018년까지 미륵33재 기도정진이 이어진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나한처럼 수행을”

광주 증심사, 오백나한대재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연광)는 11월 2일 오백나한전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오백나한대재’를 봉행했다.〈사진〉

행사는 증심사 자향회의 육법공양 의식에 이어 영산회 스님들의 영산재 기도와 법요식이 진행됐다.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은 법문에서 “나한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 당연히 많은 중생들의 공양을 받을만한 분으로 칭송받는다”며 “불자는 누구나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나한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심사 나한전(광주시 유형문화재 13호)은 1443년 김방에 의해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1609년에 다시 지은 전각으로,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장보고 기상 닮은 아이들의 문예세상

장보고아카데미, 청소년백일장

완도 신흥사(주지 법공)는 11월 2일 경내에서 부설기관인 (사)장보고아카데미 주최로 ‘제10회 장보고 청소년 백일장’을 개최했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 완도군, 완도교육지원청 등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400여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섬과 바다, 해조류’란 시제로 그림 · 산문 · 시 부분 경연을 실시, 최우수상(전라남도지사상, 전남라도의장상, 전라남도교육감상)을 비롯해 우수상 36명, 장려상 26명 등을 시상했다.

행사를 준비한 법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백일장 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지역의 좋은 문화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보고아카데미는 1999년 설립돼 문화 · 교육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해외유적답사, 템플스테이, 백일장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성산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지현(경주)
전국비구니총무 석우정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문도회회장 석법현
문도회부회장 석법진
문도회총무 석해안

명리학, 성명학 교육원 수강생 모집
수년간 명리학, 성명학을 배우고도 아직 통변이 되지 않는 분은 확실하게 지도함
※ 용신, 격국에 대한 중점 강의
010-3711-5072
▷수시접수가능◁
교육원장 석유심 합장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그 마음, 내려놓음이 답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⑦② 사교의 폐단을 치유하는 현장법사 일행



그림 · 최주현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경 구하러 가는 길엔 요괴도 많다."

이게 어디 아리랑 노래 가사던가? 사타동이란 골짜기에서 또 세 요괴가 기다린다.

사자 요괴 코끼리 요괴, 거기에 대붕 금시조 요괴, 이 요괴들은 정말 초특급 비보통 요괴들이라 손오공도 죽을 고생을 하고, 현장법사가 요괴에게 잡아먹힌 줄 알고, 대성통곡하고 포기까지 하는 험한 꼴 겪는데,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이 요괴를 거두신다.

알고 보니 석가모니 부처님과 오묘한 인연이라 무슨 오묘한 인연이냐구?

그건 설명을 보셔야 할 것이로다. 그리고 다시 나간 곳은 비구국.

요괴 도사가 국왕의 마음을 홀려 불교를 천시하고 도교를 높이며 아이들을 재료로 하여 정력과 불노장생에 좋은 영약을 만든다는!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에 처할 위기를 손오공이 나서서 해결한다.

잘못된 신앙, 사이비 종교의 폐단은 참으로 무서우니 한 요괴 도사가 요망한 가르침을 펴고 최고 통치자가 그에 현혹되니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누나.

초시공(超時空) 통합통신이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남섬부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세상 일이 예나 지금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다 마찬가지로구나.

아무튼 죽을 아이들 모두 구해주는 큰 공덕 세우니 그 나라에서 공덕비까지 세우고 전송을 하네. 이렇게 공덕이 높아지고 수양이 깊어질수록 현장법사의 인기는 더욱 치솟는데 요괴들에게 인기가 치솟는 게 문제로다.

특히 미녀 요괴들에게 인기가 더더욱 높아 열렬한 구애를 하는 미녀 요괴에 잡혀 동정을 잃을 위기에 처하네. 참으로 색(色)의 관문은 벗어나기 힘들구나.

이 요괴도 참으로 비보통 요괴라서 손오공 일행 고전을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여자 요괴, 천상세계의 탁탑천왕과 인연이 있는 것이 밝혀져, 결국 탁탑천왕 이끌고 와서 잡아낸다.

역시 세상살이에 인맥관리를 잘해야 되니 자칫하면 탁탑천왕, 요괴의 배후로 지목되어 큰 곤욕을 치를 뻔 했구나.

이렇게 또 한 번 여색의 관문을 넘고 나니 이상한 나라에 도착하였다.

승려라면 무조건 잡아 죽이는 나라! 이름하여 멸법국(滅法國).

불법을 소멸시키는 나라란다. 왕이 무도하여 '스님 일만 명을 죽인다' 맹세를 했는데, 지금까지 9,996명을 죽였단다.

현장법사 일행을 죽이면 딱 만 명을 채울 판일세. 이건 요괴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의 어려움…. 손오공 원숭이 꾀로서 벗어난다.

술법을 써서 궁궐에 잠입하여 여의봉을 날카로운 머리 깎는 칼로 바꾼 다음,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머리를 사사삭삭삭삭….

하룻밤 사이 모든 사람이 스님이 되어 버렸네. 여차 저차 결국 왕이 회개하고 모든 이들이 불법에 귀의하니, 국호도 바뀌었다.

불법을 흠모하는 흠법국(欽法國)으로!

이래서 공덕비 또 하나세우고…. 그 다음 등장하는 요괴들…. 남산대왕도 물리치고 구령원성도 제압하고…. 이러는 사이 이미 발은 디딘 곳이 인도 땅!

비록 변두리지만 이미 부처님 계신 나라에 왔네! 불법을 숭상하는 곳이 다르네. 중국에서 온 현장법사 일행을 융숭히 대접한다.

마침 시절도 좋은 시절, 큰 명절인 원소절 즈음이라 곳곳마다 아름다운 등불 공양이 한창일세!

그런데 이 고장 풍습이 특이하다. 큰 항아리에 향기로운 양젖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박아서 향기를 풍기는 등으로 올리는데, 하룻밤 지나면 부처님께서 친히 오시고, 부처님 다녀가시면 기름이 모두 사라진단다.

무슨 기름만 잡수시는 부처님인가? 그 부처님께 올리는 기름을 추렴하느라 백성들이 세금으로 고통을 받는단다.

멸법국서 불교 겁박 떨쳐내
불로장생 꿈꾸는 사타동 요괴
만행을 무찌르는 손오공 일행

부처님이라면 껌벅 죽는 현장법사, 부처님이 친림하신다 하니 이 기회 놓칠 수 없다.

부처님 오신다는 조짐, 휙휙 몸을 가누기 힘든 바람이 불어,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현장법사 모든 걸 참아내며 부처님 친견하려 한다.

한참을 견디다 보니 과연! 세 부처님이 나타나신다.

현장법사 허둥지둥 다리 위로 올라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애고고! 손오공 밝은 눈으로 보니 이건 부처가 아니라 요괴로구나!

손오공 놀라서 "스승님! 부처가 아니라 요괴…."하고 채 말리기도 전에 요괴들 동작도 빠르게 현장법사 채가지고 사라진다.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생긴다 했던가? 인도 땅에 도착하여 환대까지 받으니 풀어진 마음에, 태만한 마음에 요괴를 부처님으로 착각하였으니 고통을 받음이 당연하도다.

결국 청룡산 현연동이라는 골짜기의 세 외뿔소 요괴로 밝혀지는데 특히 양젖기름을 좋아하여 부처로 위장하여 양젖기름을 갈취해 왔단다.

태백 금성을 조언으로 하늘 신장들 청해 세 요괴를 토벌했지만 이를 경계삼아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지! 아홉 길 산을 만들 때도 마지막 한 삼태기 흙이 모자라 공을 이루지 못한다 하지 않았던가?

이제 인도로 가는 여정이 거의 막바지입니다. 중국을 벗어나 인도로 접어 든 것이지요. 아직 부처님 계신 영취산까지는 거리가 좀 있지만, 거의 다 온 것이라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 여러 번 이야기했지요? 거의 다 된 것 같은 상황이 제일 위험합니다. 마음 턱 놓고 있다가 엉뚱한 사고가 터지는 일들 참으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바지에는 더더욱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번 이야기는 인도에 접어들어 가는 현장법사 일행이 겪는 마지막 난관들이 나타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동안의 긴 수행으로 이룩된 힘을 통해 공덕을 쌓는 이야기도 나오지요. 공덕 쌓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전번의 이야기에서 강조한 것, 잊지 않으셨지요.

앞에서 소개드린 이야기, 그 성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사타동이란 곳의 요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요괴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대붕새 요괴 이야기가 좀 특별하지요.

그 다음 이야기는 비구국에서 사이비 도사가 벌이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이비 종교 행태를 물리치는 이야기지요. 아이들을 약재로 해서 불노장생의 영약을 만든다니! 천인공노할 짓을 통해 자신의 영생을 꾀한다는! 도덕적인 삶이 있어야만 훌륭한 결과를 누린다는 기본의 기본을 망각한 사이비종교의 만행을 무찌르는 이야기지요. 이 귀결은 역시 손오공 일행이 큰 공덕을 쌓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현장법사와 결혼하겠다는 열망에 불타는 여자 요괴를 물리치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특징은 이 요괴가 불교 사천왕 가운데 하나인 탁탑천왕을 아버지로 섬기는, 물론 실제 아버지는 아니지만 스스로 그렇게 모시는 요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탁탑천왕이 손오공에게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런데 잠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 갑자기 우리나라의 지금 사태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지금 흉흉한 이야기들의 바탕에도 무슨 이상한 사이비 종교 이야기가 놓여 있지 않던가요? 그 사이비종교와 국가 최고지도자의 연관성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일파만파의 이야기가 전개되던데…. 갑자기 두려워지네요. 잘못된 믿음, 비슷하지만 아닌 것으로 사람을 홀리는 일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연결되면 또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벌어지는지…. 소름이 돋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진정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양식 상담 불완전… 眞如 만나는 불교 필요

참불선원 인문학강좌… 불교와 마음의 치유

이규미 前 한국심리학회장

사람들은 감정의 덩어리를 겪으며 아파하고, 방황한다. 현대인들은 마음이 아플 때 상담가를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이들의 치료법에 의존한다. 그러나 정작 상담가는 치료 과정서 내담자의 진면목이 스스로를 치료할 때가 많다며 놀라워한다. 서양의학이 알려주지 않는 많은 영역의 해답을 불교 가르침서 찾았다는 이규미 前 한국심리학회장. 그는 11월 7일 서울 참불선원 인문학 강좌서 "내담자가 상담을 받아도 언제든 문제 재발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서양 의학이 '무아'를 몰랐기 때문"이라며 "한국서 불교적 인간관을 반영한 새로운 상담심리학이 탄생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리=이승희 기자



이규미 前 한국심리학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상담심리학회 법인 및 학회 이사, 한국발달지원학회장, 교육부·여성가족부 정책 자문위원, 재단법인 한국청소년희망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2014~5년 한국심리학회장을 맡은 바 있다.

떠오르는 불교 심리학

저는 한 때 금강경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공공연하게 "금강경 읽기 전과 후의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심리학자로서 금강경이 주는 치유력에 주목했고, 상담심리학 분야에 불교를 접목할 수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상담심리학에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말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적 가르침과 비슷한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스님들은 불교가 심리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스님들이 상담심리학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중생상을 가진 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법을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이 불교에 접근하기 힘들어하니, 현재 심리학에선 어떻게 사람들 마음에 다가가는지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죠. 심리학 중에서도 사람들 문제에 직접 접근해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심리학에서 내담자(client)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학문적 내담자의 정의는 '돈을 내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적극적 자세의 사람들'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끌려온 사람들과 오히려 찾아가야 이야기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스님들의 고민이 깊겠죠. 그러니 저도 어떤 때, 어떤 방법의 도움을 드려야 할지 항상 고민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많이 쓰는 치료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미국에선 요즘 불교심리학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굉장한 실용주의자들입니다. 불교식 심리학도 현실적인 상담법 위주로 발달했습니다.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마음챙김 명상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이 한 예입니다. 미국서 나온 이런 방법들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져 한국에서 오히려 서구 불교를 수입하기에 이릅니다. MBSR 창시자 존 카밧진 메사추세츠대 의학부 명예교수가 2012년 방한해 강연했을 때 저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세계적 불교심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기존 스님들의 강연을 들어도 느낀 바가 많지만, 스님들은 공부가 워낙 깊다보니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중들이 다가가기엔 수준이 높아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 제 전공분야인 상담심리학에선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다루며, 또 불교적 가르침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한동안 불교는 인생은 고통이란 점만 무조건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얼핏 불교가 비관적이고 비판적이라고 오해했죠.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불자들은 부처님이 행복을 찾아 출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원초적 고통에 맞서 해법을 찾기 위한 이고득락(離苦得樂, 괴로움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음)의 종교가 불교입니다. 간단히 말해 불교는 고통 해법에 관한 종교입니다.

상담가, 내담자 眞如 캐내야

상담심리학은 괴로움 해결에 대해 불교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안정된 삶과 잠재력 개발, 행복과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등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면한 과제가 있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 심리 상담가를 찾아옵니다.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사람들이 '긍정'을 원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고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듯이 말입니다. 괴로움이 없다면 삶에 안주하려 할 겁니다. 괴로움 없인 긍정적 에너지를 끌어내고 새로운 삶의 형태를 살고 싶단 생각을 안 하니까요. 상담이 다루는 사람들은 발달·적응·관계·위기·실존 등 여러 문제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갱년기 우울증, 상급학교 진학 후 부적응, 성장한 자녀들이 떠난 뒤 겪는 빈집증후근이 대표적입니다.

상담심리학에선 사람·사물·사건 등서 발생하는 심리적 작용을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다차원적 접근법으로 다가갑니다. 인간은 과거 미해결 과제로 인해 고착, 원한, 정형화된 행동 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항상 상대방이 떠날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상대방의 호의적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이 떠나갔을 때 "거봐. 내말이 맞잖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미래에 대한 바람이나 불안이 커도 현재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부인·왜곡·회피 등을 행동화하면 현재와 접촉이 어렵지요. 건강한 사람은 '현재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부정적 감정에 갇힌 이들은 행동 레퍼토리 가짓수가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왜 적응을 잘못하는지 관찰해봤습니다. 사교적인 아이의 경우 처음 교실에 들어서면 주변 친구들에게 '어디살아?', '누구 좋아해?' 하면서 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말을 붙여주길 바라죠. 먼저 다가가 말을 거는 행동 레퍼토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이 있죠?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조절하는 전략이 몇 가지 있냐를 따져봤을 때 주먹을 휘두르는 것 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서양의학, 자아 통한 심리치료
자아 있는 한 고통 되풀이
無我 진면목 만나야 해결돼
"불교 가르침 쉽게 전해야"

상담자는 답답함에 괴로워하는 이들의 감정을 해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의 덩어리를 경험합니다. 하나, 하나의 감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세세히 보지 못하고 덩어리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곳에서 표출합니다. 이들의 감정을 알아주고, 사고를 전환시켜 준다면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담자는 상담 기술로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갖고 있는 본성을 발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도와는 무관한 내담자만의 고유 영역들로부터 자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곤 합니다. 내담자의 진여가 드러나는 순간, 부처님이 '모든 사람은 불성을 지닌 존재'라고 말한 이유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상담의 한계서 불교를 만나다

서양 과학에선 나를 너와 구분되는 개성적 존재로 정의합니다. 스위스 정신의학자 융은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하는 심리적인 정체성인 'Self'가 개성화(individuation)를 주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불교에서 '나'라는 존재는 오온(色·受·想·行·識)의 집합일 뿐, 독특한 본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사실 서양 심리학의 한계는 이런 구분에서 나옵니다. 개성화된 존재는 삼라만상과 연결할 수 없지요. 그래서 불교적 심리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신의학계 거장 이동식 前 한국정신치료학회장은 서양의 치료심리학을 동양 철학인 도교, 불교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우도(본성을 찾는 것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해 그린 선화)로 견성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심우(尋牛)는 사람이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을 느끼는 단계입니다. 불안을 느끼며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견적(見跡) 단계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느낍니다.

세 번째, 견우(見牛)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작은 통찰들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득우(得牛)는 상담자가 보다 도전적인 기술로 내담자의 통찰을 촉진하고, 내담자는 이 과정에 동참해 자신에 대해 탐구함을 일컫습니다.

다섯 번째, 목우(牧牛)는 자신의 문제 해결 지점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경지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기지도력이 나타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여섯 번째, 기우귀가(騎牛歸歌)는 상담 종결점입니다. 내담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상담자 없이도 홀로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재발 가능성 또한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곱 번째, 망우재인(忘牛在人)은 갈등은 해결됐으나 무아를 이루지 못한 경지입니다. 이 단계서 이동식 박사가 지적한 서양의학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무아 단계서 자신을 비우지 못했기에 현상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나를 비우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며, 갈등 해결 상태서 만족하지 말고 정진해야 공(空)에 이릅니다.

여덟 번째, 인우구망(人牛俱忘)은 공에 이른 상태를, 아홉 번째, 반본환원(反本還源)은 본래 진면목을 바라보는 단계를, 마지막 열 번째, 입전수수(入廛垂手)는 진면목을 획득한 개인이 사회로 나가 제도를 펼치라는 가르침입니다.

서양 상담은 무아까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래 진면목까지 확인하려면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단지 치유를 넘어 세상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지니게 도와줍니다. 불교적 인간관은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렵고, 언어로도 설명하기 힘든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를 담아두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 때문에 불교적 가르침과 수행이 주는 치유의 힘·원리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심리학적 접근의 한계를 불교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불교적 가르침을 보다 쉽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절실한 때입니다.

문화재기능인 등록 제 5772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검색 | 보리수불교예술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을 검색하시면
보리수 공방으로 연결되고, 보리수 공방의 작업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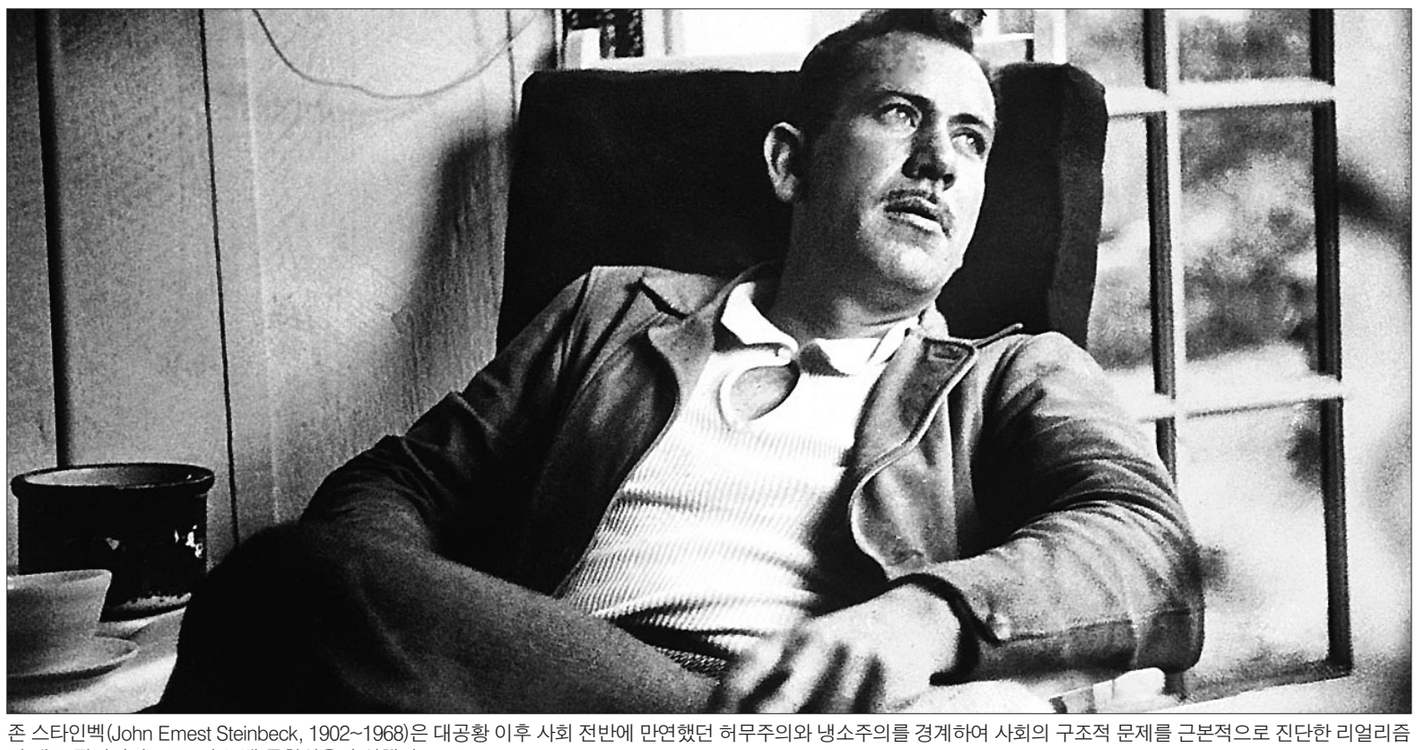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전류가 흐르며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버려야 얻는다” 무소유의 진리를 설하다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⑨ 존 스타인벡의 〈진주〉


존 스타인벡(John Emest Steinbeck, 1902~1968)은 대공황 이후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허무주의와 냉소주의를 경계하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단한 리얼리즘의 대표 작가이다. 196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우화 원형에 숨겨진 탐욕의 실체

존 스타인벡(John Emest Steinbeck, 1902~1968)은 190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농장지대인 설리너스에서 독일계 아버지와 아일랜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시절부터 농장 일을 거드는 등 고학으로 스탠퍼드 대학교 생물학과에 진학했다. 그가 일했던 농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은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작품 활동에 정서적 · 철학적 인식의 토대가 되었다.

1925년 학자금 부족으로 대학을 중퇴한 그는 문필생활에 투신하기로 결심한다. 뉴욕으로 와서 신문기자가 되었으나 객관적인 사실보도가 아닌 주관적 기사만 썼기 때문에 해고되어 갖가지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 갔다. 〈분노의 포도〉로 '퓰리처상'을 수상하며 부와 명성, 모두를 얻게 되었다. 그 후, 스타인벡은 급격히 산업화되어 가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의 실상에서 부와 인간, 부와 사회, 인간과 사회, 서구와 비서구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다. 멕시코 우화를 바탕으로 쓰인 〈진주〉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가장 잘 녹아 있는 작품이다.

극한의 상황에 처한 주인공 키노에게 진주는 더없이 큰 행운으로 다가왔지만, 동화 속 이야기처럼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스타인벡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과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지극히 사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로써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냉엄한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진주〉는 인간의 숨겨진 본능이라 할 수 있는 탐욕의 실체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강렬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스타인벡은 진주를 둘러싼 인간의 욕망과 고통, 희망과 절망을 멕시코 우화를 모태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스타인벡은 서두에서 “만약 이 이야기가 우화라면, 사람들은 어쩌면 이 이야기로부터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내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보게 될 것 같다. 어쨌든,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이라며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줄곧 그 훌륭한 진주가 어떻게 발견 되었으며, 또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전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뱃사람 키노와 그의 아내 주에노와 그의 아기 코요티토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자리 잡아 버렸다. 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하얀 것과 검은 것, 선과 악에 대한 자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결국 〈진주〉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인 셈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뿌리 뽑힌 삶을 살고 있다. 정신적 지주는 찾지 못하고, 막연한 그리움이나 소망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 절대고독과 정신적 파행 현상으로 오는 분열증세의 팽배, 그리고 인간 소외의 극대화에 자기를 잃어버린 세대들, 고향과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원초적인 회귀를 우선으로 시도하게 된다. 그것이 곧 우화 원형으로 향하는 길이 된다. 태초의 인간은 누구였는가. 나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의혹은 우화가 상징하는 의미로의 각성을 가져오게 한다. 더불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시적이고 총체적인 파악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현대인의 정신적 기저를 바탕으로 해서 우화 원형의 중요성은 새로워지게 되고, 불교 문학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이러한 우화 원형 비평 안목으로 〈진주〉를 살펴본다면 불교적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무소유’의 개념에 합일을 이룰 수 있다.

〈진주〉에 내포된 ‘무소유’ 사상

‘무소유(無所有)’는 산스크리트어인 시마티가(simatiga)를 번역한 말로, 무소득(無所得)이라고도 한다. 보통 일반 용어로는 ‘가진 것이 없는 상태’를 뜻하나, 불교에서는 단순하게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범위를 넘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가진 것 없이 모두 존재하는 상태, 또는 무지각인 상황을 말하며 무상(無相)과 동일한 뜻이라 할 수 있다.

스타인벡의 〈진주〉는 진정한 자유와 ‘무소유’의 의미를 주제로 다뤘다. 이 작품은 전갈에 물린 아기의 병원비로 인해 노심초사하던 젊은 부부에게 생긴 행운으로부터 물질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지에 대한 경종을 울려 준다.

바다에서 커다란 진주를 채취하게 된 키노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불행과 행운은 신이 아닌 인간에게는 감내하기 힘든 현실로 승화된다. 인간이 지닌 내면의 갈등을 노래와 색의 이미지로 상징화 시킨 〈진주〉는 독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젊은 부부의 심리 상태를 따라가게 만든다.

멕시코 우화 바탕으로 쓰인 소설
물질과 인간 대한 문제의식 담아
버림으로 자유로워지는 삶을 그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소유와 집착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인간은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소유와 집착이 빚어내는 갈등과 대립은 ‘소유욕’에서 시작된다. 모든 욕망과의 단절은 역사의 비극과 인간성의 상실을 경계하며, 욕심에서 해방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버리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유도한 이 작품의 결미는 그래서 더욱 빛을 발한다.

바닷가에 이르자 그들은 멈춰 서서 멕시코 만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키노는 소총을 내려놓고 옷 속을 뒤져 커다란 진주를 꺼내 들었다. 진주의 표면은 희색빛이었고 궤양처럼 보였다. 악마의 얼굴들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고 활활 타오르는 불빛도 보였다. 그리고 진주의 표면에는 웅덩이에 빠진 사내의 미쳐버린 듯한 눈도 보였다. 작은 동굴 속에서 머리에 총알이 관통되어 누워 있는 코요티토의 모습도 보였다.

〈본문 p170 중에서〉

위의 예문처럼 결미에 그려진 진주는 흉측했고, 어둠침침했으며 악성 종양 같았다. 키노는 뒤틀리고 미친 듯한 진주의 노래를 듣는다. 그는 바다를 향해 팔을 뒤로 젖혔다가 온 힘을 다해 진주를 던져 버린다. 인간의 소유욕은 무한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그 이상의 물질을 가지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욕심에 의해 괴로움과 번뇌가 생겨나고, 소유함으로써 그것에 얽매이고 만다.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란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모두에게 베품을 나눌 줄 아는 자비의 실천 아니겠는가. 모든 욕망과 단절하면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의 평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진주〉는 모두에게 각인시킨다.

〈진주〉의 서사 구조는 그래서 더욱 불교 교리와 맞닿아 있다. 인생에서 태어나고(生), 늙고(老), 병들고(病), 죽는(死)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 한다고 해도 인간의 불사영생(不死永生)은 실현 될 수 없을 터다. 자연물 또한 무상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만큼 백 년이나 천 년을 살 것 같은 유상(有相)함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과 권력과 명예는 영원히 갈 것으로 본다. 탐착과 인색과 교만은 이런 생각에서 나오기 마련이기에 일생 동안 남에게 베품을 나누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윤회의 고리에서 고통 받게 될 일이다. 그러기에 하루 한 가지씩 버릴 줄 아는 삶을 산다면 그도 행복이라 불교 교리는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소유에서 ‘무소유’로의 방향전환은 키노와 주에노가 내린 결론과 일맥상통한다.

노래 · 소리를 어우르는 희망 찾기

〈진주〉에는 인디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노래가 등장한다. 노래는 율격이며, 사람들의 내적 감성을 대변한다. 스타인벡이 작품 전반에 걸쳐 강조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소유’와 ‘무소유’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노래 소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래의 의미는 인간이 지구상에 생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해 온 행위이며 의식이다. 언어적 표현 또한 노래를 간과 할 수 없다.

키노는 아침 해변에서 찰싹거리는 잔물결 소리를 들었다. 아주 듣기 좋은 소리였다. 키노는 다시 눈을 감고서 자신만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키노만이 그 노랫소리를 듣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의 종족 모두가 듣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한때 노래를 짓는데 뛰어났던 그의 종족은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듣는 것들을 모두 다 노래로 만들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다. 그때의 노래들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

〈본문 p10중에서〉

키노의 머릿 속에서 그려지는 맑고 부드러운 노래는 평화이며, 단란함이며, 행복이다. 그러기에 키노는 그것을 ‘가족의 노래’라 불렀다. 또한 주에노가 부드럽게 부르는 옛 노래는 단지 세 개의 음조만으로 이루어졌어도 음정은 끝없이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의 노래’ 즉, 어머니의 모정을 대변하는 소리이다. 이 노랫소리는 안락함이며, 따뜻함이고, 하얗고 순수한 흰색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아기 코요티토가 전갈에 물리는 순간부터 들려오는 노래 소리는 악마의 음성이다. ‘악마의 노래’는 불행을 암시하며, 괴로움과 고통을 수반한다. 검은색의 표상과 일치 되며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다.

작품 전반의 핵심 소재인 진주는 사람들의 겉과 속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는 상징물로 존재한다. 카누와 오두막집이 내포하고 있는 공간적 의미는 노래와 소리를 대비시키는 존재의 역할로서 가난한 삶은 공동체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진주라는 보석의 의미는 부의 상징과 일치하며, 속박과 두려움을 암시한다. 그 이유는 진주 자체가 생성되기까지의 과정에 있다. 모래알이 부드러운 조개의 속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조개는 감수 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조갯살의 생존에 대한 의지가 오묘한 빛을 발하는 진주로 분신되어진다. 키노와 주에노는 물질로 인해 화를 당하고, 악마의 노래는 그들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 그들 부부에게 진주는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허상인 셈이 되어 버렸다.

〈진주〉에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매한 삶을 돌아보게 된다. 어떠한 상황이든 생각만 바꾸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쉽지 않지만, 탐욕을 없애고 물질을 버린다면 오히려 정신적 풍요를 누리며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악마의 노래가 아닌 가족의 노래로 희망을 찾는다면, 우리 모두는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무소유’ 삶을 찾게 될 터다.

이명진(열린문학회 자문위원)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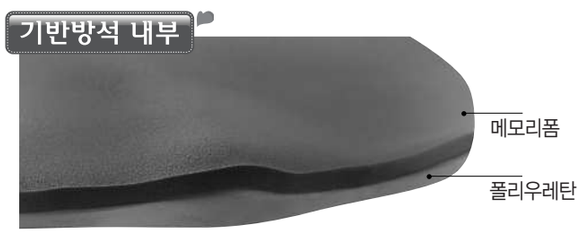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www.hyunbulshop.com

이름은 셋 佛心은 하나



올해 3월부터 함께 대불련 활동을 하고 있는 유인수 • 유인재 • 유인조 쌍둥이 삼형제가 오랜만에 만나 조계사에서 예불을 모시고 뭉쳤다. 오른쪽부터 첫째 유인수, 둘째 유인재, 셋째 유인조.

道伴의 향기

유인수 · 인재 · 인조 쌍둥이 삼형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

세 쌍둥이는 확률적으로 태어나기 어려워 그 인연이 매우 깊다. 하지만 이런 삼형제가 함께 불법(佛法)을 닦는 도반이라면 세상 무엇보다 존귀한 인연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불자로서 전법에 매진하고 있는 세 쌍둥이 유인수 · 유인재 · 유인조 법우. 오는 21일 생일날 함께 입대하는 세 쌍둥이 도반이 각자 품은 서원을 들어봤다.

박도일 수필가 doil3012@daum.net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에는 문화부장이 셋이다? 어찌 이런 일이. 지난 11월 4일, 서울 견지동에 위치한 대불련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옆 법당엔 똑같이 생긴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들은 1분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 삼형제. 첫째 유인수(22 · 천안남서울대 건축공학과), 둘째 유인재(동아대 철학과), 셋째 유인조(순천향대 국제학과)다. 그랬다. 그 중 둘째인 인재 씨가 대불련 문화부장이다. 하지만 대불련 식구들은 아직도 누가 진짜 문화부장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그저 "내가 인재야" 하면 끝. 회원들이 보기엔 문화부장이 셋인 셈이다. 삼형제는 지난 3월부터 형제에서 도반이 되었다. 모두 대불련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쌍둥이 삼형제는 어떻게 도반이 되었을까.

둘째의 힘들었던 사춘기

모든 것은 둘째인 유인재 씨로부터 시작된다. 인재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그는 사춘기를 맞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반항의 이유가 됐다. 그는 교실 앞쪽에 아무런 관심 없는 학생이었다. 인재의 시선과 두 발은 늘 뒷문과 창 밖에 있었다. 삼형제 중 인재는 유달리 힘든 사춘기를 겪고 있었다.

어느 날, 인재는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 폭력을 휘둘렀다. 그 대가는 가볍지 않았다. 그는 모든 선생님과 전교생 앞에서 피해자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매를 맞았다. 그의 얼굴에 날아든 분노 가득한 손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을 남겼다. 인재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이 창피했다. 부끄러웠다. 이유 없는 반항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멋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비가 온 뒤의 땅은 단단해지는 법. 확실한 백신을 맞은 인재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는 조금씩 교실의 앞쪽으로 향해 갔다.

새로운 삶, 반장이 되다

힘든 사춘기를 벗어난 인재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서원을 하나 세운다. 반장이 되는 것이다. 그때까지 그는 반장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그는 지난날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 한 학급의 반장이 된다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된 삶에서 자신을 지우는 것이라 생각했다.

먼저, 그는 학급과 학교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누구보다 먼저 등교해 교실을 정리하고 수업 준비를 했다. 층별로 쓰는 정수기의 물을 채우고, 선생님의 심부름을 자진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다. '문제아'에서 '학생'이 되어가고 있었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 쯤 됐을 때였다. 드디어 반장 선거가 다가왔다. 그는 마침내 반장이 되었다. 그의 삶은 점점 반듯한 모양을 찾아갔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시련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2학년이 되어서도 다시 반장을 하고 싶었지만 그는 반장이 되지 못했다.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선거를 치르지 않고 직권으로 반장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반장이 된 학생은 인재가 1학년 반장일 때 부반장을 했던 같은 반 친구였다. 그 친구의 성적은 전교 초상위권에 속했다. 반장의 이유는 그것이었다. 인재도 나름대로 성적이 좋았으나 그 친구의 성적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투표를 해야 합니다. 투표를 하게 해주십시오."

인재는 수업이 시작될 때, 자율학습 시간에, 또 복도에서 선생님과 마주칠 때 등등 틈만 나면 시위를 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반응은 싸늘했다. 인재는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선생님이 야속했다.

둘째 인재, 고창고 파라미타 주역
첫 사찰 체험서 불교와 인연
고사 직전 동아대 대불련 살려
올부터 대불련 문화부장 활동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그는 마침내 선생님에게 이 같은 편지를 썼다. 정정당당히 선거를 치르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간절한 글로 호소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대답은 같았다. 그리고 이번엔 선생님의 단호한 선언이 함께 있었다.

"또 다시 반장 선거를 이야기한다면 나는 이 학급의 담임을 맡지 않겠다."

선생님에게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다. 2학년과 1학년은 다르다. 대학 진학이라는 큰 숙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선생님은 인재도 좋지만 학교 차원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학생이 반장을 함으로써 학급의 분위기를 좀 더 면학적으로 이끌고 싶었던 것이다. 선생님의 속내를 들은 인재는 그 깊은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만을 생각했던 자신이 또 한 번 부끄러웠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선생님께 마음을 담은 사죄의 편지를 썼다. 그리고 자신을 원망할 것이라 생각했던 인재로부터 뜻밖의 편지를 받은 선생님은 그의 심성을 알아보게 됐다.

고창고 파라미타 출범의 주역

"동아리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인재의 심성을 알아본 담임선생님은 그에게 동아리 활동을 추천했다. 그것은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이하 파라미타)'였다. 전북 고창고교에 파라미타가 출범한 것이다. 동아리의 고문을 맡은 담임선생님은 인재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인재였지만 담임선생님은 인재의 불성을 보았던 것이다. 인재는 3일 동안 1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기가 막힐 일이었다. 고창고교 파라미타는 그렇게 출범했다.

"처음으로 사찰체험을 갔어요. 완주 송광사였어요. 송광사에는 문화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화재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불교문화재들을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어요."

인재는 그렇게 불교와 만났다. 처음으로 보는 유서 깊은 대웅전, 종루, 사천왕상, 동종, 부도, 그리고 처음 듣는 스님의 법문, 가까이에서 듣는 풍경소리, 처음 해보는 발우공양, 처음 해보는 울력. 그의 마음속으로 불교가 들어왔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전북교육청과 불교시민연대, 전북파라미타가 진행하는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의 1기 단장을 맡았다.

"초파일에 선운사로 봉사활동을 갔어요. 제가 직접 기획한 첫 행사였어요. 법우들과 연등도 달고, 설거지도 하고 법당과 마당 청소도 하고, 행사 진행도 했죠. 연등이 달린 마당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는데, 그냥 좋더라고요."

그는 그 해 왕성한 활동으로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대불련의 존재를 알게 됐다.

꺼져가는 동아대 불교학생회를 살리다

삼형제는 대학에 진학했다. 첫째 인수는 천안남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에, 둘째 인재는 부산동아대학교 철학과에, 셋째 인조는 순천향대학교 국제학과에. 고교시절 파라미타를 계기로 불교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틈틈이 불교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넓혀갔던 인재는 불교동아리부터 찾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동아대 불교학생회는 유

2017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
그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달력 가격 대폭 인하해 드립니다.
12절 258㎜×265㎜
100부 이상 @ 1,000원
3천부 이상 @ 8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H.P 010-3554-2988, 070-7425-051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달력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 121068-56-042256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똘똘뭉친 부루나 형제



2016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연희단 율동팀으로 참가한 삼형제. 왼쪽부터 둘째 인재, 셋째 인조, 첫째 인수.



2016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된 대불련 영캠프에 참가한 삼형제.

명무실한 동아리였다. 회원 감소와 열의 부족, 리더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방치된 동아리였다. 동아리방마저 없어질 처지였다. 그렇게 꺼져가는 동아대 불교학생회를 살린 것은 인재였다. 그는 고등학교 때의 파라미타를 떠올렸다. 그는 발로 뛰며 단 며칠 만에 6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동아리방도 지킬 수 있었다. 그는 매주 법회를 열어 많은 법우들과 교수들이 동아리방을 찾게 했고,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해 불교학생회의 존재를 알렸다.

대불련 문화부장 유인재

그렇게 동아대 불교학생회를 재건한 인재는 올해 1월 대불련 중앙으로 올라오게 됐다. 2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위해 휴학 중이던 인재는 문화부장을 맡았다. 첫 임무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였다. 연등회에서 율동을 선보일 연희단을 꾸리는 것이었다.

지난 3월, 조계사 옆 전법회관 1층 선운당. 대불련 문화부는 연등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지부 지회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와 문화부 모임을 가졌다. 설명회가 끝나고 인재는 20여 명의 문화부 법우들과 함께 차담도 나누고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문화부 법우들이 이렇게 모여서 놀았답니다. 춤 연습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도반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서 감사합니다."

그가 그날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인재는 힘겨웠던 사춘기 시절을 겪고, 파라미타를 만나고, 대불련을 만나고, 불교를 만난 일련의 일들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인연법이라는 생각을 했다. 언제부턴가 자신의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불교'를 떠올리며 오랫동안 보지 못한 형제 인수와 인조가 생각났다.

'인수와 인조도 함께 하면 좋을 텐데. 왜 진즉 불법을 전하지 못했을까.'

인수와 인조도 휴학 중이었다. 인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찬불가에 댄스?"

인수와 인조의 학교에는 불교학생회 동아리가 없다. 불교학생회가 없는 학교 학생들은 중앙의 대불련 문화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등축제를 준비하고 있던 인재는 인수와 인조를 대불련에 가입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연희단에 동참시킬 계획을 세웠다. 인수와 인조는 인재의 권유로 올해 3월에 대불련 회원이 됐다. 그리고 연희단에 적극 동참했다.

"솔직히 인재의 권유로 얼떨결에 가입하고 얼떨결에 춤을 추기 시작했죠.(인수, 인조 웃음)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예요. 불교에 이렇게 재미난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무겁고 구식이라고만 생각했던 불교를 다시 보게 된 거죠."

형제들에게 대불련 가입 권유
연희단 율동팀으로 연등축제 참가
11월 21일 생일날 함께 군입대
외국인 불교 홍보 · 수계 등 서원

그야말로 불교의 '불'자도 몰랐던 인수와 인조는 처음 듣는 찬불가도 신기했고, 찬불가에 '댄스'는 더욱 신기했다.

"처음엔 같은 대학생 법우들과 춤을 추면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법우가 왜 법우인지 알았고, 그러다보니 그들 생각과 믿음의 원천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말(言)과 걸음걸이, 눈빛, 미소, 점점 닮아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새 불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떨결에 배운 춤이었지만 인수와 인조의 춤은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를 더했다. 드디어 연등축제가 시작됐다. 인수와 인조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TV에서나 어쩌다 한 번 보았던 연등축제였다. 화려하고 엄숙한 장엄물과 수많은 연등과 인파가 놀라웠고, 그 속에 자신들이 있다는 것 또한 신기했다. 인수와 인조 그리고 인재, 쌍둥이 삼형제는 신명나게 춤을 추었고, 난생 처음 연등을 따라 연등길을 걸었다.

소중한 인연, 도반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좋죠. 더구나 저(인재)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둘이나 더 있으니 말이죠.(웃음) 무엇보다 인수와 인조가 불교에 눈 뜬 것이 기뻐요. 같은 믿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즐겁고요. 늘 좋은 법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삼형제가 한 자리에 모였다. 오늘 삼형제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불교학생회 창립제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할 예정이다.

"저(인조)는 불교공부는 물론이고,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불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외국인 친구가 조금 있는데, 예전에 삼보사찰을 선운사라고 잘못 알려주고 인재에게 헤드록을 당한 적이 있어요.(모두 박장대소)."

삼형제는 모두 오는 11월 21일 군에 입대한다. 그날은 그들의 생일이기도 하다. 인수 · 인재 · 인조. 그들은 이름을 월주 스님으로부터 받았다. 외조부 인연이라고 한다. 그들의 이름이 법명은 아니지만 그것은 불가의 항렬일 것이다. 인연법이다. 매순간 스쳐가는 말 한 마디, 글씨 한 자, 머문 자리, 바라보는 자리는 반드시 법으로 돌아왔다. 같은 모습으로 나란히 앉아 있는 삼형제의 모습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저(인수)는 군에 있는 동안 꼭 계를 받고 싶어요. 인재에게 들으니 군에서도 수계법회가 있더라고요. 빨리 손목에 연비하고 불명도 받고 싶어요."

참된 도반을 얻는 것은 공부의 반을 이룬 것과 같다고 했다. 이제 막 불가의 마당에 들어선 삼형제는 한참 신이 나있다. 사물을 챙기며 또 다른 법우를 만나러 가는 그들의 뒷모습엔 어느 법회, 어느 법문보다 여법한 법향이 묻어났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그들이 기다려진다.

전법일기

포교사님, 참회합니다!

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영어(囹圄)의 몸이 된 수용자들. 그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삶의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를 위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활동과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 그 인연은 직장생활 교육시간에 삼중 스님의 사형수 교화사례를 감동 깊게 들으면서부터였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교화를 해보고 싶다고 마음먹은 것이 실제로 이뤄졌다. 교정위원으로서 수용자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볼 때 큰 자긍심도 느낀다.

한 번은 대만 성지순례에서 대만불자들의 봉사하는 생활상을 엿볼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특정 기관에 봉사자리가 없어 1년을 기다리기도 했다. 봉사기회가 주어진 다음에는 직접 도시락을 싸들고 활동비를 내면서까지 마음을 다해 봉사했다. 오직 봉사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나 역시 새롭게 다짐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 덕분에 주위의 크고 작은 나눔 소식에 힘겨운 마음이 따뜻해지곤 한다.



그림 · 박구원

누군가 "미소는 작아도 기쁨을 주고, 사랑스런 말은 짧아도 마음을 넉넉하게 하며, 선행은 작아도 한량없는 인연을 맺는다"고 했다. 수용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대중가요 노래가사에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코와 입 그리고 눈과 귀, 턱밑에 점 하나 입가에 미소까지 그렸지만 마지막 한 가지 못 그린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는 구절이 있다.

수용자들의 진정한 밑 마음은 무엇일까? 노래가사처럼 그들의 핵심감정이 무언지 고민하던 때, 나는 40대 초반의 수용자 상담을 맡았다. 몇 년 동안 법회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불교교리에도 해박한 편이었으나 감정반응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자애명상을 하고 심리치유기법 중 노래치료를 시작했다. 동영상을 띄우고 노래가사를 음미하며 감상하게 한 후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수용자는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흐느껴 울었다. 처음 보인 감정표현이었다.

"누가 생각나나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드나요?"

스스로 자신이 어떤 감정상태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물었다. 그리곤 그의 입에서 예상 밖의 대답이 흘러나왔다.

"헤어진 와이프가 생각나요." "애들도 보고 싶네요." "포교사님, 제가 지은 잘못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으로 깊이 참회합니다."

흐느끼며 튀어나오는 참회의 한 마디와 진실함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 그리고 애절하고 간절함 가득 배어있는 표정. 오랜 시간동안 볼 수 없었던 그의 본모습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했다.

그를 다독이면서 눈물을 닦아줬다. 애잔한 마음과 함께 그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변할 것만 같은 기대감이 들었다. 뉘우침과 참회의 기쁜 눈물을 보여준 그가 곧 부처님 모습 아니겠는가. 그 모습에 나는 더욱 열심히 전법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희망을 주자! 힘들고 아픈 이들에게 불심을 전해 힘과 용기를 주자! 힘내라는 격려보다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꺼낼 수 있는 힘을 주어 부처님 앞에 두 손 모아 합장하는 믿음을 만들어 주자!

터키의 혁명적 서정시인 '나짐 히크메트'가 감옥에서 쓴 미래를 노래한 시 '진정한 여행'에 이런 구절이 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 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어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나만의 별이 있음을 믿자.

차창호(자비의전화 상담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제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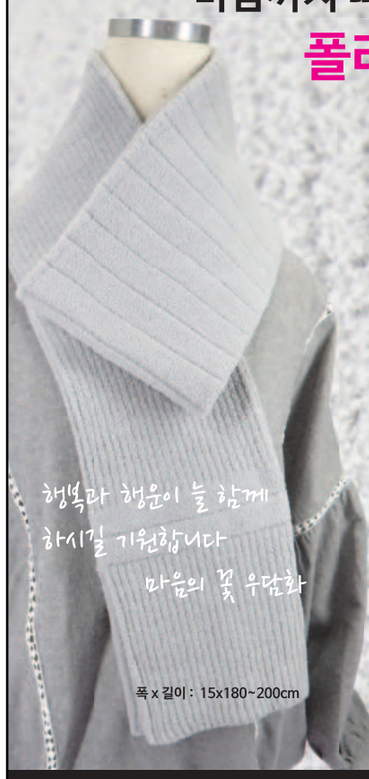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천의무봉 天衣無縫 명품 우담화
천의-재단하고 봉제하지 않은 원래부터 그대로 좋은 천상의 옷



마음까지 따듯한 프리미엄 목도리
폴리캐시미어 100%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디자인 특허등록 (제 30-0873347호)
튜브리스 에어 컨트롤 기술 적용
내부 보온공기층의 2중 원통형 설계
정전기 방지
비교할수 없는 부드러움
4중 보온효과
원사부터 품질관리까지 100% 국내산 개발 특수원사 사용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의 꽃 우담화
폭 x 길이 : 15x180~200cm
우담화1호 세트
목도리 /장갑/양말
₩150,000
22x48cm
판매처모집 / 단체주문 / 마크 자수 가능
불교용품 제조전문 우담화
053) 573-3119 010-3299-7190

기신론서 설해진 여래장연기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불교의 기본 교리는 연기설이 주축을 이룬다. 범어의 어원을 밝혀 말하면 쁘라티티야(pratitya)는 연(緣)의 뜻이고, 삼우뜨빠다(samutpada)는 기(起)의 뜻이다. 연기는 곧 말미암아 일어난다. 혹은 어떤 관계, 조건 속에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모든 존재가 상의상존(相依相存)하면서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법칙을 말한다. 근본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연기법을 깨달았다고도 말한다.

〈중아함경〉에 "연기를 보는 이는 법을 보며, 법을 보는 이는 여래를 본다(其覩緣起 則見於法 其見法者 則見如來)"고 하였다. 또 〈잡아함경〉에 연기를 규정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는 구절도 나온다. 그런데 이 연기설이 초기불교에서는 십이연기로 설해진 이후 역사적으로 불교의 교리가 발달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연기설이 나오게 되었다.

인도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 등에서 내세워진 업감연기설(業感緣起說)과 유식(唯識)에서 내세운 아뢰야연기설(阿賴耶緣起說)이 나왔고, 다음 성종(性宗)에서 내세운 진여연기설(眞如緣起說)이 나왔다. 이어 화엄경을 소의로 한 화엄종에서 다시 법계연기설(法界緣起說)이 나오고 진언종에서 나온 육대연기설(六大緣起說) 등이 나오게 되었다.

이 중 진여연기설을 여래장연기설(如來藏緣起說)이라고도 말하며, 법계연기설을 무진연기설(無盡緣起說)이라고도 말한다. 이는 주로 연기의 주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연기설의 이름이 달라진 것이다.

그러면 기신론에서 설해진 내용은 어떤 연기설에 해당될까? 예로부터 기신론에서 설해진 내용을 진여연기설 혹은 여래장연기설이라 하였다. 여래장연기설은 여래장에 의해서 중생의 생사와 열반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여래장연기설은 〈승만경〉, 〈밀엄경〉, 〈대승기신론〉, 〈보성론〉 등의 여래장사상을 담고 있는 경론에 의거하여 내세워진 연기설이다. 아뢰야식과 여래장을 분리한 중관 및 유식의 교설과 구분하여 별도로 내세워진 이론으로 현수가 내세운 화엄종의 오교판(五敎判) 가운데 대승종교(大乘宗敎)에 해당한다.

이 여래장연기설을 표방하는 사상을 종(宗)으로 말할 때는 여래장연기종(如來藏緣起宗), 실상종(實相宗) 또는 진

여래장에 의해 생사열반 있어
화엄사상 완성되며 제대로 설명

덕불공종(眞德不空宗)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화엄사상이 확립되기 이전 정영사(淨影寺) 혜원(慧遠)이 여래장연기라는 말을 먼저 썼다. 하지만 화엄사상을 완성한 현수법장(賢首法藏)에 의해 여래장연기설이 제대로 설명되었다. 현수는 여래장연기를 이(理)와 사(事)로 설명하였다. 여래장이 조건에 따라 아뢰야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理)가 사(事)에 들어가기 때문이요, 반대로 의타기성(依他起性)인 현상세계가 자성이 없는 연기의 세계로서 진여와 동일하게 되는 것은 사(事)가 이(理)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여래장연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理)와 사(事)가 원융무애(圓融無碍)하여 현상계와 여래장(본체계)이 상호 연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현수가 설명한 여래장연기설은 나중에 화엄의 이사교철(理事交徹) 또는 이사무애(理事無碍)와 같은 것으로 설명되어 화엄의 4법계 중 이사무애법계(理事無碍法界)가 된다.

기신론 본문에서의 여래장연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은 삼세육추(三細六 ⅋)의 구상차제(九相次第)를 설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래장(如來藏) 곧 진여불성(眞如佛性)이 무명에 의하여 흔들린다. 그리하여 아뢰야식이 된다. 이 과정이 근본무명에서 업상이 생기는 것이다.

다만 아뢰야식을 기신론에서는 진망화합식(眞妄和合識)으로 본다. 여실히 진여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하고 홀연히 원초적인 한 생각이 가장 미세하게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로 인해 대상을 보는 주관이 생기고 주관으로 인해 객관이 나타난다.

목숨마저 아낌없이 주어야 '보살'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㊺보살이 해야 하는 것들

一切眾生極重財利。樂愛命重於財物。一切眾生捨財為易捨命為難。菩薩捨一切財物歡喜。不如捨身命時得勝歡喜。種種施味悉知。以施為食。因之得存。與他樂者欲知施身氣味故施身。見他乞支體者心中歡喜勝於捨財歡喜。如樂施者得歡喜樂。不如菩薩捨身時得勝歡喜。閻浮提人乞財物者。無我福德故得乞身者來。捨財者財物由他或不稱意。捨身者我得自在。隨意捨與不由於他。此身不牢不定速朽之物。可愛念者可速疾取。諸食肉者語菩薩言。汝今以熱肉血施我。我當何以報恩。菩薩報言。若欲報恩者更語餘人。有悲心者能施身肉可往取之。若能如是便是報恩。(일체중생극중재리。락애명중어재물。일체중생사재위이사명위난。보살사일체재물환희。불여사신명시득승환희。종종시미실지。이시위식。인지득존。여타악자욕지시신기미고시신。견타걸지체자심중환희승어사재환희。여락시자득환희락。불여보살사신시득승환희。염부제인걸재물자。무아복덕고득걸신자래。사재자재물유타혹불칭의。사신자아득자재。수의사여불유어타。차신불뢰부정속후지물。가애념자가속질취。제식육자어보살언。여금이열육혈시아。아당하이보은。보살보언。약욕보은자경어여인。유비심자능시신육가왕취지。약능여시변시보은。)

번역

일체 중생이 재물과 이익을 지극히 중히 여기나 즐거움과 애착과 목숨을 재물보다 중히 여깁니다. 일체 중생이 재물을 희사하는 것은 쉬우나 목숨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보살은 일체 재물을 희사하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몸과 목숨을 버려 수승한 즐거움을 얻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지가지 보시의 맛을 다 알고 보시로서 음식을 삼는 까닭으로써 존재합니다.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는 몸과 기운을 보시하는 맛을 알고자 하여 몸을 보시합니다. 타인이 지체를 구걸하는 걸 보면 심중에 기쁨을 느끼는데, 재물을 희사하는 기쁨보다 수승하게 여깁니다. 보시를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은 환희의 즐거움을 얻지만 보살이 몸을 버릴 때 얻는 수승한 즐거움 같지는 않습니다. 염부제에 사람이 재물을 구걸하는 것에 "나에게는 복덕이 없기 때문인데, 몸을 구걸하러 와서 얻으라" 합니다. 재물을 희사하는 이는 재물 때문에 타인이 혹, 마음에 흡족하지 않지만, 몸을 희사하는 이는 내가 자재함을 얻으며 뜻에 따라 희사하여 주되 타의에 의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 끌려가거나 머무르지 않나니 신속히 썩어질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애착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속히 가져가라 하면, 모든 몸을 먹는 이가 보살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지금 뜨거운 고기와 피를 나에게 보시하는가? 내가 응당 어찌 보답을 할까?" 하면, 보살이 대답하기를 "만약 보답하고자 하는 이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말하시오. 자비심이 있는 이가 능히 몸과 고기를 보시하노니 와서 가져가시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한편 보답이 됩니다"라고 합니다.

해설

〈신약성경〉에도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을 대주고,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고 기록되어 있다. 맹신자들도 베풂과 사랑을 가르치거든, 인과를 믿는 불자들이 어찌 베풂에 인색할 수 있겠는가.

중생의 삶은 현상에 의한 현상에 속한 삶이기에 업을 떠나지 못한다. 다만, 오늘도 어떤 선업을 지을까 고민해야할 일이다. 재물을 바라면, 몸과 목숨마저 아낌없이 주어야 보살이라는 말에 가슴이 저린 날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반쪽짜리 자화상

나는 단순한 사람이다. 누우면 5분 안에 잠이 들고 화가 나면 10분 안에 풀리는 사람이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했으나 나의 젊은 시절 별명은 '버럭' 이거나 '불칼' 이었다. 성질이 지랄처럼 급하고 말투와 행동이 거시기하게 거칠었던 탓이다. 그러기는 하나 쉽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며 마음이 여리어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을 찔끔거리는 못난이 바보였다.

강한 자에겐 더욱 강하였고 적당히 타협하는 어설픈 일 따위는 체질상 맞지 않아 전쟁 아니면 평화였다. 학력이 초등학교에 턱걸이 하는 수준이라 틈만 나면 책을 읽었고 돈만 생기면 서점에서 책을 샀다. 손에 잡히는 신문의 사설은 주제와는 상관없이 모조리 읽었고 인도로 떠날 때 쯤 모아둔 책이 3만권을 넘었다. 대화와 토론을 즐겼으나 나를 따르라는 투의 돈키호테 방식이었고 일방통행을 즐겨 누구에게나 밉상의 대상이었다.

갑자기 철들어 인도 등 구도행
15년 해외생활 버팀목 '無' 화두

거기다가 타고날 때부터 지지리도 못생긴 실패작의 수상쩍은 얼굴이라서 오해 아닌 선입견을 불러들였다. 막걸리 타입이라지만 체질상 맥주 반 컵으로 극락세계를 다녀올 만큼 술과는 거리가 멀다. 능청을 떨거나 아부를 하거나 트릭(trick)을 사용하지 않는다. 직설적인 바른 말을 즐겨 내 주변엔 사면초가라는 말이 제격일 만큼 적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다. 성깔이 지랄 같고 싸가지 없는 일도 듬성듬성 삶의 비늘처럼 남기며 속도위반을 즐겼지만 재치와 유머를 사랑했다. 돈과 재물에는 비교적 자유로울 만큼 개운하게 살아왔고 누구와의 약속이던 약속장소에 10분전에는 도착해 있을 만큼 변명 늘어놓는 사람을 멀리했다.

게으름을 병으로 알아 부지런히 노력하는 새벽형 잡초였다. 대단히 조심스럽고 머뭇거릴 일이나 한 분의 총무원장 스님을 물러나게 하고 총무원의 부장과 국장의 인사권을 쥐락펴락할 만큼 종단의 실세 중의 실세였던 전전생(前前生)의 일도 있었으니까.

그러던 향봉이 늦게야 철이 드는 것이다. 종단의 소임은 내장사 주지를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뼛속에 사무칠 만큼 간절하게 철이 드는 것이었다. 김치와 커피 맛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깨달은 내용을 얼마만큼 말씀으로 담아낼 수 있었을까?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는데 기록문화가 전혀 없던 2500년 전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만큼 기억해 문자로 옮겼을까?

진정한 의미의 무아(無我)는, 진여(眞如)는, 윤회(輪廻)는, 진공묘유(眞空妙有)는 무엇인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철저하게 간절하게 철이 들게 작용했다. 하여, 이름 그대로 개나리 봇짐 같은 배낭 하나 달랑 매고 인도로 날아간다. 영어 문맹자의 노숙과 같은 나그네 삶이 간절심 하나로 모아져 치열한 구도자가 되는 것이다. 먹거리 문제로 거식 증세를 달고 살았고 물만 먹어도 배탈이 심해 설사는 일상의 일이었다. 빈대와 모기에 시달리며 말라리아병으로 쓰러지기도 했고 향수병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녀 한국을 떠올리며 엉엉 소리내어 흐느끼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럴 때마다 무(無)자 화두로 간절심으로 채찍질하며 게으름 없이 정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경 한국에서 유학생 집으로 부쳐온 포켓 달력속의 무자(無字)그림을 보는 순간 마음이, 세상이, 진리의 세계가 환히 열리는 것이었다. 모든 의혹이 풀려 누가 무엇을 물어와도 거침없이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는 참 앎(知)과 참 봄(見)을 완성하는 순간이었다.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 착한 벗이 되는 조어장부(調御丈夫)를 이룬 것이다. 오온(五蘊)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에 대해, 바른 중도(中道)와 무아(無我)와 연기법칙(緣起法則)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참 앎(知)과 참 봄(見)을 완성하면 속이지도 속지도 않는다. 날마다 좋은 날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깨닫기 이전도 사람이요 깨달은 이후도 사람일 뿐이다.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요 착한 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식(善知識)이다.

인도로 떠난지 15년 만에 해외생활을 마무리한다. 인도 3년, 네팔 2년, 티베트 3년, 그리고 중국에서 7년 머물며 중국어도 익히고 경전과 선어록(禪語錄)을 살핀 후 귀국하게 된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조선 후기 僧匠들… 유일 불상 소실 '아쉬움'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㉑ 법림(法琳)·영탄(靈坦) 스님







1686년 상주 용문사에서 조성된 목조여래좌상(사진 왼쪽)과 목조보살좌상(사진 가운데)의 모습. 두 불상은 2013년 영동 중화사의 화재로 소실됐다. 사진 오른쪽은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좌상으로 법림 스님과 영탄 스님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2013년 7월 10일 원인 불명의 화재로 충북 영동 중화사 대웅전(도문화재자료 제33호)과 목조불상(도유형문화재 제288호) 등이 소실됐다. 이 가운데 목조여래좌상과 목조보살좌상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법림 스님과 영탄 스님이 만든 제작연대가 밝혀진 불상이다.

법림(法琳) 스님은 불상과 불화를 조성한 승려 장인으로, 여러 작품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화승으로 만든 기년명 불상은 1점 밖에 조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화승 영탄(靈坦) 스님은 혜희(惠熙, 慧熙) 스님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불상에 보조 작가로 참여한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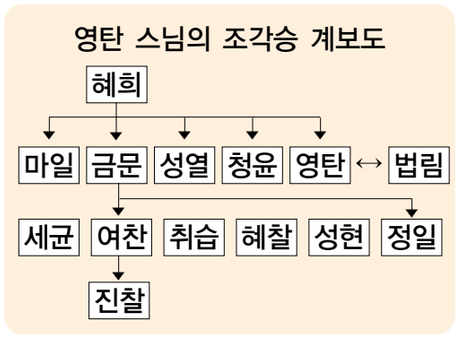
아직까지 법림 스님과 영탄 스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단편적인 문헌 기록을 통하여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스님들이 만든 중화사 대웅전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1686년에 경상북도 상주 서령 백화산 용문사 법당에 봉안하기 위하여 석가삼존상과 관음보살상과 관음도를 법림 스님, 영탄 스님, 학찬(學贊) 스님, 천순(天順) 스님, 일옥(一玉) 스님, 천오(天悟) 스님이 제작하였다.

이 불상과 불화가 조성된 경북 상주 백화산 용문사는 1617년에 이준(李埈)이 편찬한 상주 읍지인 〈상산지(商山志)〉에 "용문사는 경상북도 상주군 백화산 중에 … 지금은 없다(在慶尙北道尙州郡白華山中 … 今無)"라고 적혀 있어 임진왜란 기간 중에 소실되어 폐사(廢寺)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686년에 불상과 불화를 만든 것을 보면 17세기 후반에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불상 가운데 석가와 미륵·제화갈라보살을 조성한 것은 대웅전이나 응진전 등에 봉안하기 위함이다. 불상 조성에 참여한 스님은 노덕(老德) 원익(元益) 스님, 인기(印機) 스님, 의청(儀淸) 스님이고, 증명(證明)은 처영(處英) 스님, 지전(持殿)은 명운(明運) 스님 등이 참여하였다. 특히, 중형 불상 조성에 소임을 맡은 스님과 시주한 신자를 합쳐 총 262명이 참여한 것은 사찰의 규모와 경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이다.

우선, 법림 스님은 수화승으로 1684년에 경남 산청 율곡사 괘불도(掛佛圖)을 조성하고, 1686년에 경북 상주 용문사 목조삼존불좌상과 관음보살좌상 및 관음도를 제작하며, 1709년에 경상도 용궁(龍宮) 용비산 장안사(長安寺) 종각 중수(重修)에 도감(都監)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법림 스님의 활동 시기는 1684년부터 1709년까지 밝혀졌고, 경북 예천 장안사에 거주한 승려 장인으로 보인다. 스님이 1680년대 수화승으로 불화와 불상을 제작한 것을 보면, 1640년을 전후한 시기에 태어나 수련기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후반 불상과 불화 제작
유일한 중화사 목조불상들 소실
영탄 스님 혜희 계보의 조각승
심곡암 보살상, 법림·영탄 作 추정



부화승 영탄 스님은 1677년에 수화승 혜희 스님과 지금의 전북 완주 대둔산 용문사에 목조약사불좌상(현재 전주 일출암 봉안)을 제작하고, 1686년에 부화승으로 법림 스님과 상주 용문사 불상 등을 조성하였다. 영탄 스님의 스승으로 여겨지는 혜희 스님은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작가로 태전(太顚) 스님과 법령(法靈, 法令) 스님의 계보에 속한다. 혜희 스님이 1640년부터 1677년까지 활동한 것을 보면, 영탄 스님은 상당히 많은 나이에 얻은 막내 제자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남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태전(-1600-1615)→법령(-1615-1641-)→혜희(-1640-1677-)→영탄(-1677-1686-)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외 일옥(一玉) 스님은 1686년에 상주 용문사 목조삼존불좌상과 관음보살상 및 관음도를 조성하고, 1698년에 장릉 봉릉 조성소 화승(畵僧)으로 참여한 것을 보면 주로 불화승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천오 스님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불화승으로, 1686년에 수화승 법림과 상주 용문사 불상과 불화를 제작한 후, 1718년에 수화승으로 경북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삼신불회도(三身佛會圖)와 삼장도(三藏圖,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소장)를 조성하였다.

중화사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은 본존을 중심으로 양 협시보살을 배치한 삼존불좌상이다. 본존과 왼쪽협시보살은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작품이고, 오른쪽 지장보살상은 근래에 제작된 것이다.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불상은 2007년에 개금작업 중에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었다.

목조석가불좌상은 전체 높이가 135cm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중형 불상에 속하는 작품이다. 불상은 얼굴을 앞으로 약간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신체와 얼굴이 1:0.35의 비율로 17세기 중반에 제작된 불상과 비교하면 신체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같은 시기에 활동한 색난 스님 작 강진 옥련사 불상(1684년), 단응 스님 작 예천 용문사 목각탱(1684년), 마일 스님 작 안성 칠장사 불상과 신체 비례, 착의법 등을 비교하면 차이가 난다.

앞으로 숙인 머리에는 뾰족한 나발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가 표현되고, 정상부에 좁고 높은 원통형 정상계주와 이마 위에 가늘고 좁은 반원형 중간계주가 있다. 계란형의 얼굴에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 반쯤 뜬 눈, 콧등이 평평한 삼각형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을 표현했다. 이러한 어린 소년의 해맑은 얼굴의 인상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색난이나 단응 및 금문이 제작한 불상과 많은 차이가 있다.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오른손은 손가락을 펴고 바닥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다.

바깥에 걸친 두꺼운 대의는 변형통견으로,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비스듬히 짧게 걸친 후,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하반신에 펼쳐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은 복부에서 한 가닥이 넓게 초승달처럼 펼쳐지고 끝단이 지그재그로 처리되고, 그 옆으로 낮게 깔린 옷 주름이 네 가닥 펼쳐져있다. 이와 같은 하반신의 옷자락 처리는 조각승 색난이나 승호가 제작한 불상과 많이 다르다. 대의 안쪽에는 편삼을 입지 않아 맨살이 드러나는데, 여래상이 편삼을 걸치지 않은 착의법은 조선후기에 조성된 석가불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이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는 수평으로 접어 단순하게 처리했다.

대좌는 팔각대좌 위에 연화좌를 올려놓은 단순한 구조이다. 목조보살좌상은 본존과 같이 상체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화염보주로 장식된 커다란 보관 안쪽의 머리카락은 두 갈래로,나머지 머리카락은 보관 밑으로 자연스럽게 늘어져 있다. 인상과 대의처리는 본존과 동일하지만, 손의 위치는 본존과 달리 왼손을 어깨까지 들고, 오른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인상과 양식적 특징을 갖춘 보살상이 서울 성북 심곡암에 봉안되어 있다. 사찰 측에 의하면 "요사체에 봉안된 보살상은 심곡암이 창건된 1930년대부터 전해져 내려왔다고 한다. 심곡사 목조보살좌상은 높이가 88.3㎝로, 보관(寶冠)이 없어진 상태이고, 정수리에는 둥글게 말린 높은 보계(寶)가 있다. 머리카락은 귀를 따라 앞뒤로 흘러내리다가 귀 볼에서 한 가닥으로 꼬여 어깨 위에서 세 가닥으로 둥글게 말린 후에 두 가닥으로 늘어져 있다. 옆으로 약간 퍼진 얼굴에 반쯤 뜬 눈은 수평으로 처리하고, 코는 원통형으로 곧게 뻗어 있으며, 입에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보살상의 착의법은 변형편단우견(變形偏袒右肩)으로, 바깥에 걸친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에 짧게 U자형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옷자락은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간다. 반대쪽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흘러내려 복부에서 편삼과 자연스럽게 겹쳐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은 복부에서 한 가닥이 넓게 초승달처럼 펼쳐지고 끝단이 지그재그로 처리되고, 옆으로 낮게 깔린 옷주름 네 가닥이 표현되어 있다. 보살상 뒷면은 목 주위에 넓게 대의자락이 접혀져 있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자락이 엉덩이 위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崎)는 수평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오른손은 어깨 높이까지 들고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 손바닥을 위로 엄지와 중지를 붙이고 있다.

이 두 보살상을 비교해 보면, 높이는 영동 중화사 보살상이 89.0㎝이고, 서울 심곡암 보살상이 88.3㎝로 거의 차이가 없다. 영동 중화사 보살상은 보관이 있고, 서울 심곡암 보살상이 보관이 없지만, 조선후기 제작된 보살상은 상투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높이에 보관의 유무가 관련이 대부분 없다. 그리고 보살의 인상은 안면의 높이와 폭이 거의 동일한 치수로 넙적한 얼굴에 가늘게 뜬 눈, 코등이 평평한 코, 넓은 인중, 미소를 머금은 입에서 풍기는 인상이 유사하다. 두 보살상의 착의법은 들고 있는 손의 위치가 다르지만,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 자락이 U자형으로 짧게 늘어진 형태와 그 뒤로 한 가닥의 주름이 접힌 점, 왼쪽 어깨에 수직으로 내려오는 대의 자락의 끝부분에 사선으로 접힌 끝자락 형태, 편삼이 복부에서 대의자락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 등이 유사하다.

또한 서울 심곡암 보살상과 중화사 여래상은 왼쪽 어깨에서 수직으로 늘어진 대의 자락의 상단에 수직으로 접힌 옷자락이나 넓은 대의자락 뒤에 가늘게 하나의 선으로 옷주름이 처리된 점, 왼쪽 겨드랑이로 접힌 한 가닥의 옷자락 등도 같다. 뿐만 아니라 중화사 여래상과 보살상, 서울 심곡암 보살상은 하반신에 걸친 옷자락도 끝부분이 각진 형태를 하면서 복부에 앞으로 넓게 펼쳐진 옷자락 끝단이 지그재그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서울 심곡암 목조보살좌상은 수화승 법림 스님과 영탄 스님이 1686년에 상주 용문사에 봉안하기 위해 만든 관음보살상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인들 보고 반할 ‘불교뮤지컬’ 만들겁니다”

뮤지컬 ‘보리수 나무 아래서’ 만드는 이 진 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Jesus Christ Superstar)’는 예수의 마지막 7일 간을 경쾌한 락 음악으로 그려낸 뮤지컬이다. 예수의 이야기지만 종교와 상관없이 볼 수 있어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는 항상 상연되는 스테디셀러다. 반면 부처님의 이야기를 다루는 뮤지컬은 국내나 해외에서나 찾아보기 힘들어 공연문화를 즐기는 불자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을 안겨줬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에는 불교 뮤지컬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불자 음악가인 이진구 무쏘의 뿔 대표가 뮤지컬 ‘보리수 나무 아래서(Under the Bodhi Tree)’를 제작 중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영어, 두 개의 버전으로 제작되는 뮤지컬 ‘보리수 나무 아래서’는 부처님의 출가와 깨달음의 과정과 고뇌를 그린 작품이다. ‘보리수나무 아래서’에서 소개되는 30여 곡들은 모두 이 대표가 작곡했고 한국어 가사는 작사가인 부인 송연경 씨가 달았다. 영어 가사는 매튜 메자카파와 크리스틴 리가 맡았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는 10년의 산고 끝에 나온 작품이다. 이 대표는 3년을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스님들의 자문을 들었으며, 3년을 대본과 작사 작업에 매달렸다. 이후 3~4년을 대중화를 위해 곡과 대본들을 다듬었다.



지난 10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보리수 나무 아래서’ 워크숍에서 배우들이 열연하고 있다.

부처님 일대기, 뮤지컬로 제작
10월 美서 워크숍, 호응 높아
내년 브로드웨이서 상연 계획
한국선 18일 뮤지컬 갈라쇼도

“10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선 부처님의 생애를 면밀히 공부할 필요가 있었고, 공부를 토대로 각본·작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영어 가사를 맡았던 분들 중 어려워서 두 손들고 나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생애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제 10년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맨해튼 뉴욕대 대학원 티시 스쿨 블랙박스홀에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시사회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현지 반응은 매우 좋았다. 프로듀서가 바로 붙었고, 상연 극장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현재 매주 현지 프로듀서와 함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연 날짜를 정하고 급하게 일정을 맞추는 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 갑니다. 느리지만 매우 안정적입니다. 최종 목표는 내년 봄 오프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상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부처님 일대기를 뮤지컬로 만드는 이유는 명확하다. 일반 대중에게 불교를 즐겁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서다. 뮤지컬에 사용된 곡들의 장르도 락, 재즈, 펑키, 팝페라 등 대중적이다. 한국인이 제작한 만큼 한국 전통 음악도 가미됐다. 한국불교의 범패가 뮤지컬에 사용됐고, 민요 옹헤아, 꼭두각시 리듬도 곳곳에 삽입됐다.

“세계인이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종합예술인 뮤지컬을 통해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표로 한 관객층은 한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인이 보고 반할 뮤지컬을 만들려고 합니다. 종교와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요.”

이 대표는 뮤지컬 ‘보리수 나무 아래서’의 단면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을 한국에서 준비 중이다. 그가 이끄는 불교예술단 무쏘의 뿔은 제6회 정기공연에서 뮤지컬 갈라쇼 형태로 ‘보리수 나무 아래서’를 공연한다.

11월 18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의 수록된 6곡을 선보인다. 또한 불자 팝페라 성악가 김명온 씨를 비롯해 한마음선원 합창단, 불교방송국 합창단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010)3278-8511, (010)3668-6699 신성민 기자

장갑으로 표현한 ‘色卽是空 空卽是色’ 이치

정경연 교수, 11월 29일까지 현대화랑서 개인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던 것은 ‘손’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손으로 글을 쓰고, 도구를 만들었으며, 예술을 했다. 또한 손은 사용자의 인생이 담겨 있기도 하다. 공사장과 농사로 인한 투박해진 노동자의 손부터 대통령의 손까지 다양하다. 그렇지만 손을 보호·보온하는 장갑 안의 손은 손일뿐이다. 대통령이든 노숙자든 장갑 안에서 손은 평등해진다.

섬유회화와 ‘장갑 작가’로 잘 알려진 정경연 홍익대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교수(前 불교여성개발원장)는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장갑을 통해 다양한 감성들을 표현한다. 정 교수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11월 29일까지 현대화랑에서 열린다.

정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2000년대 초반의 모노톤의 작업으로 시작해, 1990년대의 설치와 비디오 작업으로 각 종교와 세대간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고, 근작을 통해서 다양한 색과 재료를 연구함으로써 ‘일상적인 오브제의 조형화’라는 일관된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전시는 회화작품과 설치작품, 비디오 작품 등 총 30여점으로 구성된다.

정 교수가 자신의 작품 오브제로 ‘장갑’을 선택한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모정 때문이다. 홍익대 2학년 재학 중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정 교수는 추운 겨울 어느 날 어머니가 보내준 소포를 받았다. 그 안에는 면장갑이 들어있었고, 이내 눈물이 쏟아졌다. 행여나 손이 틀세라 보내준 어머니의 마음이 떠오르면서 쭈글쭈글한 할머니의 손부터 면장갑을 끼고 새벽부터 바삐 일하는 환경미화원, 공사장 노동자 등 수많은 손과 장갑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이후 정 교수는 장갑을 통해 다양한 감성들을 표현했다.

정 교수가 40년을 해온 장갑을 통한 조형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한 개의 면장갑을 4개 혹은 5개로 영역으로 분할해 각각 염색을 하거나 일일이 물감으로 채색을 한다. 이후 말리고 찌고 다림질하고 캔버스에 붙이고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여 작품 한 점을 완성해 낸다.



자신의 작품 앞에 선 정경연 홍익대 교수.

일상적 오브제들을 조형화
“창작 작업은 수행의 일환
〈반야심경〉서 작품 영감을”

이 같은 지난한 작업을 정 교수는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그는 작품의 영감을 〈반야심경〉에서 찾는다고 말한다.

“불교의 〈반야심경〉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의 기본 개념이 함축된 작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뢰감을 전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의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 ‘반야심경’에 대한 수행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작품 제목이 무제(Untitled)나 조화(Harmony) 등인 이유도 눈길을 끈다. 어떠한 명제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작품 감상의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나의 작품 제목인 ‘무제’는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명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대중들이 느끼는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직접적이면서도 추상적으로 작품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02)2287-3591 신성민 기자

線으로 禪을 보이다

전통문화대 교수 단체전 ‘선의 미학’展

오는 20일까지 불일미술관서
전통 회화 교수 단체전 ‘처음’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재열) 전통미술공예학과 권지은 교수와 출강 강사 7인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전통회화 작품전시회 ‘선(線)의 미학’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불화 작품으로 전통 회화의 맥을 잇고 있는 권지은 교수를 비롯해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의 전수교육조교 최문정, 이수자 김석곤 등 모두 8명이 함께 한다. 이들은 전통회화 기법과 재료를 바탕으로 전통의 재해석과 함께 현대의 감성에 맞게 풀어나가는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통과 장인이라는 분야를 개척하면서 전통미술을 선도하는 다양한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회의 주제인 ‘선(線)’은 미술의 기본요소로 전시 작품들 속 모든 선은 화면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인체의 윤곽선, 옷의 문양선, 장식물의 인공선 등을 작가의 의도대로 명분 있게 쓰임을 다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선은 유려함과 견고함을 널리 보여주며 전통 회화의 새로운 장을 보여준다.



김석곤의 ‘佛금동미륵보살반가상’

특히 국보 제83호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빛의 형상으로 표현한 ‘佛금동미륵보살반가상’, 와전 석문과 종정 금문의 명문을 선별하여 각 화면에 맞게 구성한 ‘종정와전명임모도’ 등은 눈길을 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그간 학교 전임교수의 개인별 작품 전시회는 꾸준히 개최됐으나, 전통 회화 전공 교수와 강사들이 함께 모여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학생들은 전통 회화에 대한 생각과 표현 등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 전통 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전통의 현대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미소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문의 050-287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도치료법 1:1 또는 5인이하 실전교육을 상시합니다.
※ 기도 치료는 유사 사이비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의학입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두권 구입 값 43,600원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기도치료는 유사 사이비 대체 의술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에 의한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치료법입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건강증진은 물론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전문기도치료사만 된다면 노후 걱정은 덜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70대 중반입니다만 가끔 한달에 천만원이상의 수입을 볼때도 있습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011-557-2773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6.11.2~2016.1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나를바꾸는100일	마가스님	휴(한겨레출판)
2	바람불면 다시오리라-소설 법정	백금남	쌤앤파커스
3	유식으로읽는반야심경	요코야마코이츠/해암	민족사
4	틱낫한기도의힘	틱낫한	불광출판사
5	금강경강의(강미농의)	강미농/양관	담앤북스
6	알기쉬운 쏙쏙 능엄경	도서출판선	현담스님
7	불교에관한사소하지만결정적인물음49	장웅연/니나킴	담앤북스
8	LA유식강의	현담스님	도서출판선
9	금까마귀계수나무위를날고	박부영	불교신문사
10	조당집 읽기-가장 오래된 조사들의 문답	정영식	운주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불교적 관점서 본 예술과 꿈, 신화

나라는 증상, 삶이라는 환상

김권태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 1천원



이 책은 불교와 한문,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현직 교법사로 개념과 이론의 나열이 아닌 실제 저자 자신의 체험들을 성찰하고 소화한 에세이 형식의 글을 묶은 것이다. 주인공은 새로운 마음 분야를 개척하는 김권태 교법사(동국대 부속중학교)이다. '나라는 증상, 삶이라는 환상'이라는 책 제목이 먼저 눈길을 끄는데, 이는 불교의 근본 교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인 '무상(無常)'과 '무아(無我)'를 현대적 언어로 표현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 따라서 이 삶은 하나의 환상이며, 변하지 않는 무엇, 고정불변의 나(我)가 있을 거라는 착각은 하나의 증상일 뿐임을 책 제목서 암시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환상과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책 부제인 '예술, 꿈, 증상, 신화, 그리고 언어에 관한 짧은 시론'서 알 수 있듯 불교적 관점서 예술과 꿈, 신화와 언어에 관한 주제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총 5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 '예술, 나라는 말에는 네가 아니라는 말이 숨어 산다'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존재한다는 연기적 사유를 바탕으로 '텍스트'와 그 속에 감춰진 '진실', 또 예술작품을 구성하는 '은유와 환유', '상징과 알레고리' 등을 풀이하며 예술의 본질을 짚는다. 이어 책의 2부(꿈, 아버지의 꿈으로 프로이트와 융을 만나다), 3부(증상, 목 잘린 인형들의 외침), 4부(신화, 오이디푸스여, 금갑을 쏴라)에서는 불교의 고유한 심층심리학인 유식학을 바탕으로 '꿈'과 '증상', '신화'에 대해 분석한다. 무엇보다 실제 저자 자신이 꾼 꿈과 직접 행했던 상담 사례를 생생히 들어가며 인간의 내밀한 무의식을 하나씩 분석해 나감으로써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게 된다.

사실 '꿈'은 오늘날 정신분석과 분석심리학서 무의식을 분석하는 주요한 과제로 다루지만, 불교서는 그보다 더 깊은 심층심리학인 유식학을 갖고도 아직까지 다른 학문과의 용어적인 유사성과 차이성만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본격적으로 불교의 유식학을 토대로 깊이 있게 꿈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 5부 '언어, 혜능 선사가 비트겐슈타인에게'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과 중국 선불교의 종조라 할 수 있는 혜능 선사의 심법(心法)을 전래동화 〈이야기 주머니〉와 〈석수장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가며, 불교의 오랜 논리학인 사구백비(四句百非)로써 풀이해 나간다.

불교에서는 언어로 표현된 모든 범주를 네 가지 범부로 나누는데, 이것을 사구라고 한다. 사구백비는 '언어로 된 모든 것(百)을 부정한다(非)'는 의미로 언어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다. 저자는 이 책서 사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4구로 세상을 포착하되 그것은 참다운 모습이 아니니, 그것을 100비로 씻어냄으로써 직접 진실을 체험하도록 이끄는 것이 사구백비임을 실례를 들어 설명한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예술과 꿈과 증상과 신화와 언어는 모두 삶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수 없기에 예술과 꿈과 증상과 신화와 언어를 빌려 입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두는 진실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자 하나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현재 유행하는 타학문의 이론을 불교식 언어로 차용해 설명하는 '불교의 세속화'가 아니라, 불교의 핵심교리를 바탕으로 대중들의 관심과 흥미가 집중되는 분야를 분석하고 소화하는 '세속의 불교화'를 꾀한 점이다. 또한 고리타분한 교리 해석의 위험을 피하기

'무상'과 '무아' 현대적으로 해석
세속의 불교화 꾀한 것은 장점
저자, 자신의 연기적 사유 드러내

위해 학술서가 아닌 에세이 형식으로 현대철학의 가장 첨예한 논쟁주제라 할 수 있는 '예술, 꿈, 증상, 신화, 언어'를 분석하고 있는 점도 돋보인다.

저자는 책 속에서 "나라는 말에는/ 네가 아니라는 말이 숨어 산다./(중략)/끝없이 늘어선/백합 같은 구름을 넘겨보며/너라는 말의 정원으로/비밀처럼 나를/만나러 온다. (중략) 그 이름은 자기 아닌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잠시 그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며, 내가 아닌 너를 통해 비로소 나라는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밝힌다.

이 책은 위의 본문 내용서도 엿볼 수 있듯 저자 자신의 연기적 사유가 무르녹아 있다.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를 갖지 않은 일반 독자들도 불교적 가치에 시나브로 젖어들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시인인 저자 특유의 감성으로 아름답고 대중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쏙 빠져들게 한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다. 따라서 달은 손가락의 한 부분이며, 손가락은 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이 책에는 붓다의 위대한 연기적(緣起的) 사유야말로 증상과 환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삶의 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오직 한 길, 우리 모두의 길이 된다는 깨달음이 행간 행간마다 배어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수행 방편 높낮이 구별은 분별서 비롯"

영축산에 울린 사자후

일우 스님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5천원



불교TV 〈붓다의 길을 가다-법화행자〉에서 〈법화경〉 가르침과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 법문해 온 일우 스님이 방송 내용을 정리하고 다듬어 엮은 책이다. 〈법화정법〉과 〈법화신행〉에 이은 〈법화행자〉의 삶이다.

〈법화경〉은 〈묘법연화경〉의 약칭이다. 28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에 해당한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마지막에 설하신 이유는 대자대비하심이다. 근기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일우 스님, 불교TV서 〈법화경〉 설법
"행복과 불행의 근원은 가정에 있어"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큰 길이자 동시에 지름길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중생들에게 법화세계를 보여주어 쉬운 방편을 알려준다.

경전서는 사리불부터 마하가섭존자와 아난존자, 라훌라존자와 오백나한과 유학 무학인들,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는 오역죄를 범한 제바달다까지도 부처를 이룬다는 수기를 주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든 중생도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셨다고 일우 스님은 희망의 근거를 이야기한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근기와 성향이 다 다름을 아시고 평생 동안 팔만사천 가지의 법문을 펼치셨다. 그것을 대기설법이라 한다. 그런데 〈법화경〉서 그 팔만사천 대기법문이 '하나'라고 천명한다.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 일불승 하나이며, 소승, 대승, 금강승이 일불승 하나라고 말한다. 불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분별할 소지를 없앤, 최후의 가르침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일우 스님은 "참선, 염불선, 위파사나 남방수행, 금강승 밀교수행 등등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많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수행이 빠르고 늦는 것은 개인의 근기에 따라 다른 것이지 어느 방편이 높고 낮다고 하는 것은 분별입니다"라고 덧붙인다.

〈법화경〉에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대중의 이해를 쉽게 하는데, 특히 '불타는 집(火宅)'의 비유가 잘 알려져 있다. 왜 이 세계는 불타는 집인가? 불은 탈 만한 재료가 있어야 한다. 스님은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화택지옥, 사바세계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며, 〈법화경〉을 독송하고 사경하고 널리 유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출가는 스스로 해방되는 길"… 단기 출가학교 30일 수행담

다녀왔습니다

월정사 엮음 | 모과나무 펴냄 | 1만원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지만, 정작 행복해지는 법을 잘 몰랐다. 그래서 처음 출가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망설였다. 처음 출가해 수행자 생활을 하면서도 기존의 삶과 달라 힘겨웠고, 그만두고 싶은 심정도 많았다. 하지만 출가학교의 30일 수행 생활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출가학교 수행자들의 수행담을 담은 이 책은 삶이 바뀐 수행자들의 기록이다.

오대산 월정사 출가학교장 정념 스님은 머리말서 "행복은 힘써 열어내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의 문을 열어내기 위한 과정, 그것이 출가학교입니다"라고 의미를 설명하고 "출가는 스스로 해방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출가학교는 자신의 틀 속에 벗어나 행복과 자유를 얻는 과정이었다. 30일간의 출가학교는 수행자들 각각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약 3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 거쳐 갔다. 이 가운데 출가자도 150여 명이나 배출됐다. 참가 연령대도 20대서 60대까지 다양하다. 삶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40대 어느 남성 출가자는 고민 끝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50대의 어느 남성 출가자는 출가학교서 머리를 깎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출가학교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됐다고 한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왔을까?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딘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출가한 사람, 오랜 부부 갈등으로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 아이의 장애로 힘들어하던 사람 등 저마다 출가의 목적은 달랐지만 출가학교의 수행 프로그램은 서서히 삶을 바뀌게 했다. 모두들 사소하지만 소중한 변화를 가슴에 품고 있다. 출가학교를 마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출가학교를 마치고 1년, 2년이 지났지만 출가 이전에 힘들어 한 그 문제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다. 똑같은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넉넉한 품이 달라진 것이다.

삭발과 묵언정진으로 시작하는 출가학교 수행 프로그램은 끝없이 머리를 숙이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집중하게 했다. 공동체 생활의 엄격한 규율과 정진은 선입견과 아집을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하는 주인공의 삶으로 인도했다. '출가학교'의 일상은 수행이 아닌 것이 없었다. 그것은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밝은사람들 총서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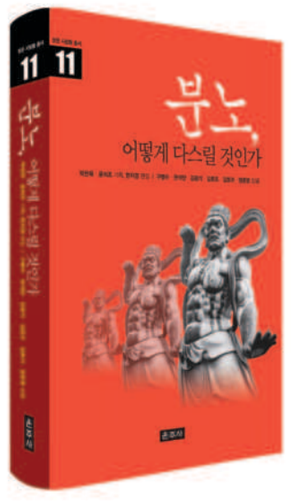
01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 정준영 외 / 396쪽 | 20,000원
02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 권석만 외 / 504쪽 | 23,000원
03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 미산 외 / 400쪽 | 20,000원
04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 우희종 외 / 424쪽 | 20,000원
05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 미산 외 / 348쪽 | 18,000원
06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 안성두 외 / 416쪽 | 20,000원
07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 오강남 외 / 300쪽 | 18,000원
08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 정준영 외 / 326쪽 | 18,000원
09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 정준영 외 / 388쪽 | 20,000원
10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 미산 외 / 376쪽 | 20,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일시: 11월 19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노는 왜 생기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분노사회'에 던져진 현대인! 초기불교 및 선불교, 사회학 및 심리학, 서양의학 및 한의학 등 종교적, 사회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분노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 집필/신국판양장/376쪽/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9년만에 복원된 서아시아 최대 불상 조각

2007년 9월 탈레반 공격에 얼굴 부분 크게 훼손

2007년 9월 탈레반 공격을 받아 훼손된 서아시아 최대 불상 조각이 인고의 복원 작업 끝에 제 모습을 찾았다.

파키스탄 언론 'DAWN'은 11월 8일(현지시간) "스왓 계곡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이 9년을 기다린 끝에 얼굴을 되찾았다"며 "이번 작업엔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이 투입돼 과학적 복원 방법을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스왓 계곡의 한 바위에 조각된 이 불상은 서아시아 최대 크기로 알려진다. 7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부처님이 앉은 채 명상에 잠긴 모습을 표현했다. 탈레반은 폭발 당시 부처님 얼굴과 어깨 부분에 구멍을 뚫어 폭발물을 설치, 얼굴의 반 이상이 훼손됐다.

이에 대해 'DAWN'은 "폭발로 인해 부처님 얼굴의 대부분이 망가졌지만, 어깨 쪽은 폭발에 실패했다"며 "탈레반의 당시 범행은 전 세계 불자들과 역사가들, 고고학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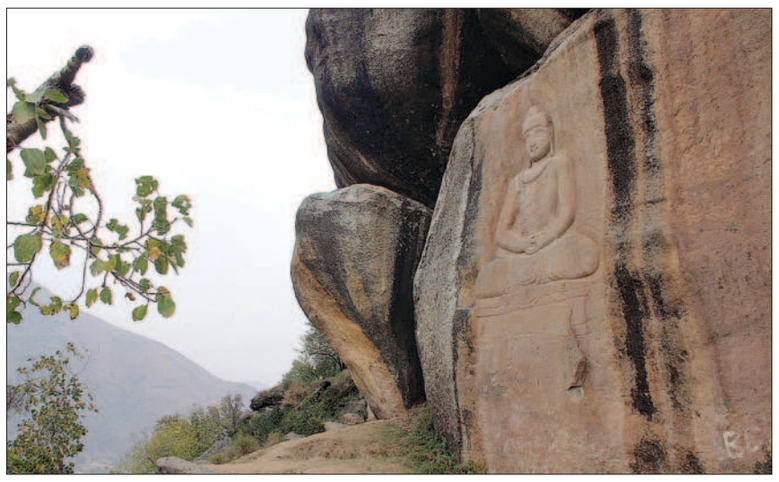
이후 파키스탄은 불상 복원 작업에 착수,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이 파견돼 6차례에 걸친 과학적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3D 기술이 활용돼 원형 모습을 되찾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단 후문이다. 3D 장비는 모두 이탈리아 파두아 대학서 지원했다.

루카 마리아 올리비에리 고고학 파견단장은 "국제 전문가들이 합심해 복원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지원한 고고학 지역관광(ACT) 야외활동 프로젝트 단체를 중심으로 카이베르파크툰크와 주 박물관 관계자 및 이탈리아 고고학단이 합류했다"며 해외 및 지역 복원 전문가 7명, 3D 스캔 전문가 2명, 총책임자 1명, 현장 담당자 20명, 목수 2명, 관리인 3명 등 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고고학단 파견돼
6차례 걸친 조사 실시 후
3D 등 과학 기술 도입 작업
"과거 관광지 명성 되찾길"

특히 이번 복원 작업에 참여한 파비오 콜롬보 씨는 아프가니스탄 바미얀 불상 복원 작업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 콜롬보 씨는 "스왓 계곡은 과거 불교 중심지로, 이 불상 역시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지역 주민들 및 전 세계인들이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며 "불상 조각은 매우 고요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풍겨 한 폭의 그림과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현지 고고학 전문가 시에드 니아즈 샤이아 씨는 "이탈리아 내 최고 기술자들이 합류해 복원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스왓 계곡이 다시 관광지로 번성하길 바란다. 불자 및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해 풍경과 문화재를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아시아 최대 크기로 알려진 스왓 계곡 불상. 2007년 탈레반 공격 후 최근 복원됐다.
사진출처=DAWN

'DAWN'이 복원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이날은 복원 후 첫 관광객들이 방문한 날이기도 했다. 러시아 관광객들은 복원된 불상 조각과 경치를 감상하며 환희에 젖었다.

유리 조르노 씨는 "불상은 역사적 가치 뿐 아니라 정교한 복원 기술로만으로도 매우 놀랍다. 멀리서 보이는 불상과 계곡의 조화가 너무도 아름답다"며 "더 이상 테러 위협이 없는 이곳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관광객은 "이곳 치안은 매우 훌륭하다.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 줘 매우 안전하다"며 "파키스탄은 아름다운 풍경과 풍부한 문화유적을 갖췄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곳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불상 조각이 위치한 스왓 계곡은 급류와 호수, 과수원, 꽃이 만발한 비탈길이 조화를 이룬 절경을 자랑해 '파키스탄의 스위스'라 불린다. 과거 1,400개가 넘는 사원이 번창해 불교 전성지대기도 했으며, 불교의 전통 조각술과 그리스·로마의 스타일이 혼합돼 표현된 간다라 조각술의 중심지였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삶의 마지막 안온처 준비하는 일본불교

혼고지구 정심사 3층 규모 장례식장 '사쿠라 홀' 건설

이미 초고령자 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앞으로 다가올 '다사사회(多死社會)'를 맞아 정부와 관련기업들의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다사사회란 현재의 고령자들이 사망에 임박한 연령에 도달하여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로 본격적인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일본은 이 시기를 2038년 즈음으로 예측한다.

일본 불교계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의 닛케이 비즈니스(日経ビジネス)는 11월 4일자 기사를 통해 다사사회를 대비하고 있는 일본불교계의 움직임을 취재했다.

도쿄도(東京都) 분교구(文京區) 혼고지구(本郷地區)는 사찰 50여개가 모여 이루어진 마을이다. 이곳 절들 중 정토종(淨土宗) 소속의 정심사(淨心寺)는 최근 사찰 부지에 3층 건물의 장례식장 '사쿠라 홀'을 건설했다. 장례식장 지하에는 시신 8구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소가 마련돼 있다. 시신은 대부분 근처 노인요양원서 숨을 거둔 고령자이거나 마을 주민들이지만 고독사(孤獨死)한 신원미상의 시신도 안치되는 등 종교와 관련성은 특별히 없다.

정심사 주지 스님 사토 마사히코(佐藤雅彦 · 58)는 "이곳 분교구(文京區)엔 화장장이 없고 안치소도 모자라다. 머무를 곳 없는 망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많아 우리 절이 망자의 마지막을 편히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다"고 설립 이유를 밝혔다.

일본은 이미 상업적으로 규모가 큰 상조회사가 많고, 대규모 안치소와 화장장을 구비하거나 증설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어디까지나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보니 잦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심사의 사쿠라 홀. 주변 건물들과 위화감이 없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외관에 많은 신경을 썼다.

또한 화장장과 시신안치소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강해 설립이 쉽지 않다고 한다.

예부터 일본 사회의 상례(喪禮)를 담당해 온 일본 불교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 정심사와 같이 소규모 장례식장 및 시신안치소를 사찰 부지 안에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일고 있다. 특히 혐오시설이란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 건물 디자인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하지만 이면에는 일본불교계의 깊은 고민이 담겨있다. 최근 아무런 종교의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 사찰에서 행해지는 상례의식이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이다.

점차 상례를 치르지 않는 사회가 돼가는 일본서 시신안치소가 과연 불교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성원 객원기자

"개인적 문제, 불교적 해법 통해 해소시킬 것"

美위스콘신주, 일반인 위한 명상센터 열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한 명상센터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카담파 명상센터 메디슨은 미국 위스콘신주 파크 애비뉴에 명상센터를 열고, 위스콘신 주립대 학생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에게 명상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명상센터 지도 법사인 겐 켈상 곰람은 "이전엔 승려들과 소수의 일반인들에게만 불교 가르침을 전했지만 스승인 게쉐 켈상 갸쵸는 일반 대중에게 현대불교를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갸쵸 스님은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현대적 시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곰람 스님은 "우리는 사람들을 불자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불교적인 해법을 통해 제시하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대불교는 불자, 비(非)불자 모두에게 명상을 통해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이 명쾌하고 쉽다"며 "행복감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감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법은 간단하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곰람은 "우리 모두의 내면은 평화롭다.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분주함, 외부의 상황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카담파 명상센터 메디슨은 위스콘신대학 내에 있는 '다이아몬드 웨이 불교센터'에서 분리된 기관으로, 교육 방법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카담파 명상센터 메디슨이 미국 위스콘신주 파크 애비뉴에 연 명상센터.
사진출처=the badger herald

위스콘신대 대학원생이자 위스콘신 대학내 다이아몬드웨이 불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몰리 고사지는 명상이 가치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고사지는 "대학교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이익 때문에 모든 유형의 명상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명상이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비록 불교 교리 외에 다른 형태의 명상이 있지만, 고사지는 그 두 가지 목표가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고사지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써 명상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고사지는 "이것은 단지 여러분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감정을 변형 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담파 명상센터는 이번 설립을 계기로 바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곰람 스님은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료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장이나 망가진 차 같은 외적인 조건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태도를 만든다"고 말했다.

카담파 명상센터와 다이아몬드 웨이 불교센터는 명상 초보자에서 고급자까지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보형 객원기자

유명 작곡가 매일 염불, "무대공포증 사라져"

던컨 쉭, 美 팟캐스트 방송 인터뷰서

브로드웨이 히트 작곡가가 무대 공포증을 떨치기 위해 19살 때부터 염불 수행을 해왔다고 밝혀 화제다.

미국 방송국 'abc News'는 11월 2일(현지시간) 자회사 팟캐스트 방송 '10% happier'서 8개 토니상 수상작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의 작곡가 던컨 쉭〈사진〉을 인터뷰하고, 그가 불교 염불 수행을 통해 무대 공포증을 극복했다고 방송했다.

이날 던컨 쉭은 "10대 시절 알게 된 불교 염불 수행을 실천한 후부터 불안이 사라졌다"며 "특히 한 음으로 염불을 계속 외면서 음감을 터득했고, 다양한 음으로 노래하는 방법도 익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염불을 외면 발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던컨은 불교적 가치관을 작품에 반영한다고 고백했다. 그는 "불교는 인간이라면 겪어야 할 10가지 삶의 단계를 말해준다. '스프링 어웨이크닝'은 주인공들이 다양한 삶의 단계를 살면서 이에 각자 반응한단 줄거리"라며 "작곡을 하면서 내가 사회에 어떤 유익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희 기자

수제 햄머 Hammer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특징 100%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세상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동 제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장인이 손수 망치로 두들겨 만든 햄머 제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우아하고 기품이 넘칩니다. 햄머는 코팅을 하지 않은 제품으로 자연적인 색깔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항균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 동, 햄머 제품은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제조과정에서 오는 스크래치나 접합부의 땜자국 등 마감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햄머의 동 제품은 수작업으로 광택 정도나 수구의 모양, 크기 모두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만들 때마다 같은 빛깔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주문시 참고 바랍니다.

S8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S800 유광
주전자본체 : 90(W)×140(h)×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 NY900 유광
주전자본체 : 105(W)×120(h)×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드립퍼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세로 95㎜
가 격 : ~~39,000원~~ ➜ 89,100원

스푼

스푼 –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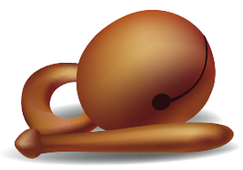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보시와 사랑스러운 말을 즐기고 자비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아끼고 염려하면 이러한 인연이
진실이 된다.

– 제법집요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정신분열,정신이상,
빙의,환청,환시,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정암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529-1076
010-9944-1075

태극 기문 명리

기문둔갑 + 명리비법
(계의신결. 작명. 영가작법)
속성! 개업반, 스님환영
태극기문학회
051-949-1234

EST 기치료센터

기치료 과정
최면상담사 과정
사주, 육효, 철학상담사과정
각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업하고자 하는분,공부하였으나 자신이 없는분,관심은있으나배울기회가없는분)
EST 기치료최면센터
010-6666-2733

기치료, 명상치료

이유없는 두려움,
불면증, 심한 두통,
여러가지 고통 및 질병의
치료를 도와 드립니다.
<소원성취, 기도도량, 자연합일>
대구 인근 위치
010-3572-1524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5960-4984
지리산 현담

알립니다

법당,신당 퇴불 및 철거 전문업체
불교용품 일체 취급
법당, 신당 제작 설치
사찰 중개도 합니다
불교용품 다 사고 팝니다
010-2001-0089
010-3200-0091

이조불교용품 재활용센타

법당철거전문.개금.단청.
탱화.중.대형불상.공예
(사찰부동산중개전문)
구리시 아천동 산4-1
010-9177-7842

사주학 제10기 모집

- 교육과목 : 사주학, 매화역수, 성명학
- 초급반 : 사주명리 왕초보자,
- 실전반 (통변반) : 질의 / 응답식 강의
- 강사 : 정인스님

010-4047-0134
(서울 광진구 구의동)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 고민 해결의 지 침 서

당신의 어떠한
고민도 해결 할 수
있는 지침서이다
010-7732-3267
농협 302-1030-1238-01 배종영

칡 판 매

스님이 직접 캔
칡을 판매합니다
010-5585-0459

문두루 기도법?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며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후계자를 찾습니다

35년간 수행해온 모든 것을 다 전수
받을 수 있는 후계자를 찾습니다
(스님이나 스님이 되고 싶은 사람)
"1차 전화 상담후 면접"
063-832-0108 / 010-6513-4771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근무지역 : 부산
급여 및 근무조건 : 면접시 협의
연락처 : 051-742-7610 (종무소)
조건 : 불교신도, 유경험자
나이 : 40 ~ 60대
좋은인연으로 신심있고 성실하게
임하실 수 있는 분 환영합니다

숙식가능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수영구)
051-628-7200
010-3525-991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구성학 + 현공풍수 양택
기본과정 수강회원 모집

– 서울과정 :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오후 1시–4시(180분) 개강
– 대전과정 :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오후 1시–4시(180분) 개강
서울 학회사무실 :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대전 학회사무실 : 대전 서구 용문동 243–18번지 2층
010-5116-9313

법당 함께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인천)
010-8300-9679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거제)
010-7169-9878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 자 모 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7212-2198
02)2234-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0-8559-9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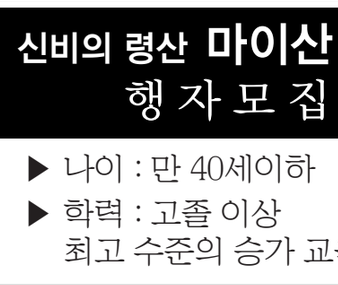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 할 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과 마음 행복한 조율
상 · 중 · 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고 타인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며 타인의 깨끗한
생활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모든
나쁜 말은 마땅히 버려야 한다.

- 발각정심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관광 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토지 : 1400여평
- 건물 : 목조법당 48여평, 요사채 38여평
- 세계불교박물관(벼락맞은 대추나무 5400년된 회석 등 300여점 보유)
- 양도 : 13억 5천만원 (대출 5억포함)

▶ 얼음골 사찰 ◀
- 위치 : 밀양 얼음골
- 토지 : 830여평, 주차가능
- 건물 : 대웅전과 요사채 40여평
- 산좋고 물좋은 계곡 남서향 명당
- 양도가액 : 3억 5천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영양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요사채, 산시낙,토지 820㎡
- 조용하며 깨끗함, 도로인접, 마을주변
- 가액 : 1억 6천만원. 조정가능(융자가능)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 (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양도 : 8억2천

◎ 위치 : 경북
◎ 부지 : 2000평
◎ 인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양도 : 2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암 자 안 내

- 위치 : 양산 물금 신도시 부근
- 토지 : 오봉산자락 32여평
- 건물 : 법당16여평,요사채2동
- 낙동강이 한눈에, 위치 좋은 암자
- 양도 : 스님 사정으로 몽땅1억3천만원

010-2595-7752 전무
주소: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504호(만덕동302 다산타워)

영주 사찰(급)안내

- 토지 7,000㎡
- 한옥기와 법당, 산신각, 요사채 등
- 주변산, 바위, 약수, 토목완료
- 영주 4K 고속도로 접근성 좋음
- 가액 : 4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사찰전문)
서울연락처: 070-8154-9393
(원주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직접 방문을 통한 정확한 권리분석 및 상담
- 전국 매물 수백건 보유/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70-8145-9393

서울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 지하철역 5분거리 버스정류장 앞
- 총 132.23㎡ (약40평)
- 가액 : 보1000만, 월100 시설비 500

010-3426-9393 (포교원전문)
070-8154-9393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기
- 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5평
- 가액 : 6억5천

[포교원]
- 위치 : 안양
- 총평 : 65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방3개
- 시설비 약간, 시설 굿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경매상담, 부동산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량물건 보유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실 안내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대지 100평, 아파트 대단지 뒷편
- 산과 계곡이 있는 절
- 오존불, 각단 탱화 법당 완벽
- 방4개, 다용도 거실 큼
- 가액 : 전세 500,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가격 절충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2565-7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대출 승계 가능함

010-6628-8271

아름다운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 요사채1동(25평), 법당1동(33평)
- 정자(원목), 가로 5m 세로 3m
- 총평수 300평
- 가액 : 2억 5천(은행융자 5천 포함)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람

010-3889-7141
주지스님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 전철에서 5분거리
- 몽땅 2억(조절가능)

010-8861-1785

암자안내(마산)

- 위치: 마산 무학산 입구(교방동)
- 건물 : 2층 (1.2층 전체 콘크리트 건물)
- 주변부지 사용 가능
- 가액 : 전월세, 보증금 3백만원, 월 13만원 시설비 5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7169-9878

다용도 주택 안내

- 위치 : 경기 양평 신복리 뒤는 산, 앞은 옥천시내 아신역에서 차로 5분거리
- 정남향(대지 257평 건물 40평) 지하암반수 마당 넓음.터와 주위에 약초 많음 (용도 :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등)
- 마당에 별채 6평
- 가액 : 4억 5천(실입주금 3억) 전세도 가능

010-4234-2536

도심 공원 내 사찰(급)

- 위치 : 부산(공원내 계단 있음 10M 버스도로 옆)
- 대지 : 약 98평
- 1층건물 : 법당 40평, 기도방 5(2가구 가능) 2층 : 법당 40평, 기도방 2
- 텃밭 약 20평(과수나무)
- 가액 : (대출 7천 별도) 현금 2억 2천

010-5511-7000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한림
- 평수 : 66평
- 건물 : 1층 24평(요사) 2층 21평(법당)
- 시설 : 삼존불, 신중, 영단
- 가액 : 9천만원(조정가능)

010-4951-910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 법당 :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 목조기와 7평(단청, 30년됨)
- 요사채 : 철재스레트 30평,방5개, 주방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임야 : 50평
- 가액 : 1억 8천(융자 6천만원)

010-3875-6305
041-752-059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45평, 건평 92평
- 4층 건물
- 건물 : 철근 콘트리트구조 산밑 아담하고 조용한 곳
- 가액 : 6억(절충가능)

010-5931-1071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중앙로 22, 2층 ● 법당 50평
- 아미타삼존불, 약사삼존불, 지장보살,
- 신중, 산신, 용왕, 영가단, 각후불탱화
- 소불 108불 이상, 음향시설, 냉난방기 종, 조명 등 집기일체
- 방,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스님의 건강문제로 급 인계하려합니다. 기도스님 보살님 대환영(몸만오시면됨)
- 가액 : 보 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700만원

스님직통 010-3015-5875

토굴을 구합니다

- 산속이나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 싼 값으로 양도하실 분이나 임대로 빌려 주실분은 연락주십시오

010-7678-5536

합천 무학동굴 앞 대지 및 전원주택 매각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2번지
- 대지417평(1,379㎡), 건물(전원주택)44평(147.36㎡)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529-8번지
- 임야 211평(699㎡)
- 특징 : 합천무학동굴은 조선시대 왕사인 무학대사가 어린시절 수련하였던 동굴이며, 동굴에는 무학대사가 솥가락으로 팠다는 샘이 있다.(경남문재재연구원의 합천무학대사 유허지 발굴 보고서 및 합천 향토문화지 등에 기록)고 강숙자 보살이 무학동굴앞 부지를 매입하여 1999년부터 무학동굴을 관리하고 있었다.(건물은 2008년도 신축함)
- 가액 : 4억

010-2078-959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상인동 아파트 대단지
- 약 80평중 법당 40평
- 삼존불 외 소불 200, 신중, 영가전
- 방4개, 화장실, 욕실, 창고, 옥상가능
- 가액: 보증금 무, 월세 80만원 중간세도 가능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243-011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5번길 17 (거제시장 안쪽 통닭골목)
- 3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주방, 욕실, 창고 등 보신후 결정
- 가액: 보 5백만원, 월 60만원 (60평 정도됨)
- 시설비는 보신 후 결정

010-8385-2447

멋진2층전원주택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포교원(급) 안내

- 위치: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 1호선, 동묘역 2번, 3번 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가격 절충, 시설비 1,600만원

010-3722-27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 토지 : 대지 200평, 답 760평
- 건물 : 45평 (후불탱화, 지장보살 봉안)
- 방향 : 남향
- 야산에 위치한 아담하고 조용한절
- 전기, 전화, 인터넷 가능

010-2831-8573
(주인직접)

사찰안내 또는 전세

- 위치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586
- 목조 법당 25평, 요사콘크리트 슬라브 50평
- 심야보일러, 전 다소
- 가액 : 3억 5천만원 전세가 6천만원

010-5780-1415
033-762-2494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임법당(급)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성당시장 약 5분거리
- 평수 : 대지 약 47평, 건물 약 27평
- 가액 : 1,000만원 월 25만원 보시고 합의 후 결정

010-5387-6767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IC 얼음골 방향 15분 거리
- 잣나무 숲과 계곡의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중, 대지 328평
- 2층 건물 1층 명상홀 및 요사 59평 2층 대웅전 24평 ● 가액 : 6억
- 대나무숲속 삼성각 4.5평 별도 요사채 28평과 창고 20평
- 원통문 수월관음, 연화탑, 포대화상 등 석물 농지에 사과나무 220주 호두나무 40주

010-4895-2050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 2층 전체 100평 (법당 50평, 방5개, 욕실)
- 시설, 집기 일체, 시설비 없음 즉시 법회가능
- 가격: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010-8676-3423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10분거리
- 대지80평, 2층법당 15평
- 1층 요사채 27평 창고 20평 방1칸
- 대중교통시내버스
- 가액 : 1억 6천5백 대출 4천만원 안고 1억 2천 5백만원

010-8794-1257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 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 몸만 오시면 됨

010-7589-9600
010-3753-7844

암 자 안 내

- 위치 :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 內
- 장군봉, 임금봉, 신선봉, 천왕봉, 문필봉 동학사를 바라보며 앞쪽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좌측에는 신도안의 기운이 뻗치는 위치에 자리한 백만불의 조용한 암자
- 인연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곳
- 가액 : 18억

010-9228-674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200평, 건평40평, 법당, 요사채, 방3개
- 친견실,공양간,샤워화장실2개 밖에 남녀화장실,산신각,용왕연못 등 시설일체 방문요망
- 가액 : 2억 5천 8백만원
- 급 양도

010-5427-369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물 2채
- 대웅전, 산신각, 별도 황토방2개
- 주방, 욕실, 조경,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버스터미널 도보5분거리
- 가액 : 3억 8천만원 (융자있음)

010-4561-2149

임법당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63-35
- 3층 건물중 1층
- 삼존불, 탱화, 에어컨
- 평수 약 20평, 거실크고 방은 1칸, 주방, 화장실, 창고 2동, 전용주차장
- 가액 : 보 1,500만원 월 49만5천원 시설비 무료보시

010-4382-3448

암 자 안 내

- 위치 : 하동군 적량면 지리산 자락
- 법당 외 3동
- 등기 200평
- 실사용 가능 공간 700평
- 가액 : 2억 1천만원

011-9206-846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전망좋은 산사
- 명산센터, 실버센터, 수련원, 연수원 등
- KTX역 시내중심지, IC 등 10분거리
- 토지 3,600평, 건물 100평
- 가액 : 23억 7천만원

010-5655-463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전주 도심사찰
- 고찰터부지 250평
- 법당, 요사, 삼성각 고려석불 문화재 자료 고탱화 후불 지장 조선전기 목불(약 600년), 복장물 있고 바로 문화재 될 수 있음
- 가액 : 5억

010-3080-9393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 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공양간 외 부속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급 2억 8천 (부득이한 사정으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
- 평수 : 법당 30평, 삼성각
-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5개. 다락방, 욕실, 화장실3개, 주차 10대가능
- 신도시 형성 아파트 3만세대 고속도로 5분거리
- 가액: 5억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북구 시장입구
- 3층 건물 2층
- 평수 : 약 53평
- 방3, 에어컨 3대,최고시설 완비
- 보증금 900만원, 월 40만원 도시가스 시설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8770-3813

절 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 대지 7000 평
- 옛 수도사 절터임
- 가액 : 6,500만원

010-3539-8360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아늑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노천불
- 목조건물, 전통법당
- 요사채 40평, 식당 40평, 창고 60평
- 대지 1,250평(종교부지)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6억 5천만원

010-4028-8896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사천시 산세좋은곳, 사천 IC 15분 거리 위치
- 면적: 부지 55,000제곱 건물 270㎡
- 법당, 삼성각, 요사채 2동, 황토방1채
- 용왕당, 연못, 채전밭(유실수 있음)
- 산과 계곡, 마을 가깝고 포장도로
- 방7, 화장실4, 심야전기, 화목보일러
- 가액: 4억 8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연산동)
010-5346-4138
051-861-2233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 IC에서 15분거리
- 부지 187평, 건물 30평, 부속건물 17평
- 도지세 년 15만원
- 가액 : 9천 5백만원

010-7765-2720

절 터 안 내

-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계곡속
- 천하명당 절터 434평
- 입구에 폭포있음, 지방도 바로 옆
- 전기, 관정 공사 완공 하천부지 일부사용
- 가액 : 5,800만원 (가격 절충)
- 장난전화 사절. 꼭 필요하신분만, 공부하실분만 전화주세요

010-2499-3001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토마스 비엔 · 비버리 비엔(명상 지도자)

〈7〉 사랑

不二性 발견하는 사랑의 기술 '경청'



중독 회복, 건강한 관계가 핵심

중독 물질을 갑작스레 중단하고 나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기존에 맺었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다.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랑의 관계는, 중독에 빠진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강력한 보호막이기 때문이다. 크리팔루(Kripalu) 요가로 유명한 암리트 데자이(Guru Amrit Desai)는 이런 말을 했다. "여럿이 함께 있음은 혼자만의 의지력보다 강하다." 건강한 사람들과 맺는 건강한 인간관계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 예방접종을 맞는 것과 같다. 지지해주는 인간관계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

중독에서 흔히 나타나는 인간관계 가운데 공동의존 관계가 있다. 이는 누군가가 중독에 빠졌을 때 그를 보살피는 가족에게도 심리적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중독에 빠진 가족 구성원을 '중독자'로 낙인찍고 비난하기 쉽다. 이로써 알코올이나 약물에 빠진 사람은 건강하고 지지적이며 생산적인 관계를 갖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중독에 빠져 있던 사람이 중독에서 떠나면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주되, 굴종하지 않는가'이다. 치료사들은 이 문제를 위해 각종 듣기-말하기 기법, 합당한 자기주장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한다. 그러나 기법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법들이 추구하는 바, 즉 자신과 상대방을 지금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이 기법들은 모두 '나 대 당신'이라는 대결과 배척의 느낌이 아니라, '함께 우리'라는 느낌을 목표로 한다.

'함께 우리'라는 느낌은 단지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생겨나지 않는다. 경쟁심이나 비난, 죄책감에 휩싸여 있다면 '함께 우리'를 경험할 수 없다. 여기에는 일종의 길항 관계가 있어서 '함께 우리'를 경험하는 만큼 '내 이익만 고수하려는' 생각은 줄어든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

상대방이 나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점에 이성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성이나 말보다 깊은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낭만적 환상은 이상적인 상대가 내게 다가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거라고 속삭인다.

낭만적 사랑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어디를 가든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된다. 오늘날처럼 개화된 시대에도 많은 소녀들이 여전히 자신의 결혼식 날이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채 살고 있다. 그런 소녀들이 결혼 이후의 삶, 즉 현실의 남자와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상황은 여자들만큼이나 남자들에게도 힘겹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갖는 기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남자들의 존경받고 싶은 욕구, 보살핌 받고 싶은 욕구,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 등은 여자들처럼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 때문에 그 욕구들은 더 강할 수도 있고, 다루기도 더 어렵다.

융 심리학은 이 문제에 도움이 되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융에 따르면 남자는 자기 안에 아니마(anima)라는 무의식적인 여성적 면을 갖고 있으며, 여자는 아니무스(animus)라는 무의식적인 남성적 면을 자기 안에 갖고 있다. 사랑의 황홀감은 일종의 투사 과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 성(性)이 자신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여기게 된다.

문제는 현실의 어떤 여성도 아니마를, 또 어떤 남성도 아니무스를 완벽히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상대를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는다.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존중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간단하다. 즉 상대에게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이 문제이다.

경청하며 사랑하라

당신은 최근에 배우자와 자녀, 친구를 '진정으로' 본 적이 언제였는가? 우리는 자신이 상대에게 바라는 바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있는 그대로 본다' 함은 문자 그대로, 상대방의 시각적인 전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자비의 눈으로 살아 있는 존재를 본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말을 깊이 들었던 때는 언제였는가? 상담가인 나는 상대방의 말을 깊이 듣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안다. 상담자는 자신의 개인적 반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나의 내담자 중 한 사람은 야외에서 개에게 줄을 매야 한다는 법규에 화를 내며 말했다. 개줄을 풀어놓기 좋아하는 그는 개 없는 사람들의 무관용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으로 나 역시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개줄을 풀어놓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조깅을 할 때 뒤에서 줄 풀린 개가 쫓아오면 불안했던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나는 실외에서 개줄을 매야 한다는 법규에 대해 한편으로 반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찬성한다.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나는 그의 말을 깊이 있게 듣기가 쉽지 않다.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잠시 나의 의견을 내려놓고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나는 그의 의견 아래 잠재하고 있는 외로움을 함께 느껴야 한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개가 친구와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이라야 그를 이해할 수 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중독 회복 핵심은 '관계'
> 自 · 他 사랑하는 법 배워야
> 내 의견 내려놓고 경청하면
> 긴밀히 연결된 '우리' 발견

자신의 견해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 심지어 불교적 견해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한다. 이것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만약 나의 의견이 나와 상대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공통된 경험보다 서로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공통된 경험이야말로 서로간의 차이점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무엇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바로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이다. 적극적 경청은 깊이 있는 수련법으로, 상대방의 관점과 경험에 마음을 여는 훈련이다. 당신 자신의 관점을 일시 정지시킨 상태에서, 상대방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풀어서 다시 말하는 간단한 행동이 어떻게 그토록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에 관한 수많은 이론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적극적 경청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한 칼 로저스의 표현을 좋아한다. 로저스는 적극적 경청에 관한 복잡한 이론화 작업을 오랜 기간 진행했다. 그리고 경력의 말년에 이르러 그는 상대방의 말을 풀어 말하는 반영적 경청(reflective listening)이란 '상대방의 말을 내가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반영적 경청을 통해 청자의 초점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단순한 노력에 계속해서 집중될 수 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능력은 두 가지 능력이 아니라 한 가지 능력이라고 했다. 즉 남을 사랑하는 능력과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 타인을 비난하는 행위는 곧 자신을 비난하는 내면의 비판자를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내면의 부정적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향한다. 그러나 이 에너지는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만다. 왜냐하면 아주 깊은 차원에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다. 불교에서 말하듯 우리는 불이(不二), 둘이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일기 쓰기, 명상, 꿈, 재창조, 각종 테라피 등 이 책에서 다루는 모든 중독 치유법도 깨어 있는 마음으로 자기 안의 중심을 되찾는 방법들이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묻는 선의 일화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 그것은 추상적인 대답이 아니라 바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이다.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때, 즉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재 이곳에서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로 돌아올 때 당신은 삶으로 돌아온다. 삶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 당신이 자신과 타인을 위해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 글은 〈중독이 나를 힘들게 할 때〉(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당신도 명리학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주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 책자는 초보도 만세력에서 일주만 찾으면 성격 및 당해년 운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포교를 하다보면 제가자들이 많은 것을 물어오는데 부록편에서는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우혜안 –

慧眼決書

발행인 : 초암사 주지 혜 안 스님
주문처 : 초암사 043-215-1569
010-9405-818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내수읍 초정길 156-9)
입금계좌 : 농협 317-02-322143 (우복진)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 1644 - 9108



배종훈의
명상카툰

‘그럭저럭’

동화나 영화 속 장면을 상상하며 찾아가는 곳은 대부분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실망을 가득 안고 돌아 나오면서 그래도 스스로 위안한다면 그래도 아직은 내게 세상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남아 있다는 믿음이었다.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더 이상 놀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어지는 것 같다. 내가 믿고 있었던 무언가가 실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동화나 소설, 영화에 공감해 울고 웃는 자신을 더 이상은 발견할 수 없거나, 내가 사랑하고 아낀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서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에 익숙해진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늙어버린 자신을 마주하는 날이 아닐까? 다시 기대하고, 무너지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생이 아름답지 않을까? 세상은 다 그럭저럭 이라는 생각이 자신을 노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나를 흔들어대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여행을 왔지만 나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배반한 삶을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라 여기고 타협해 살아왔다면 내 생에 행복은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윤종헌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② 아이들이 원하는 것

끝까지 들으면 마음이 열린다

“아빠한테 원하는 거 3가지만 얘기해봐.”

대학교에 갓 입학한 딸에게 물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충격적이다.

“음, 전화하지 말 것, 문자하지 말 것,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지 말 것.”

“….”

한마음아버지마당에서는 첫 주를 마치면 아버지들에게 아내와 자녀가 원하는 것 세 가지를 알아오라는 과제를 준다. 단 조건이 있다. 아내와 자녀가 자신에게 원할 것이라 생각되는 세 가지를 본인이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물어보도록 했다.

전 회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의 아버지세대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이자 가치이다. 자녀들도 당연히 아버지는 가족 부양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 능력과 건강만 갖추고 있다면 그 외에는 아버지에게 특별히 바랄 것이 없을 거란 생각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아버지들이 조사해온 자녀들의 생각은 그런 예상과 많이 벗어나 있었다. 우선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잔소리 듣는 걸 제일 싫어했다. 잔소리라니…. ‘잔소리는 엄마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요즘 아버지들은 예전 아버지들에 비해 자녀에 대한 잔소리가 만만치 않게 많다. 아니, 엄밀히 말해 잔소리 할 시간이 없었다. 밖에서 일하느라 집에 안 들어오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집에 들어와도 엄마가 아버지에게 자식 일을 시시콜콜 의논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의 아버지들은 상대적으로 나아진 경제생활 덕분에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자녀의 가정과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그 관심이 자녀에게 잔소리로 표출되는 듯하다. 더군다나 예전처럼 자녀가 많지도 않아 대부분 많아야 둘, 셋의 자녀를 둔 요즘의 가족 형태에서 자녀 하나하나가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과 딸은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다. 아직도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딸은 보호받아야 하고, 잘 키워 좋은 젊은이 만나 시집가면 그걸로 부모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한다(물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 생각조차 많이 변할 것이라 예상된다). 반면 아들은 지금의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지켜온 가장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물려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띤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요즘은 외아들이 점점 많아져 장남 차남 구별도 힘들어지는 세태라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감이 오히려 예전보다 커진 경향이 있다.

자, 이렇다보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한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무엇이 도움이 되었고, 아쉽고, 실수했던 것은 무엇인지 주마등처럼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의 인생 경험을 아들에게 설파하며 ‘너는 이 아버지가 잘한 일은 본받아야 하고, 아쉬웠고 잘못한 일은 답습하면 안 된다’ 는 사명감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들이 자라던 시절과는 그야말로 천지차이다.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환경에 놓여있다. 사회에서의 성공과 높은 급여보다는 나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내가 행복하려면 어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다.

> “
> 자신의 젊은 시절 실수
> 자녀는 범하지 않길 바라며
> 솔직한 대화 하고 싶지만
> 잔소리로 그치는 경우 많아
> 자녀 말, 온 마음으로 들을 것
> ”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바라는 것이 아버지 생각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요즘 같은 세상에 경제생활은 당연히 아버지가 해결해야 하는 기본 의무사항이고, 내가 진짜 바라는 건, 내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는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일방적인 자기주장과 인생 경험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 경험이 많은 아버지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훈계가 아닌 대화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현실이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는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른다. 아버지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듯이 대화하는 법을 배운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버지에게 대화는 직장에서의 회의, 어릴 적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어쩌다 들었던 훈계가 대부분이고, 여기에는 거의 지시와 복종만 존재했다. 이런 아버지들에게 자녀와의 동등한 대화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오늘 너와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으니,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보자”하고 막상은 “그게 아니고, 너는 도대체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라는 마무리와 훈계로 대화를 끝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모처럼 마련한 자녀와의 대화는 서슬 퍼런 아버지와 한숨 쉬는 자녀의 모습으로 그려곤 한다. 이것이 보통 가정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 패턴으로 굳어졌다.

이를 위해 ‘한마음아버지마당’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한마음으로 대화하는 법을 연습한다. 이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 듣는 것’이다. 우선 2인 1조 짝을 지어 일정 주제를 두고 5분간 이야기를 한다. 한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듣기만 한다. 그 다음 들은 사람은 다른 자리로 옮겨 자기가 방금 들은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결과는? 대부분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린다. 왜 그럴까? 안 듣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대화할 때 남이 이야기하면 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일이 많다. 자녀와의 대화도 마찬가지다. 자녀의 이야기를 온 마음으로 듣고 자녀의 마음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이다.

과제 수행 후 아버지들은 대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기만 했더니 그동안 몰랐던 자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는 소감이 많았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데 힘쓰겠다는 다짐에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물었다.

“아빠한테 원하는 거 3가지만 얘기해봐.”

“전화하지 말 것, 문자하지 말 것, 언제 들어 오냐고 물어보지 말 것.”

“넌 어떻게 5년 전이랑 바뀐 게 없냐?”

“아빠가 안 변하니까 그렇지.”



사찰의 감로수를 시걸포에서도 느끼세요!

시걸포는 인공적으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아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천연수로서 대자연에서 정화된 암반수와 같은 건강한 감로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탁월한 안전성
· 인체에 유/무해 성분 선별 제거
· EPA 미생물 기준(99.99%) 박테리아, 바이러스, 시스트균을 별도의 화학약품 처리없이 만족시킵니다.

세련된 디자인
작고 안정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구현한 세련된 구조로 성능은 물론 주방의 컨셉과 스타일리쉬한 인테리어로도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독보적 기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선진 정화 기술로서 음용수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걸포의 독자기술로 개발된 스트럭처드 매트릭스[Structured Matrix]를 채용하여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정수기입니다.

엄격한 검증
세계의 유수 연구기관이 인정한 안전성 및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특히 미국 EPA(미국 환경청)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해한 미생물(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동물)을 제거하는 장치의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입니다.

뛰어난 물맛
물에 용해된 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을 확실하게 제거하여 천연 미네랄은 그대로 통과 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한 본래의 물맛으로 되돌려 줍니다.
특히 시걸포는 다도생활의 필수품으로 차의 맛과 향을 더욱 풍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국내와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는 시걸포 정수기
· 타워팰리스 1차, 2차, 3차 / 롯데캐슬시리즈 / 건대 시니어타운 외 다수
· 일류 요리사 및 특급 호텔을 매료시킨 시걸포
· 보잉사, 대한항공, 일본항공 등 수 많은 항공사가 선택한 시걸포
· 소말리아 내전과 유엔 평화유지군 등의 구호 활동에 사용된 시걸포

판매원 현대불교현불샵 | 제조원 General Ecology, Inc. USA | 한국총판 (주)이앤알인터내셔널

문의 080-866-1080
상담 후 카다록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122호 현대불교
2016년 11월 16일(10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어느 것도 찰나찰나 아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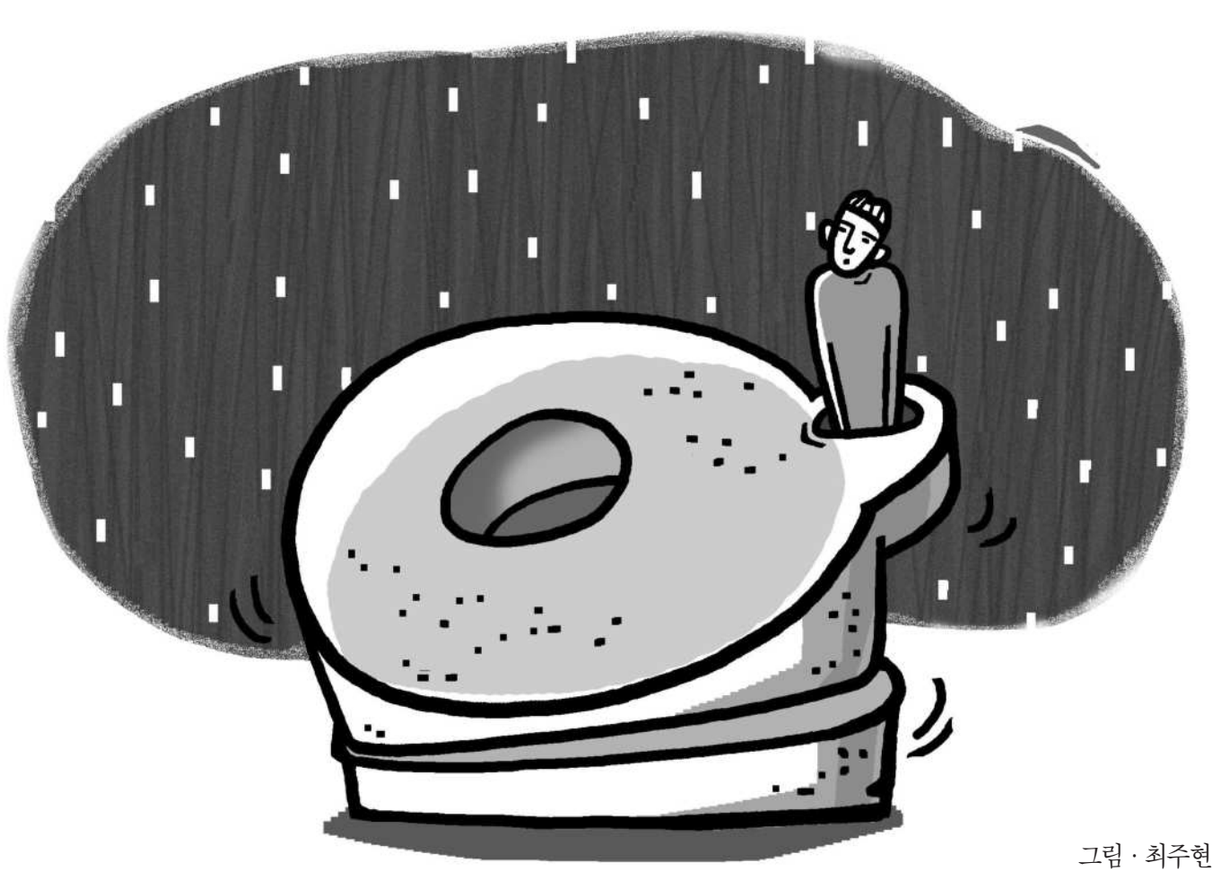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편히들 앉으세요, 스님도 편히 앉고. 우리 이 도량에, 법당에 여러분이 꽉 차진 않았어도, 단 한 분이라도 여기 앉아 계시면 이 도량이 꽉 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고 이 허공에도, 이 도량에도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저 풀 한 포기도 우리의 생명 아닌 것이 없으니까요.

이 도량에서도 공부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서 생사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주어져야 살기가 좀 더 원만하게 돌아갈 것이며, 이 미국 국내 자체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도 그렇고 이 도량에도 그렇고, 전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뭉쳐 돌아가는 그 힘이 여러분을 다 살리실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해 나가는 데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주인공이다 하면 여러분이 계신 이 자체 내에 바로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변소에 가니까 거기에 부처가 있고 법신이 있고 화신이 있는 것이지요. 또 '법신, 화신' 이러니까 따로 있는 줄 알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면 바로 부처고 여러분이 생각을 낼 때에는 법신인 것이요, 여러분의 몸뚱이가 움죽거릴 때는 화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삼위일체가 함께 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바로 부처는 계실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삼위일체로 한데 합쳐서 찰나찰나 돌아가니 바로 여러분의 마음 그 깊숙한 곳에 주인공은 계신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은 맷돌 돌릴 때의 심봉과 같고, 맷돌은 여러분의 마음과 같고 그 맷돌이 돌아가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가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 그걸 따로따로 보시지 말고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내 주인공이 나를 형성시켰고 병이 났어도 내 주인공만이 고쳐 줄 수 있고 내 주인공만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추어 가지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진실하게 믿고 지켜보는 그 관법을 아셔야 됩니다.

둘째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첫째, 평등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스스로 평등해지니까, 그렇게 평등한 마음을 가지시고 좀 더 넓혀서 아량을 가지시고, 또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평등한 행을 하실 때에 부드러운 말도 나오는 거니까 둘이 아닌 도리를 가정에서도 모두 아셔야 합니다.

여기는 미국 사회라 한국과 같지 않아서 부부가 다 나가는 그런 집안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빠를 이틀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하루 24시간을 온통 다 아빠와 엄마가 서로 못 보고 작업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냉장고 문 밖에라도 메모를 붙여 놓으시고, 남편한테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애들한테도 "너희들 참 사랑해. 근데 가정이 살려니까 엄마하고 모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요 음식을 요렇게 넣어 놨으니 꺼내 먹어!" 하고 써 놓으면 애들이나 어른이나 그걸 보고 사랑을 느끼는 마음이 될 수 있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이탈되지 않는 그런 애들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복하고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부드럽게 말해 주고 또 그 모든 잘못된 거는 주인공에 바로 맡겨 놓고 부드럽게 말을 해 줄 수 있다면 따뜻한 데로 고이기 마련입니다. 애고 어른이고 간에 추운 데로는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죠. '어서 집에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나게끔 만드시는 것이 바로 부모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잘못됐어도 "너 왜 인제 들어왔어, 공부하지 않고?" 뭐 이러니저러니 욕을 하고 그렇게 너무 몰풍스럽게 말을 한다면 남편이고 자식이고 간에 따뜻한 데로 고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점점 냉기가 돌아서 보금자리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으로만 돌게 마련이고 아무리 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깥으로 돌 때는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가는 데 가정에 충실한 그런 멋진 여러분이 돼야만이 가정도 이탈되지 않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부터 되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 믿으려면 부처님 믿는 그 마음과 더불어 사람이 되고 또 지혜롭게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를 이끌어 가면서 나라에 충성하고, 불쌍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혜롭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마음, 그것이 아마 사람이 사는 본의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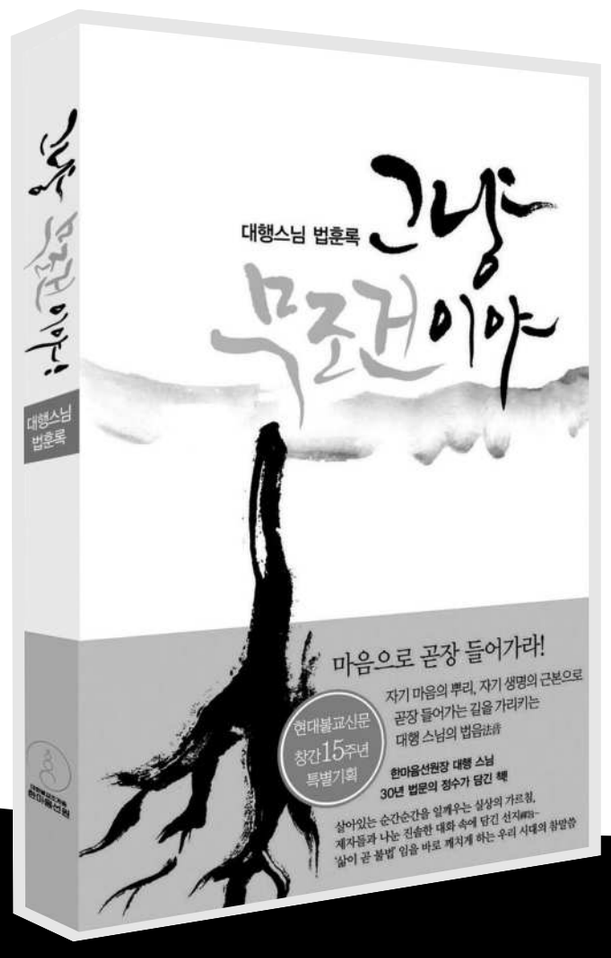
또 셋째는, 우리가 지금 인간 된 도리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 과거에 악이든 선이든 또는 크든 작든, 잘못됐든 잘됐든, 살인을 했든 또 남을 살렸든 이런 인과가 뭉쳐서 지금 여러분 몸속에 든 그 생명들이 전부 그 의식들입니다. 그 의식들이 뭉쳐 있기 때문에, 그 의식들이 뭉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았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난 거지, 그게 아니었더라면 또 태어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과를 가지고 나온 여러분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영혼이 엄마 아빠의 뼈를 빌리고 살을 빌려서 그 과거의 인과가 모두 담아져 가지고 내 몸뚱이 하나가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면세계도 한마음으로 뭉쳐서 돌아가니까 그 한마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배인이 돼야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몸과 마음 내는 거, 마음 내기 이전, 그렇게 삼합이 같이 돌아가면서 그 여러 마음들이 같이 돌아갑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순화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순응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지수화풍이 거기 대두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물이 없이 돌아가며 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서 이 도리를 모른다면 참 어리석다고 볼 수 있겠고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또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도 있죠. "이 모든 부처님의 뜻이 한데 합쳐 우주 전체, 삼라만상 대천세계로 두루 하시니…." 그것을 비로 비유한다면 비가 내려서, 수증기가 오르고 내리지 않습니까? 오르고 내려서 그 깊은 물속에 모든 그 물이 한데 합쳐서 수증기로 오르고 내리면서 여러분에게, 산천초목도 물론이거니와 풀 한 포기도 빼놓지 않고 다 두루 그 물을 주실 때에, 그 물이 저 독사한테 들어가면 독사가 돼 버리고 선지식한테 들어가면 아주 선지식이 돼 버려.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렇게 똑같은 물방울이건만 그 물방울을 집어 먹는 그 부분에 의해서 독사가 되고 독사의 피가 되고, 선지식의 피가 되고 소의 피가 되고 저 풀포기의 피가 되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두루 화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거니와 그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부처님께선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건질 때 부처님의 응신이, 빗방울이 누구누구를 막론해 놓고 그냥 전부 어디든지 적셔 주듯이 부처님의 마음이 그렇게 두루 해서 적셔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 칼도 강도가 잡으면 그 칼이 강도가 되는 겁니다. 강도로 써지죠. 근데 그 칼이 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좋게 먹이기 위해서 다뤄지는 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묶여져서 옴쭉을 못하는 사람의 끈을 잘라 주는 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이고 악이고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거지, 그리고 선이고 악이고 여러분이 행하는 데 달려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이야 어찌 다를 수 있겠느냐

☞ 25면에서 계속

있지 딴 데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독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둘이 아닌 줄 알고 그 마음을 녹인다면 독은 없어집니다.

옛날에 원주에서 이런 예가 있었죠. 글쎄, 어떤 애가 길을 지나가다가 독사한테 물렸습니다. 근데 그 독사가 물고 말입니다, 한참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걔도 애인데 말입니다, 나무하러 갔던 애인데, 또렷이 쳐다보면서 하는 소리가 "네가 나를 물었으니, 집에 우리 엄마가 아파서 지금 나무도 못하는데 내가 발목이 이래서 나무를 못하면 우리 엄만 죽어. 그래, 너는 너희 엄마가 없니?" 이러면서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울면서. 그러니까 그 뱀이 그 소리를 알아듣고 말입니다, 어디로 어디로 가더니마는 진흙이 묻은 풀잎 하나를 갖다가 물고 왔더라는 겁니다. 그 애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 거기다 붙여 주더랍니다. 그 입으로 거기다 이렇게 놓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손으로 이렇게 눌러 놨더니 쪼끔 앉아 있으려니까 그냥 맑은 물이 줄줄줄줄 밑으로 흐르더랍니다. 그러더니 그냥 언제 물었더냐 하더랍니다. 그런 짐승에게도 아무 기탄 없는 그 깨끗한 마음이 그냥 그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뱀이 말을 알아듣고 그걸 갖다가 주어서 나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서로가 마음이 통하면 이 물질은, 즉 말하자면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이야 어찌 다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의적인 행동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뱀도! 사람을 살리고자 해서 뱀도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는 그런 이치를 나는 잘 압니다. 뱀이 물어서 고장이 났으면 뱀이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옛날에 내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생명들의 그 모습들이 다르다 이러지마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착하면 서로 다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예전에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부자 대갓집에서 집을 헐어서 고치려고 하는데 큰 구렁이가 나왔어요, 그 집에서. 근데 그 집의 젊은이들이 모르니까 그걸 그냥 토막토막 내서 저 길바닥에다 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토막토막 낸 것이 그냥 펄떡펄떡 뛰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참 안됐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 마음이 안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헌 통에 집게로다가 집어서 넣어 가지곤 저 모래톱이 있는 흙에다가 묻어 줬습니다. 밤 동산이라고 하는 데다가 묻어 줬거든요. 묻어 주고 기왓장으로 덮어 놨습니다, 비를 맞으면 썩을까 봐. 그렇게 했는데 얼마 있다 거길 지나가다가 그것을 헤쳐 보니까 간 곳이 없어요. 그게 썩었으면 거기에 구더기가 생겨야 할 텐데 간 곳이 없단 말입니다, 아예. 해 놓은 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묻어 놓은 구렁이를 한데 합치면 한 깡통이나 되는데 그게 가뭇없어요.

나는 사람들이 다 자면 저녁마다 풀숲이든 어디든 내가 앉아 있고 싶은 데 그냥 앉아서 30분…. 그거는 30분이다 한 시간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앉아 있고 싶으면 별을 쳐다보고 나 보고 이러면서, 그 재미있는 거는 말도 못해요. 그 정말이지 저녁이 돌아오면 그렇게 조용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별성 하나하나가 나 아님이 없고 풀 한 포기 하나하나가 나 아님이 없으니 그 벗들하고 노느라고 아주 정신이 팔렸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잠시 이렇게 앉아서 참, 저녁이 돼서 별이 뜨고 그래서 좋아서 쳐다보고 그러는데, 쳐다보니까 그 구렁이가 말입니다, 공중으로 저, 광목 있죠? 하얀 광목. 그것이 퍼르르르 날더니 그걸 타고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저 꼭대기로 올라가더니마는 탁 보이는데 부처님 상이 그냥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게 화해서. 몸뚱이는 벗어지고 그 마음이 화하면 마음이 바로 사람도 될 수 있고 부처로서 한마음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게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거기다가 묻어 줄 때 벌써 나로 변했고 내가 변해서 벌써 그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뱀도 모두가 언짢을 때는 도와줍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됐든지 그 용도에 따라서, 어려움의 용도에 따라서 모두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 다니면서 소에 치인 사람, 뱀에 물린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극히 한생각만 하면 그 병이 나았단 말입니다.

그건 왜냐? 모두 그 용도에 따라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그러니 한마음으로 뭉쳐지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 몸뚱이 속에 천차만별로 들어 있는 그 이름들이 다, 의식들이, 그 생명들이 다 나 아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그걸 한데 합쳐서 부르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그렇게 자기 사람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 이름을 어떤 걸 부를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장에 있는 그 모습들이 나라고 하겠습니까, 또는 간장에 있는 생명들이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 생명이 그렇게 많고 내 모습이 그렇게 많고 내 마음이 그렇게 천차만별로 화해서 자꾸 나투고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는 것도 없고 안 끊는 것도 없느니라. 색과 공은 그냥 그대로 둘이 아니어서, 바로 여러분이 움죽거리는 대로 공해서 돌아가니까 둘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 그 뜻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그렇게 작은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크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이 돌아오는 용도에 따라서 그것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면할 수 있고, 과감하게 밀칠 수 있고 들일 수 있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인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오붓이, 사람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오손도손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얻을 바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럼 질문할 시간을 우리 가져 봅시다.

질문자1(남) 얼마 전에 송광사에서 돈오돈수가 옳으냐, 돈오점수가 옳으냐 하는 걸 가지고 학술 대회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담박 깨닫는 게 옳으냐, 깨닫고 나서도 더 수행을 하는 게 옳으냐 하는 걸 가지고 뭐 토론들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큰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큰스님 어린애를 금방 낳아 놓고서는 어른이 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어린애를 금방 낳아 놓고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라 그런다면 못하죠. 그런 거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도랑 없는 도랑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거를 도랑으로 쳤거든요, 이거, 이걸요. (가사의 골을 손가락으로 그어 보이시며) 그래서 들어갔던 구멍으로 과정을 거쳐서 다시 나왔을 때 돈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돈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오와 점수는 둘이 아닙니다. 탑을 쌓을 때 쌓는 과정과 그 한 찰나에 봉우라지 올리는 그거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봉우라지가 없다면 탑이 없고 탑이 없다면 봉우라지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둘 다 따로따로 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둘이라고 보십니까? 돈오가 마음이고 점수가 만약에 몸이라면 어떻게 그걸 둘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싸움을 하기 이전에, 아랫사람들이 그러더라도 "야, 돈오와 점수가 어찌 둘이겠느냐? 둘이 아니니 그러지 말라. 어떻게 얼음과 물과 둘이겠느냐? 그러지 말라. 똥물이나 구정물이나 핏물이나 모두 개울물이 돼서 한데 모여서 바닷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젖는 것이니라. 똥물에도 젖고 구정물에도 젖고, 말을 하자 하면 이름해서 그것도 젖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 줘야지 아, 돈오가 옳으니 점수가 옳으니 이러고 싸움을 해야만 옳겠습니까? 만약에 학술적으로 그런다면 싸움이 그렇게 벌어질 수가 있지만 뜻으로써 선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립니다, 이게. 아니, 얼음입니까, 물입니까? 물이 옳습니까, 얼음이 옳습니까?

대중 가운데서 다 맞죠, 뭐.

큰스님 그런데요, 뭐. 그러니까 이 뜻이라는 거는 그렇게 무궁무진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린애를 금방 낳아 놓고선 기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견성이라는 거는 어린애를 금방 낳아 놓은 거와 같고 또 우리가 학업을 마치고 교양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사회 상식 이런 거를 모두 배우려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회에 딱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딱 낳았을 때는 돈오지마는 그것을 배울 때는 점수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점수와 돈오가 둘이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일테면 그렇다 이거죠.

질문자2(남) 깨치는 과정이 어떤 분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서 밝아지는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계기로 해서 확 깨치는 단계가 있고 그런 것을….

큰스님 아, 이런 예도 있죠.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마는 경허 스님도 아주 대 강백으로 유명하게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경전이라는 경전은 무불통지하고요. 그런데 호열자가 돌아다니는 마을에 들어섰는데 그거를 알아도 어쩌지 못했단 얘기입니다. 하룻밤 자고 가자니까, 죽으니까 빨리 달아나라고 그러거든요. 이 집 가도 그러고 저 집 가도 그러고. 그러니까 인심이 고약한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호열자가 돌아다녀서 사람이 전부 쓰러졌더라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살자고 그 고을을 벗어나서 나무 밑에 앉아서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더라는 얘기죠. 세상에 자기도 죽을까 봐 뛰어나왔거니와 그 사람네들을 하나도 어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직껏 배우고 여직껏 강의한 게 무슨 소용 있느냐 이래서, 다시 돌아와서 강당을 그냥 문 닫아걸고서 다 해체를 시켰단 얘기죠. 그리고 자기 공부를 시작하고 책을 다 태웠다는 얘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선에는…, 즉 말하자면 견성, 이거는 내면세계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견성을 해 가지고도 거기다 다시 뭉쳐 놓지 않는다면 미해진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 미해지느냐? 흩어지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가 견성했다고 온통 자기라고 내세웠을 때 벌써 착이 붙고 욕심이 붙고 아만이 생기고, 삼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견성을 했어도. 그래서 다시 뭉쳐 놨을 때에 둘이 아닌 도리를 그때 홀연히 알게 되죠. 그래서 "견성을 하고 성불을 해야 그 다음에 열반경지에 들어서서 자유인이 되느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 둘이 아니게 나툴 줄 알게끔 됐을 때에 비로소 그 원 하나 탁 놓는 거와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봉우라지 하나 탁 올려놓는 그것이 돈오다 이거야. 그러면 그렇게 이름을 해서 돈오지 그걸 어떻게 돈오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 경지에.

그러니 이 죽은 세상, 즉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접하는 때라 견성을 하고 나면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때 대 의정이 생기고 그때에 시공이 초월된 것도 거기서 배우게 되고 찰나찰나도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둘이 아닌 도리 배울 때. 그러니까 나 하나의 마음이 수천수만으로, 입자로 인해서 분자가 돼 가지고 화신으로 화해 가지고 이 털구멍을 들고 나면서 그냥 전부 응신이 돼 주는 그런 보살이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그것이 모두가 보살 아닌 게 없고 또 나 아님이 없고 이 도리가 나오고 그러는 거지, 그 도리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은 세상의 죽은 사람도, 보이지 않는 영혼도 보이는 영혼도 또는 생각이 없는 영혼도 생각이 있는 영혼도 모두 그냥 다 건질 수 있는 아주 광대무변한 그런 도리. 부처라는 건 어느 게 부처인지 모르는, 아니,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까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찰나찰나 아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한마음이 이 우주를 전체 덮고 전체 굴리고 전체 딛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갈라서 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할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이름 붙일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양면에서 돈오가 옳으니 점수가 옳으니 이런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요?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그러는 데서 속속들이 또 서로 토론도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호에 계속)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부드럽게 말해 주고
또 그 모든 잘못된 거는 주인공에 바로 맡겨 놓고
부드럽게 말을 해 줄 수 있다면 따뜻한 데로 고이기 마련입니다.

※위 법문은 1990년 11월 25일 모건힐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평화시위, 성숙한 민주주의 불꽃되길



연기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른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온 국민이 망연자실 나라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황당무계한 사건에 실망과 분노에 찬 국민들의 함성이 파도를 타고 점점 더 높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 대학가의 시위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으며, 남녀노소 국민들은 나라를 걱정하며 급기야 거리로 뛰쳐나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 피켓까지 치켜들고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촛불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돼 11월 5일에는 30만개의 촛불이 전국 곳곳에서 타올랐다. 주최 측에 의하면 서울 광화문광장에만 20여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추산한다.

시위진압을 위해 무려 220개 중대, 약 2만 명의 경찰이 배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며 질서정연하게 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시민들은 촛불과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밴드, 래퍼 등의 문화공연도 함께 했다.

아무런 물리적 충돌 없이, 기가 막힌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시종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의 모습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새로운 집회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과거 몸싸움과 폭력이 난무하던 시위현장을 떠올려 보면 큰 변화를 느낀다. 참여자들의 표정도 당당하고 뿌듯한 심정인 것 같다.

하야(下野)를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른 성난 민심에 밀려 박대통령이 두 번이나 대국민사과를 하고, 마침내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실권총리의 추천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아직도 정국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박 대통령은 읽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의 행보를 보면 최순실게이트의 각종 의혹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의 사실상 하야인 '완전한 2선 후퇴'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1553개 시민단체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라는 비상시국대책기구를 결성하고, 촛불시위를 주관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함께 앞으로 조직적인 대규모 집회를 열어가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온 국민들이 한꺼번에 시위대에 뛰어든다 해도, 지난 11 · 5광화문집회에서 보여준 비폭력 평화적 행진처럼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존심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폭력적인 권력을 동원하게 한다든지 불미스런 탄압의 빌미를 주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아시다시피, 촛불시위는 과거 동독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기도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저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축제의 성격도 띠고 있었지만 결국 비폭력 민주시민운동의 상징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끝없이 펼치는 달라이 라마의 불교사상에 입각한 비폭력 저항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있음에도 달라이라마는 "인간의 본질은 폭력을 싫어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지극히 고되지만 평화로운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과 후회가 얼마나 크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5% 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 그를 뽑아준 사람들에 의해 사실상 국민탄핵이 발동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역사적 소명이다. 아무리 어이없고 억울한 상황이라 해도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소통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만약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정치권력이 국민의 저항권 행사에 맞서 억지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정치권과 대통령은 위기극복을 위한 사태수습과정에서 모든 걸 비우고, 다 내려놓고, 애국애족의 마음 하나로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이는 국민들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에 바탕을 둔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정당성과 도덕성을 확인시켜주며,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하면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발언대

사찰음식의 정체성

불교계 대표 사찰음식점인 '발우공양'이 세계적 권위의 음식 가이드인 '미슐랭 가이드- 서울편'에서 별 한개를 받았다.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세계 유수의 식당 반열에 오를 수 있지만, 반대로 현재 사찰음식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미슐랭 별? 언젠간 없어질 수도"



적문 스님
평택 수도사 주지

미슐랭 가이드서 별 1개를 받았던 2개를 받았던 중요한 것은 사찰음식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다. 현재는 사찰음식을 연구하는 스님들의 교육조차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업화를 논하기 전에 사찰음식에 대한 스님들의 가치관 및 의식부터 정립해야한다.

사찰음식의 본질은 '수행자의 음식'이란 것이다. 즉 수행자의 가치관이 깃든 음식으로, 스님들은 음식을 요리할 때나 먹을 때도 음식에 담긴 철학과 의미를 되새긴다. 이는 사찰음식이 단순한 상업용 음식이 아닌, 그 철학과 본질적 뿌리가 지켜져야만 하는 이유다.

그런데 최근 사찰음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가치관을 이해하는 스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스님들의 인식을 바로잡아 줄 교육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사찰음식점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사찰음식 교육관'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스님들도 사찰음식을 배울 때 쉬운 것만 배우려고 하는데 이 마음가짐부터 고쳐야한다. 장 담그기 등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출발해 스스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찰음식점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요즘 사찰음식점이라며 우후죽순 생기는데, 오리 등 육류를 팔면서 사찰음식이란 이름을 내건 일반음식점이 적지 않다. 미슐랭 가이드 선정을 기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찰음식에 관심을 갖고, 상업화도 가속화될 텐데 그 전에 미리 확립해놓지 않으면 사찰음식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사찰음식 정체성 먼저 고민해야



정태겸
여행작가

미슐랭 가이드의 평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시선의 차이가 꽤나 크다는 걸 확인한 정도다.

나에게는 아무래도 사찰음식점 '발우공양'이 별 하나를 받은 것이 눈에 확 들어왔다. 하지만 이는 경사라기보다는 위기로 느껴지는 부분이 크다. 사찰음식 자체의 정체성, 어떤 것이 사찰음식인지에 대한 담론을 빨리 형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빠르게 이미지가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지의 빠른 소모는 결국 도태되는 길을 걷게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중에게 칭찬 받는 건 잠깐이지만, 대중이 실망하는 건 더 빠르다. 음식장사에 무슨 철학이 필요하냐고 묻거든 크게 해줄 말은 없다. 하지만 사찰음식은 반드시 철학이 필요하다. 수행자의 음식이 모태이기 때문이다.

굳이 모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 어차피 수행에 초점을 맞추면 대중들에게 어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중의 시선에 맞도록 적절히 포장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절밥'과 '사찰음식'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사찰음식이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래야 할 시점이다.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그럴듯 보기 좋은 요리를 내놓는 것보다는 무엇이 사찰음식인지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에 걸맞는 음식으로 다듬어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 반석을 잘 다듬어 놓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박수를 보내주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3개를 받는 것도 불가능은 아닐 것이다.

社說

직선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대중공사 참석자 60.7%, 법계 중덕 이상 대상 조계종 공식여론조사 80.5%. 총무원장 선출을 직선제로 하자는 여론 비율이다. 이처럼 직선제에 대한 종도들의 높은 열망에도 직선제 법제화가 중앙종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패의 해법은 사회에서 이미 증명됐다. 바로 민주화다. 발전의 원동력도 증명됐다. 바로 민주화이다.

총무원장 선출 직선제는 다른 말로 승단의 행정 민주화를 의미한다. 남녀, 연령, 법랍을 불문하고 총무원장 선출에 있어 똑같은 1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승단에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거대 사찰 · 문중이 지속적으로 총무원장을 배출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라 지적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직선제를 막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청정승가를 확고히 하고, 어른 스님을 공경하는 문화를 만들어 해결해야 될 문제다.

또 행정수반으로서의 총무원장 역할을 확고히 하고, 권한 분산을 통해 종단 내 권력 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막는다면 총무원장직을 둘러싼 선거열풍도 자연스럽게 수그러 들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이후 후속 조치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종도들이 직선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바로 직선제 도입시 발생하는 문제점 보다 긍정적 효과가 많기 때문이다.

직선제 종헌 개정안의 이번 법제화 시도는 시작에 불과하다. 불교시민사회에서 직선제 추진 움직임은 꾸준히 일 것이며, 선거마다 총무원장의 공약 사항으로 요구할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종도들의 열망은 거세다. 직선제란 강물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불교미래포럼 창립에 거는 기대

한국불교 담론을 이끌 지식인 결집체가 창립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가 오는 11월 21일 불교 지성인들의 결집체인 '불교미래포럼 창립법회'를 봉행한다고 한다.

교불련이 주축이 돼 1년 넘게 준비한 불교미래포럼은 불자교수들을 필두로 교계와 학계를 망라하는 불교 지성인 결집체를 지향한다. 그간 교불련은 불자교수들의 연결망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불교 종단 위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등은 매우 미흡했다.

불교미래포럼이 창립하는 이유도 그간의 불교 지성으로서 부족했던 점을 일신하는 데 있다. 이는 포럼 안에서 만들어지는 세부 위원회를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불교 내부 현안을 담당하는 불교정책위원회가 있고, 사회적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불교사회위원회,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불교세계화위원회가 각각 구성된다.

불교미래포럼은 신행단체가 아닌 만큼 종단 등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불교 내 · 외 현안을 두루 다룰 계획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최순실 게이트부터 혐오 문화, 사회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더미이다. 지성인이 해야 할 역할은 혼돈의 시대에 나침반이되는 것이다.

여러운 시대마다 참된 지성인들은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존경이라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그만큼 부단한 성찰과 자기희생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불자 지성인들의 연합체임 불교미래포럼도 성찰과 실천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 불교미래포럼이 원융회통의 정신으로 사회 변화를 응시하며, 통섭의 이상으로 생산적인 담론의 장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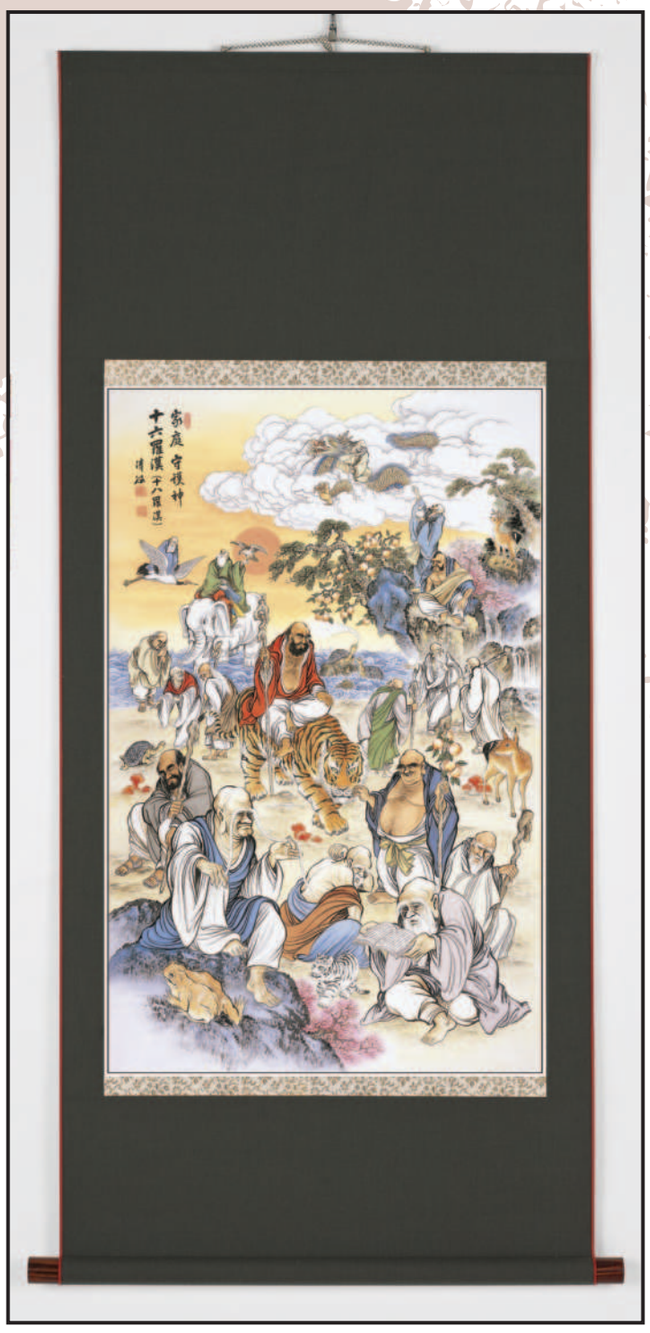
한국최초!!
내 손 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순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 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을 만든 비술이다.
■ 시간법도 각각 年名(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와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 육임은 대운법 뿐만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
(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해 드립니다.)
동영상 CD(외장하드)를 함께 드리며 화상강의도 가능합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념 著 / 4×6배판 / 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부처님 마음 공부
무량 청정암 열린 마음선원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부처님 마음공부를
함께하실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아 래
❶ 교육과정 및 일정

과 정	요일및시간	수업내용	
기초과정	매주 화요일 (요일 변경 가능)	염불선	1단계 : 불교이해 2단계 : 경전독송 이해
중급과정	매주 수요일	참 선	참선이해, 법거량
고급과정	매주 금요일	간화선	화두참구, 깨달음

❷ 수업 신청 방법
– 기초과정 : 3개월 선착순 (20명 이내 한정)
– 법사와 1대 1 수업 운영
– 수 강 료 : 3개월 (30만원)
❸ 교육장소 : 무량 청정암
❹ 교 수 : 무량 청정암 최정훈 법사
❺ 문 의 : 010-2559-6886
무 량 청 정 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76번길 23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18나한)포대화상도, 달마도

이상 작품들은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 줄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 이제까지 불교카렌다를 통해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이번에 직접 세가지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길이 : 120Cm x 폭 54Cm • 가격 : 각 100.000원

16나한도을 구입하시는 분에겐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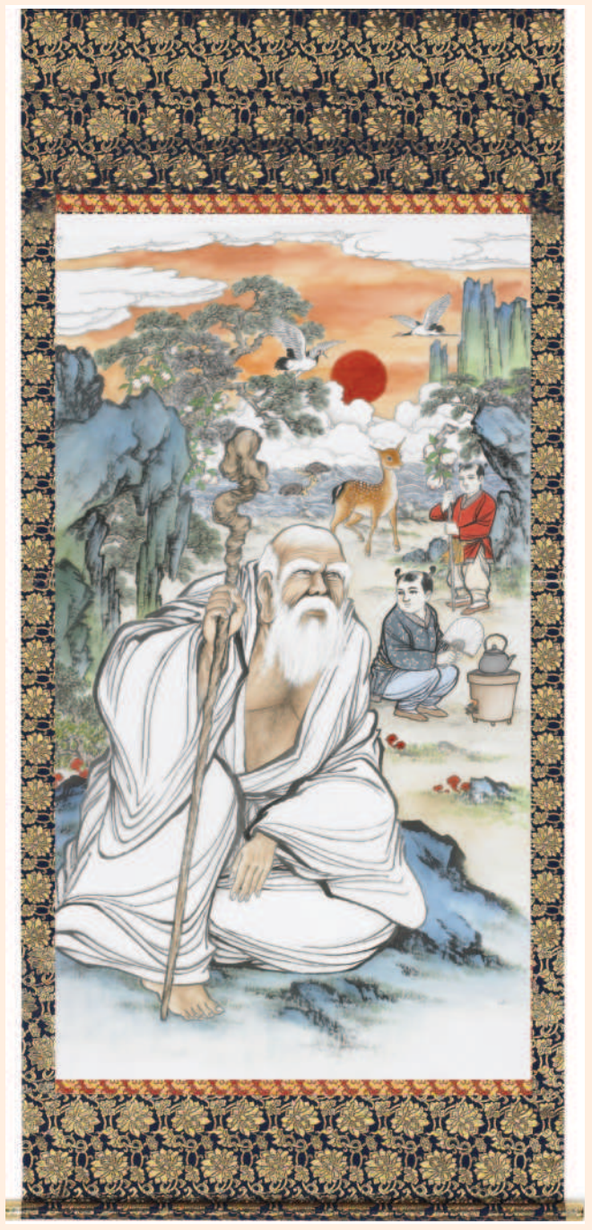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이들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현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 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한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분 한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영원한 수호신으로 모셔 주기를 바랍니다.

사찰용 십장생 수호신 – 산신각, 칠성각, 독성각

• 길이 : 180Cm x 폭80Cm
• 가격 : 각 380.000원







그림마다 십장생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칠성각은 해 대신 무지개를 넣어 제작 하였으며 그림마다 천도 복숭아가 들어가 있고 **전통불교 황금족자**로 제작하였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